

시로 읽는 성보순례
그 사내
국보 제63호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이룬다.
「화엄경 40권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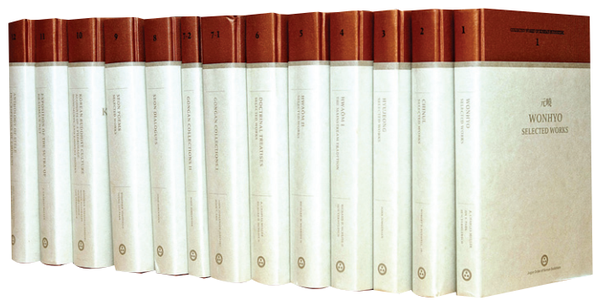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7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02호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역경 불사 '전통사상총서' 영역 완간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 총서 한글본 등 26권 마무리



〈한극전통사상총서〉 영역본 13권. 5년간의 대작 역경불사가 마무리됐다.

故지관 스님 원력 33대 집행부서 결실
다자간 번역 시스템으로 역장 복원 의의
기초자료 활용…한국불교 세계화 초석

2006년 12월 준비 모임을 갖고 시작된 〈한국전통사상총서〉가 최근 영역(英譯)본 출간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한 가지 주제의 불교 총서물이 한글 · 영역까지 완간된 것은 한국 현대불교 역경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사업 마무리 시점인 지난 6월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을 완간하고 8월 14일 제28차 간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배송 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前조계종총무원장 故지관 스님이 시작한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 사업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인 원효, 의상, 지눌, 휴정 스님 등의 저술을 한글과 영어로 번역해 한국 전통불교사상을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고문으로 쓰여진 〈한국불교전서〉를 요약한 만큼 그 양도 방대하다. '권1 원효'로 시작하는 총서는 화엄, 제교학, 공안집(1,2), 선어록, 시선집, 계율, 비문집 등 총 13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글과 이번 영역본을 합치면 26권에 달한다.

故지관 스님은 2009년 첫 한글본 봉정법회 당시 "연구자 인프라가 취약하고 국고 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라며 "고전 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할 수 있게 됐다"고 총서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자간 번역시스템'을 통해 고대 역장(譯場)을 복원했다는 데 있다. 그간 번역은 번역자 1~2인에 의존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어 왔다. 하지만 '다자간 번역시스템'은 한글역자와 영역자 간 교차검토와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다.

〈전통사상총서 주요 영역자〉



로버트 버스웰



찰스 뮬러



셈 베르메르슈



리처드 맥브라이드

번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면면들도 화려하다.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 고옥 스님(가산불교연구원 연구실장), 정병삼 교수(숙명여대), 이진오 교수(부산대) 등은 한글번역과 윤문 · 영역 1차 감수를 담당했으며,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정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대조 교열을 진행했다.

총 8팀으로 구성된 번역팀에는 로버트 버스웰(美 UCLA), 찰스 뮐러(日 동경대), 리차드 맥브라이드(美 하와이대), 셈 베르메르슈(서울대), 안준영(美 미시간대) 등 총 23명의 전문가가 주요 번역 · 교열자로 참가했다. 23명의 보조연구원도 번역에 참가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간행 작업에 참여한 미산 스님은 "그간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연구하려 해도 기초자료가 부족했다"며 "고승 전적과 비문, 선어록을 정리한 이번 총서는 외국 한국불교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런 학술적 성과를 통한 이론 정립과 포교가 함께 이뤄져야 한국불교 세계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영역 논서들도 발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세계 각국의 주요대학과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간행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던 권기찬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도 "한국불교 학술 총서가 한글과 영어로 번역돼 완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글역만 전 세계 313개소 도서관의 요청으로 배포됐다. 영역본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남북통일 정토 함께 이루겠다"

조계사 – 광법사서
8.15 남북 동시 법회

광복 67주년을 맞아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8월15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에서 각각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사회부장 법광 스님, 민추본 전 집행위원장 진효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남북불교는 발원문을 통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향해 갈 것을 강조했다. 남북은 "지금 남과 북 사이에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이 더욱더 격화되었으며, 첨예한 대결의 기운이 이 땅을 무겁게 뒤덮고 있다"며 "우리들은 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내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되고자 남북선언 실천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지상정토를 세우겠다"고 발원했다.

정혜숙 기자



8월 12일 열린 제16회 만해대상 시상식 직후 만난 월주 스님(사진 오른쪽)과 르네 뒤퐁 주교. 평화와 실천 부문의 두 수상자는 만해 흉상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을 잡았다.

스님 · 신부가 맞잡은 두 손은…

제16회 만해대상 수상자 월주 스님 · 뒤퐁 주교의 만남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잇는 공생의 메아리가 강원도를 넘어 전세계에 울려 퍼졌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는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입재식과 함께 제16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종교인 수상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르네 뒤퐁 주교(천주교 안동교구 前 교구장)가 주인공. 이날 월주 스님은 만해 평화대상을, 뒤퐁 주교는 실천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 오지마을에 우물 1660개, 케냐에 15개, 몽골에 12개를 설치하고 미얀마에서는 강물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빈곤국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천 부문에 이름을 올린 르네 뒤퐁 주교는 60여 년을 안동 지역 농민 · 소외 이웃과 함께 해 온 숨은 선지식이다. 시상식 이후에는 종교를 넘어선 두 종교인은 손을 맞잡으며 교우의 자리를 가졌다. 월주 스님은 뒤퐁 주교에게 "83세 평생을 한국을 자신의 나라에서 처럼 사랑을 실천해오셨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뒤퐁 주교 역시 "나이도, 머리스타일도 비슷해 보인다. 스님이 마치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강원 인제=노덕현 기자

관련 기사 3면

BBS 민영미디어렙 '사찰도 반대'

전국 사찰 현수막 게재… "종교편향 정책 철회하라"

MB정부의 종교 편향 미디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주요 사찰에 게재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독교방송의 광고 판매는 공영미디어렙에 편입시킨데 반해, 불교방송은 SBS의 민영미디어렙이 맡도록 한 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구룡사 능인선원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100여 개 사찰들이 불교방송의 민영 미디어렙이 종교편향이라는 현수막을 달았다. 이들은 지난 8월 7일부터 '불교방송은 상업 방송이고 기독교 방송은 공영방송이냐? MB 정부는 종교편향 미디어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문구를 게재해 불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는 충청 호남 대구 강원 지역 등의 사찰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불교방송 박관우 보도국장은 "SBS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 기업이지만 불교방송은 공공의 가치를 위한 종교 방송이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시장논리에 근거해 불교방송을 SBS와 묶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편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불교방송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홍성규 부위원장의 사퇴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움직임을 펼칠 예정이다. 박 국장은 "현재 방통위 실세라 할 수 있는 홍 부위원장의 사퇴운동도 조심스럽게 추진중에 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8월 24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고시를 대선 이후까지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불교방송은 ▷종교방송 3사 사장단 성명서 발표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서 불교방송 공영미디어렙 편입 촉구 결의문 채택 ▷대불청 불교사회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관련 기사 31면

902호 INDEX

종합 2·3
백양사 '부촉문' 진위 논란
조계종, 노동자 '감싸안기'

시방세계 5
올림픽 불자 선수들 '마음공부'



강의실 중계 8
동국대 국제선센터 수불 스님 특강



제2회 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
한국사진작가협회 점수 부여

응모내용

공모주제 불교 관련 소재(미풍 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 · 외 미발표작)
참가자격 전국 사진 애호가
접수기간 2012년 6월 1일 ~ 10월 5일(당일 소인 유효)
작품규격 가. ① 슬라이드 필름 : 컬러 및 흑백 사진 11″ × 14″(장정불요)
② 디지털카메라 : 최소 3024 × 2016 픽셀(5MG이상, JPG파일)
나. 출품수 : 1인당 3점 이내
접수방법 작품 뒷면 또는 이메일에 화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입한 출품표를 부착해 우편 또는 이메일(ggbn@ggbn.co.kr) 접수
주소 : 110-776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허브 오피스텔 102동 307호 (02-723-1548)
심사발표 2012년 10월 초 · 중순 대한불교천태종(www.cheontae.org)과 금강신문(www.ggbn.co.kr) 홈페이지 및 지면

※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천태종, 금강신문 홈페이지 참조

시상내역

금 상(1점)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상패 및 상금 300만원(4점 부여)
은 상(2점)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3점 부여)
동 상(3점)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2점 부여)
가 작(5점)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이하 2점 부여)
장려상(5점) 출품수가 8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입 선 입상작 포함 출품작 수의 20% 이내

수상작 전시

일 시 2012년 10월 24일~30일
장 소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 4 · 5층(인사동 사거리 위치)

기타 유의 사항

– 금 · 은 · 동상 입상자는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작품 원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름 원판, 디지털 작품은 3024×2016픽셀 이상의 원본파일을 CD로 제출), 미 제출시는 상권을 취소함.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은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선 이상의 작품은 대한불교천태종에 저작권이 귀속되고 출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기발표작,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 입선될 경우 상권을 취소함.

주최 :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한국불교사진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금강신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63호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그 사내

윤석산

도저히 입 떼지 않아
군내는 고사하고 입 안 그득 곰팡이 슬었을 듯한
그 사내와
마주하고 선다.

천 길 물길 속에서 녹고 녹아
심장까지 다 녹아 아, 아 비로자나불로 태어난 사내
(나 이곳에 앉아 있으려니
그대들 이 자리에 피안에 이를 절집 한 채 지을지니)

이제 입 열어 세상 향해
"이놈들!"하고
대갈일성함 직도 하데
여전히 입 꾹 다물고만 있는

오늘도 다만 천 길 물길 속 견디고만 있는 그 사내

붉디 붉은 해
뉘엿뉘엿
오늘도 천년의 그 어깨 너머 넘기고만 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윤석산 시인은… 서울 출생. 197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온달의 꿈〉 등.

백양사 호국법회 '부촉문' 논란 확산

종정 예경실 공식 부인… 주지 시몽 스님 "직접 받았다"

백양사 호국안민기원법회에서 종정 진제 스님 명의로 발표돼 진위 논란에 휩싸인 '부촉하는 글'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가 8월 14일 봉행한 호국안민기원법회. 광복 67주년을 앞두고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취지의 법회라고 했지만, 사실상 암도 스님의 방장 추대 법회였다. 실제, 원로의원 월서 스님의 종정 법어 대독 이후 발표된 '부촉하는 글'을 암도 스님은 예를 갖추고 받았다. '부촉하는 글'에는 암도 스님이 원로로서 백양사를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지 시몽 스님도 법회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촉하는 글'의 의미에 대해 "암도 스님이야 말로 백양사 원로 중 학덕을 구족하신분이다. '부촉하는 글'도 종단의 명망 높은 원로이신 암도 스님이 백양사를 총괄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라고 밝혔다. 부촉문에 대해서는 "종정 스님에게 참석을 부탁드리기 위해 세 번 찾아갔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드렸다. 부촉문은 종정 스님을 찾아갔을 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정 예경실은 백양사에서 발표된 '부촉하는 글'을 공식 부인했다. 예경실은 입장문에서 "종정 스님의 명의로 발표된 '부촉하는 글'은 종정 스님이 직접 작성해 내리신 게 아니다"며 "덕담으로 한 말씀 중 일부를 성문화 시켜 주최 측이 임의로 작성해 대독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종정 예경실의 공식 입장 이후 시몽 스님 측은 역풍을 맞았다. 방장 추대 문제를 둘러싼 내부 문제를 종정 스님의 권위를 도용해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대독 월서 스님 "관계자 참회"
비대위 · 시민단체도 우려 표해
호법부 처벌 천명, 특별감사도

'부촉하는 글'을 대독한 월서 스님은 8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정황을 밝히고 "총림의 방장을 모시는 절차가 종헌과 종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백양사 주지와 관계자들은 종정 스님에게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 측인 고불총림 임회 및 고불총림 백양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오, 이하 백양사 비대위)도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부촉문 조작에 대해 사죄을 뜻을 밝히고 "현 주지 시몽 스님 측이 개최한 호국안민법회는 종헌종법을 공공연하게 철저히 무시하고, 불법, 초법적으로 방장자리를 차지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도 백양사의 '종정 부촉문 조작파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총무원 호법부(부장 정안)도 '부촉문' 논란 사태를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것을 밝혔다. 호법부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처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종정 스님을 기망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호법부는 입장문을 통해 "'부촉하는 글'을 임의로 작성하고 공개석상에서 발표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헌과 종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종무행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동자와 동조자 모두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총무원도 16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방장 추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백양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특별감사는 17일부터 18일 2일간 진행됐으며, 총무원 총무부, 감사국, 재무부, 호법부 등이 참여했다.

신중일 기자 · 양행선 전남 지사장



런던 장애인 올림픽 '건승' 기원합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6일 경기도 이천 소재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을 방문해 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 중인 대표선수들을 격려했다.

가장 먼저 훈련원의 현황보고를 들은 자승스님은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대표단에 비해 장애인 올림픽은 국민적 관심이 못 받고 있다.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문했다"고 방문 의미를 밝혔다.

현황보고 후에는 관계자들의 안내로 훈련장 등을 둘러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17명 떠난자리 '평화 인권 센터' 들어선다

위안부 할머니들 보금자리
'나눔의 집' 20주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 잡은 나눔의 집(대표 월주)은 8월 11일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나눔의 집에서는 올해 2명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17명의 할머니가 여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현재 나눔의 집은 많은 사람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국제평화인권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 집 앞 800여㎡에 건축연면적 200㎡, 2층 규모의 국제평화인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3억원으로 예상되는 건립비용은 6월에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화선(향년 86세) 할머니가 기부한 6000만원을 바탕으로 각계 후원금과 법인 지원금 등을 모금해 마련할 예정이다.

2014년에 착공할 예정인 인권센터는 세미나실과 전시실, 숙소 등을 갖추고 지금보다 체계적인 인권 · 평화 ·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정한용 징계 적법"

서울고법, 17일 원심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정한영(법명 성호)에게 조계종이 내린 징계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8월 17일 판결문을 통해 "조계종이 정한영에게 내린 멸빈의 징계처분은 제적의 징계처분으로 변경됐음으로 멸빈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각하한다"며 "제적의 징계는 적법한 만큼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BULKWANG ACADEMY

佛光 2012 가을

불광 아카데미

불광사는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반 인문학과 불교를 비교하는 강좌,
불교 원전을 심층 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 불광사 불광법회
02-417-2551 www.bulkwangsa.org

불광연구원 주최 12주
한국의 고승(高僧)과 불교사상

개 강 일 9월 12일 개강
수강기간 총 12주(매주 수, 저녁 7시 30분)
수 강 료 120,000원(자료비 포함)

최근 초기불교와 티벳불교, 서양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갖게 됨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정작 한국의 고승과 그들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합니다. 우리 불교 속에 살아 숨 쉬는 고승들의 삶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강	9월 12일	승랑(僧朗)	동아시아 불교의 초석을 다진 해동의 고승 김성철(동국대)
2강	9월 19일	원측(圓測)	유식학의 새장을 연 신라의 학승 남무희(국민대)
3강	9월 26일	원효(元曉)	해동불교의 신 새벽을 연 화쟁보살 김원명(외국어대)
4강	10월 10일	의상(義湘)	일승법계도와 해동의 화엄사상 해주스님(동국대)
5강	10월 17일	도의(道義)	남종선의 전래와 구산선문의 성립 김상현(동국대)
6강	10월 24일	의천(義天)	선교를 종합한 한국 천태종의 개조 이병욱(고려대)
7강	10월 31일	지눌(知訥)	위기의 고려불교를 살린 정혜결사 이덕진(문성대)
8강	11월 14일	일연(一然)	고대의 신화와 설화를 집대성한 역사가 조명제(신라대)
9강	11월 7일	태고 · 나옹 · 백운	간화선 선풍을 드날린 여말 삼화상 황인규(동국대)
10강	11월 21일	청허(淸虛)	선교를 회통한 호국의 팔도도총섭 고영섭(동국대)
11강	11월 28일	백파와 초의	1백년을 풍미한 조선 최대의 선문논쟁 김방용(충남대)
12강	12월 5일	경허(鏡虛)	격동의 근대사를 밝힌 경허와 근대의 고승 변희욱(서울대)

김형효 철학 산책 8주
마음혁명, 부처님의 세상보기

개 강 일 9월 17일 개강
수강기간 총 8주(매주 월, 저녁 7시 30분)
수 강 료 80,000원(교재 별도)

『마음혁명』은 '사유의 여행자' 김형효 선생님이 세상과 철학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입니다.
그동안 서양의 해체철학과 동양 철학을 결합한 독창적인 사유 체계를 보여준 저자가 30여 년에 걸친 사유의 여정을 정리한 책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에서 시작하여 불교철학으로 눈을 돌리신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불교계, 노동자 '끌어안기' 행보

조계종, 노동위 8월 말 발족… 위원장 종호 스님 예정

정리 해고와 열약한 노동 조건에 지친 노동자들을 감싸 안기 위한 불교계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14일 부실장 간담회에서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최종 점검했다. 21일 열린 종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 최초의 종단 산하 노동위원회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동위 위원장에는 서울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종호 스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설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대내외적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종령 기구다. 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설치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도박 파문 등으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 10명과 사회부장이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열린다.

노동위원회는 △종단 대사회 노동 관련 종책 자문 △노동 현안에 대한 화해와 조정 △노동 분야 종단 내 교육에 관한 자문 △노동 피해자 긴급 구호 자문 △노동관련 시민 단체와의 연대 및 후원 △노동관련 연구 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직접 노동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애환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오는 8월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한다.

결사추진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

종책 자문 · 현안 조정 등 담당

29일 노동자 무차대회 개최

'불교계 발원문' 도 발표 예정

들기 네트워크, 정리해고 · 비정규직 ·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 주관하는 이번 무차대회는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 노동자가 아닌 학습지 교사와 시민들을 위한 대화마당으로 꾸며진다.

'노동자를 부처님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1부는 희생노동자를 위한 추모 타종 및 묵념으로 시작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격려사를 할 예정이며, 스님들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저녁 공양을 올린다.

2부 '노동자, 불교를 만나다'는 노동자들의 아픔와 애환을 듣는 자리로 꾸며진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쌍용차노조, 청소노동자, 학습지 노조 등이 참가한다.

해고 노동자들의 공연도 마련된다. 쌍용자동차노조 율동패 '쇳밥'과 중외제약 및 골든브릿지증권 해고노동자 합동율동패, 국립오페라단 해고노동자 합창단 등이 직접 나서 공연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무차대회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불교계 서원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결사추진본부는 "해고의 공포와 무자비한 폭력, 불안정한 고용과 열약한 노동조건 속에서 행복마저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를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불교계에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불교계 사회참여 중 미흡했던 분야였다. 종단 내 산하 기구로 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시작이라 아직 부족하는 부분이 많다. 불교계 시민사회와의 협조 등을 통해 장기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만해대상을 수상한 수상자들. 왼쪽부터 독일 쿠트 그리블 시장, 인도 오타니 몬슈 고신 장관, 르네 뒤퐁(두봉) 주교 (이상 실천대상), 월주 스님, 캄보디아 지뢰제거운동가 아키 라(이상 평화대상),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 사바와 문학평론가 김재홍 명예교수를 대신해 수상한 압둘라흐만 대리대사와 김재돈 대표(이상 문예대상).

만해사상 실천 메아리 '세상 울리다'

2012 만해축전 12~14일… '공감 · 상생' 주제로

· 겨레사랑을 실천하고 평생 자유 · 생명 · 평화 운동에 힘쓴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 스님을 기리는 2012만해축전이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 센터에서 개막했다.

20여 일 동안의 뜨거운 여름열기 속에 내리는 비처럼 이날 만해축전은 불교 · 문학인들의 갈음을 해소하는 어울림 한마당이었다.

'공감과 상생'을 주제로 열린 만해축전 시상식에서 평화대상은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캄보디아 평화운동가 아키 라, 실천대상은 두봉(르네 뒤퐁) 전 천주교 안동교구장, 독일 쿠트 그리블 아우크스부르크 시장, 인도의 오타니 몬슈 고신 우타라칸드 주 불교부장관이 각각 수상했다.

문예대상의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 사바와 문학평론가 김재홍 경희대 명예교수는 각각 종교(라마단)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압둘라흐만 주한 쿠웨이트 대리대사와 동생 김재돈 시학사 대표가 대리 수상했다.

축전 기간 동안에는 전국고교생백일장을 비롯해 만해학회와 한국시인협회 등 총 25개 불교, 문학,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열렸다.

시상식에 앞서 11일 밤에는 만해마을

문학단체 주최 행사 '다채'

다문화시대 위한 세미나도

님의침묵 광장에서 전야제인 '공감과 상생의 시 한마당'이 열렸다. 시인 400여명을 비롯해 가족단위 관람객 등으로 대성황을 이룬 전야제에서 영화감독 임권택, 시인 고은, 배우 강부자, 탁구인 출신 국회의원 이에리사, 가수 유열, 배우 오정해 등 특별손님들은 각자 시와 노래로 축전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만해축전 입재식에 앞서 12일 오전에는 만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이 인제실내체육관에서 전국 고교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산문 부문에 참가한 화성 남양고 3학년 이화인 양이 '변신'이란 산문으로 대상인 대통령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하는 등 46명이 입상했다.

또 지역민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도 함께 마련돼 13일 밤에는 인제문화예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인제문화예술인의 밤에서 색소폰 동아리, 천도울림회, 하늘내린 민요회, 휘나리무용단, 인제군합창단, 내린문학회 등 5개 단체에서의 시낭송, 뗏목아리랑, 합창, 무용 등 공연을 펼쳤다.

만해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학술행사도 계속돼 총 77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또 12일 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문학사상 주간)의 문학콘서트, 13일 '다문화가족 예술제'와 다문화심포지엄 등이 열렸다.

이와 함께 인제군축구연합회 주관으로 19일 북면체육공원에서는 대동축구대회가 열렸으며 13일에는 인제군 게이트볼대회도 인제다목적구장에서 진행됐다.

강원 인제= 노덕현 기자

'승단 범계' 근절방안은?

연대회의, 오는 28일 대화마당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연대회의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종단 개혁안 마련을 위한 대화마당을 개최한다.

사부대중연대회의와 재가연대는 8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한국불교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진정성과 구체적 실천력을 담보한 개혁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한 대화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오는 28일 오후 7시에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승단의 범계원인(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집행위원장 동출스님과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한다.

이어 △9월 18일에는 '선거 제도안 마련' △10월 16일에는 '불자의 정치참여 방안' △11월 20일에는 '종법 제개정' △12월 8일에는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청규 및 불자실천 선언'을 주제로 대화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대화마당은 매회 저녁 7시 열린다.

신중일 기자

성철 · 법정 스님 영향력 아직도 크네

사사저널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 조사결과

법륜 · 자승 스님 6,7위

혜민 스님 처음 순위권



故 성철 스님



故 법정 스님



자승 스님



법륜 스님

성철 ·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이 최근 〈시사저널〉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종교인 부문에 1~3위에 올랐다. 아직도 고인들의 영향력이고, 사회를 이끄는 종교인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사는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각계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인은 故 김수환 전 추기경이었다. 이어 故 법정스님과 故 성철 스님, 조용기 목사, 정진석 추기경, 법륜 스님, 자승 스님, 故 한경직 목사, 혜민 스님, 故 문익환 목사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5명, 개신교 3명, 가톨릭 2명이다. 지난해 조사에 이어 올해에도 10위권 안에 타계한 인사 5명이 올랐다.

이밖에도 불교계에서는 안철수 교수의 멘토로 알려진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보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다. 자승스님은 지난해 5위(10.4%지지)에서 7위(6%)로 내려앉았다. 대신 故 법정스님이 전년보다 두 단계 오른 2위, 고 성철스님이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또 힐링 열풍을 불러일으킨 혜민스님이 처음으로 종교인 9위에 랭크돼 주목을 받았다.

신중일 기자

조계사, 대웅전 해체 유물 공개

조계사(주지 도문)는 8월 14일 경내 안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03년 대웅전 종도리 해제과정에서 발견된 유물 217점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계사가 유물들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뒤 수장고 입고에 앞서 유물을 공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계사 사적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상량문인 '한국불교총본산대웅전상량문(韓國佛教總本山大雄殿上樑文)'과 '총본산건설소역원(總本山建設所役員)', '총본산건축비각사부담액(總本山建築費各寺負擔額)' 등이 공개됐다.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은 "조계사를 건립한 이유와 총본산 마련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자료"라며 "한국불교 중흥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상량문(사진 왼쪽)과 조선 황태자 가례식 메달

이밖에도 함께 발견된 유물에는 〈금강경〉 등 불교경전과 더불어 대한제국 황태자 가례식 메달과 은궤, 은수저 등 근대 공예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신중일 기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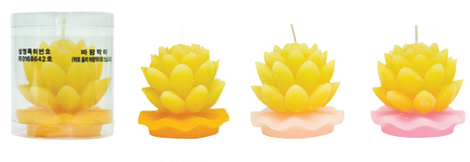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34㎝



육각초 7.0ƒ× 34



연화 大 9.5ƒ× 11㎝, 연화 中 9ƒ× 10㎝, 연화 小 7ƒ× 6.5㎝



밀납연화 小 7ƒ× 6.5㎝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일 주 문



제2회 금강경 강송대회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9월 15일까지 제2회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풍년기원 야단법석 콘서트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은 8월 31일 충북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풍년기원 한마당' 야단법석 콘서트를 개최한다.



경전교실 이전법회
이천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은 8월 16일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으로 경전교실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곰두리축구단 템플스테이 체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8월 16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팀 '곰두리축구단' 팀원들과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마음 천천히 쓰는 법〉 사인회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8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출간 사인회를 연다.



제3회 불교심리 심포지엄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 원장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창립 37주년 기념법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월 14일 마포 다보빌딩 대법당에서 창립 3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청규제정위원장 설우 스님 선출
제정위 2차 회의서… 청규 제정 방향 논의



위원장 선출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조계종 청규제정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했다. 청규제정위원회는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승가교육진흥위원 설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청규위원장에 호선했다. 설우 스님은 사의를 표명한 월암 스님을 대신해 청규위원으로 이날 회의에서 위촉됐다.

이날 청규제정위원회는 현대적 청규에 대한 제정 방향과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매월 2, 4주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위원장 설우 스님을 비롯해 덕문(통도사 율원장), 성문(동화사 주지), 주경(중앙종회의원), 강설, 법인(교육부장), 원명, 계호 스님(비구니회운영위 수석부위원장) 등 총 11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학 저변확대에 힘 쏟을 것"

선학원 제18대 이사장 법진 스님 재선



8월 9일 임시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불교학 진흥 위한 지원 중점

"설립자인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포교와 불교학 발달에 진력하겠습니다."

선학원 제18대 이사장에 現이사장 법진 스님(사진)이 재선출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8월 9일 서울 안국동 중앙선원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 13명 이사 중 12명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이사장으로 현 이사장인 법진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제18대 이사장 임기는 9월 18일부터 4년간이다.

법진 스님은 재선 인사말에서 "재단에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다. 저로 하여금 심부름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재단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1970년 범어사에서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구족계를 수계했다.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를 수료한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원광대에서 '조선중기 선사상사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조계종 사회국장,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월곡청소년센터 관장, 선학원 중앙선원장을 지냈다. 현재 불교저널 · 월간선원 발행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법진 스님은 특히 학술진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산하 선리연구원 원장을 맡으며 매년 선리학술상을 통해 수십명의 소장학자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논문 1사찰 지원사업을 펼치며 선학원 전반에 학술지원 풍토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진 스님은 "학문발전과 포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불교학 진흥없이는 불교 발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술지 등재를 비롯해 불교학 저변확대에 보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 등 불교계 민족열사들이 설립한 곳이기도 하다. 스님은 선학원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스님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진 스님은 "광복절과 독도문제 등 현 시국에서 불교계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만해 스님의 열반이나 당시 만들었던 선원지 등에 대한 조명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승가의 본 목적은 위로는 부처님 법을 잇고 아래로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승가의 모습을 재정립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선학원 이사회는 같은 날자로 임기 만료되는 송운 스님 등 9명의 이사에 대해 중임을 결의했다. 또 기본재산 취득의 건 등 10개 건에 대한 의결 · 심리 및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상반기 학술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미주종교협 종교평화상 수상

법타 스님, 지난달 27일… 남북교류 활동 공로로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사진)이 지난 7월 27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종교평화협의회주관 '제3회 종교평화상' 시상식에서 평화상을 수상했다.

미주 종교평화협의회(상임대표 양운성, 원불교 교무)는 "법타 스님은 지난 20여년 간 불교계 성직자로서 남북교류활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종교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법타 스님은 "미주종교평화협의회가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각 종교들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지내 듯, 우리 재미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도 국내 동포들과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화합의 힘으로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법타 스님은 1998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금강산문화유적복구협약을 맺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주도했으며, 2002년부터 평양법운함 단청 및 삼존불 개금, 사리원 성불사 단청 및 삼존불 개금 등 북한의 사찰과 불교문화재 보존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바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미주종교평화협의회'는 1997년 5월 '북미주종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으며, 그동안 김광준 신부, 김성곤 전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일 대비 남북청소년 교류 모색

파라미타 신임 사무총장 법경 스님



"지도자 확보와 조직 활성화로 국내 · 외로 뻗어나가는 파라미타 만들고 싶습니다."

법경 스님(좋은절 주지 · 사진)이 8월 16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총재 지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법경 스님은 지난해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령 제정으로 사무총장 당연직 규정이 폐지된 후 임명된 첫 사무총장이다.

법경 스님은 "충청남도나 경북 · 제주도 같은 지역은 파라미타 연합회가 전무하다. 지역적으로 낙후된 곳까지 조직을 확대 ·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경 스님은 "교수불자회, 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조를 얻어 지도자 양성에 뜻있는 분들을 파악해 낙후된 청소년 단체를 지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있다"며 "이후 도내 학교와 사찰간 연계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경 스님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통일에 대비한 남북청소년 교류와 북한청소년들의 물질적 지원 등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법경 스님은 1968년 월정사에서 태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포교원 포교국장, 파라미타 사무총장, 중앙종회의원, 민추본 사무처장, 총무원장 종책특보 등 종단 주요 소임을 지냈다. 2007년부터는 파라미타 이사로 활동해 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행복한 나눔 가게 '여여' 문열어

봉은사가 행복한 나눔가게 '여여'를 개장한다.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진화)은 8월 24일 행복한 나눔 매장 '여여'를 개장식을 개최한다.

봉은사 내에 자리할 나눔 매장 '여여'는 봉은사가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봉은에서 운영하며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역의 농민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역 농산물 생산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 지역 특산물 직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봉은사는 여여 개장을 맞아 8월 25~26일 양일간 봉은사 진여문에서 지역 특산물 특판행사를 진행한다. (02)3418-484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법사대 법사하계수련회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학장 지일)은 8월 3~5일(제21회 법사과정), 8월 11~12일(제11회 대법사과정)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재학생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사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계수련회에서는 불교교양 수업과 법사양성 과정 등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호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봉불 점안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도)은 8월 12일 종단 총본산인 양산시 상북면 청운사 대법당에서 봉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종정 운송 스님, 총무원장 성도 스님, 종회의장 일봉 스님, 포교원장 운암 스님, 중앙비구니회장 범우 스님 등 종단임원 및 종도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일봉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점안식에서 총무원장 성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행이나 깨달음 못지않게 중생구제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우리 호국불교조계종의 이념"이라며 "정법주의, 자비주의, 평등주의의 실현을 통한 불국토 건설에 두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종정 운송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불교의 기치로 호국선사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중추 종단으로 전 종도가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051)468-5657 **노덕현 기자**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1부 • 최종성적증명-1부 • 입학신청서-1부 • 여권용사진-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남경대학	4년	40명	
남경부속 중 · 고등학 교	각 3년	4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수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직업의사(국제중의사) 자격 취득자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활동 가능

3. 지원자격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주지스님 추천자
▶ 합격자 전원 중국대학에서 수업 남경중의학대학 전원기숙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제외 : 색명, 색약, 유전(전염병)

※모집기간 : 2012년도 8월 28일까지

5. 문 의 처

☎ 전화 : 011-472-2782(직통)
☎ 팩스 : 02)511-2028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校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學大學)

“마음 비우는 순간 깃털처럼 가벼웠다”



7월 28일 개막한 2012런던올림픽이 8월 13일 폐막했다. 당초 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런던행 비행기에 오른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에 종합순위 5위라는 성과를 올리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높였다. 특히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선수단의 메달 중 대부분을 불자선수들이 따며 감동을 선사했다.

런던 올림픽에서 휘날린 태극기 아래는 선수 68명, 감독과 코치 등 임원 34명 등 총 102명의 불자선수단의 뜨거운 불심이 있었다. 긴 시간 동안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묵묵히 땀흘린 불자 선수들의 열매는 달았다. 이들 뒤에는 불자 코치진과 불자 부모님들의 간절한 발원이 있었다. 이들은 때로는 선수들보다 더 강인한 모습을 보이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노덕현 · 이은정 기자

사격 마음·호흡 조절 평정심에 최후의 방아쇠 흔들림없어


진종오


김장미


최영래

8월 5일 한국 올림픽 사상 개인종목 최초 2연패, 사격 최초 올림픽 2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진종오 선수의 마음은 텅빈 그 자체였다. 천태종 신도인 진종오 선수는 관음기도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런던올림픽 남자 50m 권총에서 진종오 선수와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인 최영래 선수도 독실한 불자다.

여자 25m에서 금메달을 딴 김장미 선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정향진 씨와 함께 사찰을 찾았다. 김 선수는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해 긴장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다. 런던으로 향하기 전에는 어머니께서 단주를 주셨다”며 금메달의 영광을 어머니께 돌렸다.

체조 가방 속 경전서 도약의 힘 솟아


양학선

마음을 비운 그의 몸놀림은 마치 깃털과 같았다. 6일 ‘도마의 신’이라는 별명처럼 1, 2차 시기 평균 16.533점을 작성하며 올림픽을 정복하기 까지 그의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었다. 양학선 선수는 “착지하는 순간 금메달을 확신했다”며 “부모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양 선수는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권유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체육인 연합회 장학생 출신이기도 한 양 선수는 가방에 경전을 넣고 다니며 읽을 정도로 독실하다.

펜싱 상대 흥분 할 수록 더욱 집중하니 금메달 보여


신아람


구본길


원우영

펜싱 선수들의 기량은 불교 명상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 오심판정을 겪으며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던 신아람 선수는 태릉선수촌 법당 지도법사 스님이 해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숨을 쉬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명상을 하며 오심으로 얼룩진 분노의 마음을 다스렸다.

또한 남자 단체전에 출전한 구본길, 김정환, 원우영 등은 대표 불자 선수들로 투혼을 발휘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레슬링 매주 선수촌 법회 열성, 훈련도 열심


김현우

아들의 눈은 시퍼렇게 부어 있었다. 김현우 선수가 8일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독실한 불자인 아버지 김영구(60) 씨와 어머니 박영호(55) 씨는 “우리 아들 장하고, 고맙다”를 외쳤다. 김현우의 금메달은 올림픽을 위해 흘린 땀이 빚은 결실이었다. 그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체중 조절에 실패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현우 선수는 그 누구보다 훈련에 매진했다. 매주 일요일 선수촌 법당의 법회에 참여하며 다진 신심도 그 누구보다 강했다.

양궁 무심 속 활시위 떠난 화살 금빛 포물선禪 그려



불자선수 오진혁, 기보배, 최현주, 김법민 등이 활약하며 양궁은 남 · 여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큰 활약을 보인 최현주 선수는 가장 불심이 깊은 선수로 알려져 있다. 항상 선수촌법당에서 봉행되는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남다른 불심을 키워왔다. 또한 불자커플인 오진혁 선수와 기보배 선수 역시 경기 내내 단주를 차고 결승전 마지막 한발까지 혼심을 힘을 다해 화살을 당겼다. 장영술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은 “불교와 양궁은 매우 닮았다. 굉장히 선(禪)적인 종목이다. 때문에 불자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기량으로 선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드민턴 단주 차고 마지막까지 힘찬 스매싱



이용대 · 성대성 두 선수는 출국 전 공항에서 이용대 선수 어머니 이애자씨가 선물한 단주를 나눠 끼고 힘차게 스매싱을 날렸다. 정대성 선수는 이용대에게 항상 미안해 하며 부상 회복에 힘썼고, 이용대는 정재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옥훈련을 견뎌냈다. 두 선수는 각각 시간이 날 때마다 절을 찾아 기도를 한다. 처음 예상했던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있게 경기를 치뤘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나에게 큰 힘이었다”

이기흥 런던올림픽 한국선수단장



“올림픽 경기 동안 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해 스님들이 함께 선수들 경기를 응원해 줘서 정말 힘이 됐습니다. 경기의 가장 적은 욕심입니다. 스님들께서 선수들이 경기를 나가기 전, 준 단주를 차고 경기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 단장은 “펜싱의 신아람 선수가 1초 오심으로 억울하게 패하고 난 뒤, 선수들이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박종길 선수촌장님과 108배를 했다”며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다음 날 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전 “순간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달리스트 중 불자선수들이 유독 많았다. 그만큼 불교가 선수들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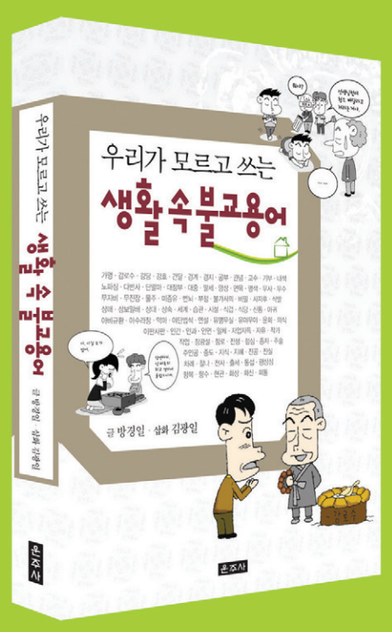
2012년 런던올림픽을 다녀와서

소요산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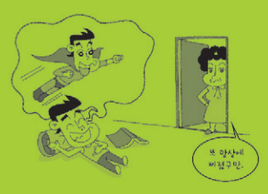


런던에 도착한 후, 먼저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직능전법단 체육분과 지도법사 스님들은 8월 6일 오전 런던 스트랫포드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을 찾아 불자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불자 선수들은 런던올림픽에서 양궁을 비롯해 사격, 배드민턴, 레슬링, 체조, 핸드볼, 펜싱 등 여러 종목에서 골고루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사격이나 양궁 등은 경기 막바지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접전을 펼치며 승부가 결정된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까지 불자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또 불자선수들이 참가한 신흥사 수련대회나 선전기원법회 등도 선수들이 긴장을 덜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승부를 떠나 선수들의 혼신에 노력, 끊임없는 도전정신은 세계와 인류에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동안의 선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글/김광일 삽화/국판변형/256쪽/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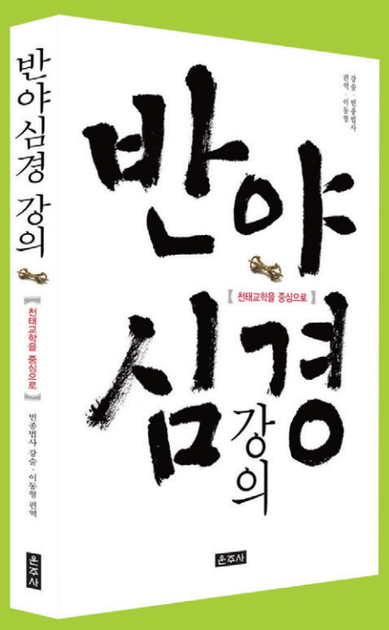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천태교학에서 바라본 반야심경

고도의 불교교학이자 실천체계를 겸한 천태교관에 입각하여 『반야심경』을 진공실상과 지관수행이라는 이론과 실천의 두 줄기로 정리한 명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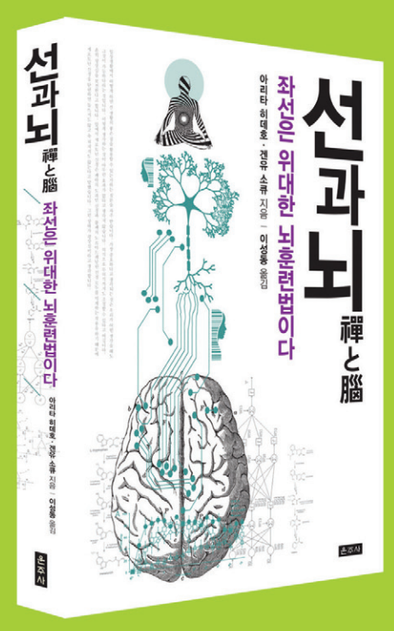
반야심경 강의



빈종법사 강술/이동형 편저/신국판/354쪽/15,000원



선과 뇌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준 높은 강의…창업으로 이어져

날마다 좋은날, 제3기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개최

불교계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 날마다좋은날 부설 사회적기업전문(특화)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 강좌가 사회적 기업 창출에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은 지난 해 11월부터 겨울과 봄 2차례에 걸쳐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교육은 지난 해 11월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 필요성' 등 사회적기업의 미션과 비전, 설립 프로세스, 마케팅 등 불교계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6월까지 진행된 강좌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CEO 등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

불교가 갖고 있는 인적 ·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창업 계획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특화 교육이 실시되면서 창업 준비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3기 아카데미 개최

그동안 지난 두 차례의 강좌에 이어 9월 6일~10월 23일까지 '제3기 불교계 사회적 기업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실시되며, 현재 모집 중이다.

그동안 사찰 및 스님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및 마인드 부족이 불교계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업단은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 이번 강좌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불교계를 대표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스님들을 강연자로 초청했다.

▷신륵노인복지센터 센터장 혜철 스님 '음식 콘텐츠 분야' ▷대전 중구시니어클럽 관장 천장 스님 '시니어복지 콘텐츠 분야'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진오 스님 '다문화 콘텐츠 분야'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명상치유와 템플스테이' 등이 강연자로 나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 인식 확대
스님들 직접 비즈니스 모델 제시
실용주의 학습법 효과 거둬

창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

박주언 사무국장은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하면서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절감했다"며 "사람들의 고민의 질이 달라졌다. 처음 '불교계에 사회적 기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인식위주에서 현재는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좌는 그런 인식변화에 맞춰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계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업단의 아카데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잇따른 창업도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단 측은 "현재 2기 수강생 35여명 중 3명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2기가 지난 6월 수료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2기 참가자들의 모습이다.

2기 아카데미 수강생이었던 김호현(스쿨프린팅 대표) 씨는 현재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 중에 있다. 김 씨는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는 강의료도 비싸고 이론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무료인데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연계해 주고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강자 남지심(소설가) 씨는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기존 창업자들이 직접 강연에 나서 필요한 창업 준비를 알려주니 좋았다"며 "불교계에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돼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문제시 됐던 정부지원 문제 등에 대해 사업단이 경영 및 마케팅에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사회적 기업 창업에 편견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서로 간 네트워크를 통해 동문회를 결성하고, 정기적인 모임과 워크샵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불교는 다양한 콘텐츠 지녀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656개. 그 중 불교계 사회적 기업은 13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합하면 24개이다. 불교계의 사회적 기업 수는 아직까지 타 종교계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이찬영 단장은 "숫자만으로 타 종교와 사회적 기업 현황을 비교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무의미한 것 같다. 그보단 점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불교계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불교는 공예용품,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여행 등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교육적인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나가다 보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02)732-7273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중앙신도회, '전국신도회'로 명칭 변경

조계종, 중앙신도회 명칭 변경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전국 신도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8월 17일 현 중앙신도회 명칭을 전국신도회로 변경하는 종헌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계종은 중앙신도회가 종단 신도의 대표기구로서 그 면모를 갖춰 제반 신도교육 및 조직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종헌 제122조 2항 '중앙에는 총무원장 관할하에 중앙신도회를 구성한다'를 '중앙에는 총무원과 관할하에 전국신도회를 구성한다'로 변경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 명칭변경에 관한 종헌 개정안은 2005년 당시 사단법인 전국신도회는 법인을 해소키로 하고, 통합신도회의 명칭은 전국신도회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중앙종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개정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종단 신도회 통합을 시행했으며, 종헌개정 이전까지 중앙신도회 명칭을 써왔다.

조계종은 "현재 종헌 · 종법 규정은 본사별 교구신도회와 종단 등록 전국단위 신도연합단체를 아우리는 신도대표기구로서의 종단 신도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명칭이 '중앙신도회'임에 따라 인식의 혼란을 비롯해 여러 가지 활동에 장애가 돼 왔다"며 "2011년 신도회 관계법령이 재정비되고 본격적인 종단 신도교육 및 조직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때임을 감안해 중앙신도회 명칭변경을 통해 종단 신도의 대표기구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종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헌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원각사 '대중 불교문화 강좌' 개설

9월 13일~12월 27일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

경기도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가 일산구 일대 탄현지구와 식사지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강좌를 연다. 원각사는 9월 13일~12월 27일 매주 목요일마다 식사동 법당에서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2012 원각사 불교문화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는 ▷최선일(문화재창 문화재감정관 · 경기도 문화재위원) ▷장희정(동국대 강사 · 충북문화재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각각 4회에 걸쳐 불상과 불화에 대해 강의한다. 또 ▷신대현(사찰문화재연구소장) ▷손신영(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각각 불교공예와 불교건축에 대해 강의한다.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은 "이번 강좌는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강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각 스님은 불교전적에 대해 2회 걸쳐 강의를 진행하며, 9월 9일 오전 11시에는 사찰음식전문가 선재 스님이 '불교음식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이은정 기자

"가족애착놀이로 행복해요"

놀이학습, 동요지도 워크숍 등 프로그램 확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족애착놀이 강사양성교육'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 얻고 있다. 지혜로운여성(원장 김애주)과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지난 7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템플스테이회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애착놀이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인도,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 강좌마다 참가자들은 홍정애 홍정애치료놀이상담센터 소장의 체계적인 놀이를 지도받고 가족들과 함께 재현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놀이지도법을 익힐 뿐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가자인 한 여성은 "빨리 교육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놀이를 집에 가서 활용하니 아이 아빠가 훨씬 더 즐거워했다.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가족애착놀이교육을 통해 가족 간의 교감을 키우고, 학교 등 교육장에서 재능기부로 놀이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혜로운여성은 문화체험, 동요지도, 메이크업 교실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짝을 지어 가족애착놀이 학습의 하나인 '손 닦아주기'를 하고있다.

하현정 연구교육 팀장은 "여러 해 동안 서울에 거주했더라도 도심 속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이주여성들을 위해 불교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 등 특별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유익한 배움을 얻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강원파라미타 제4회 청소년 여름캠프 진행

강원파라미타(회장 정념)가 8월3~5일 낙산사 유스호스텔에서 제4회 청소년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산사 체험과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학생 및 교사 150여 명이 참여했다.

'마음나누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버츄(virtue; 미덕)놀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강원파라미타 지도법사 금선 스님은 "버츄놀이 프로그램은 요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잠재돼 있는 미덕과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불교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도 진행됐다.

강원파라미타 회장 정념 스님은 "강원지역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낙산사를 비롯해 강원파라미타는 지역 청소년들이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4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2년 9월 6일 (목요일) 오후3시 (목탁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래,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사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8월 16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위안부 문제, 한국이 운동주체로 나서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미래복지포럼서 발표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정부는 일본과 100여 차례 접촉했다. 그리고 20년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美 국무장관이 ‘위안부’를 ‘성노예(sexual slavery)’라고 규정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비난 집회가 이어졌지만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8월 14일 전법회관 6층에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을 초청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현황과 나눔의집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아젠다형성 전략’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전후청산을 위한 한·일 시민의 연대운동에 있어 우리가 운동의 주체로 중심을 회복해야 한다.”

안신권 소장은 현재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이 일본 민간단체 및 변호사들과 긴밀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자 및 변호사 집단과 긴밀한 협조 관계 하에 운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권 소장

그리고 한국이 운동주체로 앞장서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UN을 비롯한 세계 기구들도 일본정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대국 패권주의 △양심적 지지자의 엘리트주의 △정부의 강력한 역할 등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일본과 동아시아지역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해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든 구조라 일본의 범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해결하는 일은 매우 힘든 것이 아시아의 현실”이라며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협력해 인권문제 인식 확대와 기구의 발전, 세계사회에 강력한 국제법과 그 시행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소장은 운동 중 피해자와 ‘양심적 지지자’와의 의견 차이도 넘어야할 장벽으로 꼽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하며 실질적 생활의 도움을 구하는데 비해, 운동 참여자들은 올바른 인권회복, 올바른 역사 회복 등 다소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일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김순옥(91세)·박옥순(89세) 할머니가 초청됐다. 박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강제징용당한 경험을 증언하면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상처로 괴로워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日정부 공식적으로 거부
인·물적자원 확보되어
동아시아국가간 협력해야
강대국 패권주의 해결 가능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안 소장은 “일본은 ‘박정희 정권 당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얘기’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후지무라오사무 일본관방장관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이 끝났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나서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요구한 위안부 청구권 협의를 거부함과 동시에 향후 협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안 소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안 소장은 한국정부의 강력한 해결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의거,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임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지속적 양자협의 제안 거부시, 중재위원회 회부와 더불어 국제중재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며, 한일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시 반드시 의제로 채택하고 나아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원초 무효 선언이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안 소장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속해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해 나가고 나눔의 집을 비롯한 민간단체는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장애인봉사 ‘아름다운 손길’ 창단

성북장애인복지관 7월 30일 발대식 가져


관장 현관 스님과 10여 명의 장애인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손길’ 봉사자들.

“나눔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7월 30일 장애인들이 모여 결성한 자원봉사동아리 ‘아름다운 손길’의 발대식을 가졌다.

‘아름다운 손길’은 성북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자원봉사 동아리다.

지난 6월 가칭 ‘장애인봉사동아리’로 창립을 준비한 ‘아름다운 손길’ 봉사자 10여 명은 무더위도 잊은 채 봉사단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동아리의 기틀을 잡아 왔다.

복지관은 “아름다운 손길은 동아리 이름을 정하고 단장을 선출해 회칙을 논의하는 것 까지 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단체”라며 “봉사자들이 동아리에 갖는 의미와 애정이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손길’의 조윤희 단장은 “동아리가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모든 성원이 3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름다운 손길은 9월까지 교육을 통해 전문자원봉사자로서의 소양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름다운 손길’만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지압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현관 스님은 “장애가 있다고 타인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10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아름다운 손길들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02)915-9200

이나은 기자

사찰서 물놀이하고 영화도 만들고 ‘Good!’

천태종복지재단, 지역아동위한 천태여름캠프 개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8명은 평창 대흥사에서 물놀이, 뮤직비디오제작, 발우공양, 108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다.

산사에서 즐기는 물놀이와 영화창작체험에 아이들이 흠뻑 젖었다.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은 8월 9~11일 평창 대흥사에서 ‘문화창작체험 2012 천태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캠프에는 전국 10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8명이 참가해 대흥사 경내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상화 교수(부산예술대)를 비롯한 전문 스텝이 참가해 아이들에게 뮤직비디오 제작을 지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천태종은 아이들이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발우공양과 108배 체험 등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흥사 주지 인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십년 후 이십년 후 나라를 이끌어갈 새싹이자 기둥이니만큼 더욱더 훌륭하게 자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기 쉬운 지역아동센터 빈곤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행사였다.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월도 스님은 “불교라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탈피해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찰을 개방하고, 아이들을 문화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영화창작프로그램을 도입한 점이 새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며 “천태종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02)873-3405 이나은 기자

행복한 결혼준비 되셨나요?

조계종복지재단, 미혼 남·녀 위한 결혼준비교실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실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8월 23·30일, 9월 6일 오후 7~9시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천년지애(千年之愛) 행복한 결혼준비교실’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 초청된 강숙정 박사(한겨레 상담센터 소장)는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남녀간 이해와 존중, 건전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방법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8월 23일에는 ‘일견종정(一見鍾情)-첫눈에 반하다’를 주제로 이성 간 서로에게 끌리는 상호심리적 역동에 대해 알아보고 성숙한 사랑을 위해 남녀간 해결해야할 심리적 과제를 알아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8월 30일에는 ‘동상이몽(同床異夢)-같은 공간 다른 생각’을 주제로 남녀의 성(性)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 부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성생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9월 6일에는 ‘천년지애(千年之愛)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부부간 건강한 마음소통의 방법을 익히고, 과거부터 전해오던 가족사의 무의식적 되물림 습관들을 교정하며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감정문제 해결방법을 익힐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율 급증 등 심각한 가족해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장애·비장애 뛰어넘어 하나됐어요”

철산복지관, 청소년 캠프 ‘알알이 품은 꿈’ 개최


래프팅 체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8월 8~10일 강원도 영월군 일대에서 장애·비장애청소년 40명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알알이 품은 꿈’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동체 활동과 미니올림픽 등을 통해 장애·비장애를 뛰어넘는 협동심을 길렀다. 이 외에도 △선암마을(한반도 지형) △탄광문화촌 △사진박물관 관람 및 동강래프팅 활동 등으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해 의미 있는 여름방학 추억을 남겼다. (02)2617-0410

이나은 기자

본·각·선·교·원

주말단기출가 ‘깨달음 징검다리’ 멘붕 힐링!

본각선교원은 복잡다단한 현대생활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멘붕힐링을 넘어 깨우치게 하려고 직장인들의 주말을 이용한 “깨달음 징검다리”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 개 강 : 2012년 9월 7일 / 9월 21일 시작 ◆ 강 의 : 매월 1, 3주 주말 오후 6시부터 일요일 9시경까지
◆ 내 용 : 불교입문, 참선(걷기명상 비파사나선과 불조선),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공부, 현대과학철학, 무한수학, 시각 선법회 등 유기적 학습
◆ 교수진 : 홍익대 김원수 교수, 한양대 임종록 교수, 경기대 고준환 교수, 선재선사 등
◆ 접 수 : 수시 선착순 접수 (수강료 10만원, 불경제공)

강 의 일 정

요일 및 시간		내 용	교 수
금	18시-19시	접수 및 상호교류인사	사무총장
	19시-20시	나는 누구인가? (고향 나그네)	본각 선교원장
	20시-21시	부처님의 일생 (불교입문)	〃
	21시-22시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미리쓰는 유언)	〃
토	9시-10시	현대과학 철학	임종록 교수
	10시-12시	비파사나선과 아함경	〃
	12시-14시	점심식사 및 운현궁 걷기명상, 맞절 108배	
	14시-17시	생활속의 금강경	김원수 교수
	17시-19시	초발심자 참구법과 불조선	고준환 교수
토	19시-20시	저녁식사, 대각사 산책	
	20시-22시	법화경과 보살도, 참선철야정진	고준환 교수
일	10시-12시	시각 선법회 동참	각선교원 선사 선재
	12시-14시	점심 및 운현궁 걷기명상, 맞절 108배	
	14시-16시	불교와 무한수학	임종록 교수
	16시-18시	불이문과 세계평화	본각 선교원장
	18시-19시	저녁식사, 파고다공원 걷기 명상	〃
	19시-21시	보살대중의 탄생(종합토론. 소감적기, 졸업)	〃

본각선교원 상설 석가대학원

우리는 중생불! 단박 깨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 뿐이고, 누구나 정진하기에 따라서 단박 깨칠 수 있다.

◆ 개강 : 9월 1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 강의내용 : 천문지리(풍수) | 김문웅 원장 | 수요일 오후 2시부터(2시간) | 금강경과 법화경 | 김원수 교수,고준환 교수 | 목요일 오후 5시부터(2시간)

* 강의는 원칙상 2개월 단위로 하며(입회비는 3만원, 불경제공), 수강료는 1개월 한 과목에 5만원 (특강은 별도)

본 각 선 교 원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206호 전화 02)762-4848 http://cafe.daum.net/BonGagAcademy (弘益人間 光化世界)

두타선원(頭陀禪院) 文化센터 수강생 모집

【수류도,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개강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임을 알아야 성품이 보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금번 두타선원 문화센터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간화선과 자연과 하나 되어 수류도(水流道)의 몸수련, 마음수행을 동시에 이루고 유식 30송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과 사경을 통해 혜안을 통투하고 한국화와 서각을 통하여 작품세계에 깊이 몰입하므로 견성을 체험하시어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과 시간표】

	오후 2시 ~ 4시	저녁 6시30분 ~ 9시30분
월	불교입문 교리 및 경전강의 동국대 박사과정수료 〈정화스님〉	수류도법 지도자 과정(스님들 포교에 도움) 몸수련, 마음수행, 몸과 마음은 하나 〈본선원장 법헌스님〉
화	간화선 생활수행 네가있어 내가 존재한다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유식 30송 불안, 걱정 제거법 수행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수	수류도법(水流道法)수련 몸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면 근육재생 및 호흡법 〈법헌스님〉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32체 〈법헌스님〉
목	서각 및 목공예. 기초-작품까지 대한민국 미술대전초대작가 〈대한명인심사위원 죽허 김정규〉	한국화, 문인화(사군자)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심사위원 송원 이연재〉
금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32체 〈법헌스님〉	수류도법(水流道法) 허상의 관념관습을 버려야 참마음을 알게된다 〈법헌스님〉

전화 02)747-4268. 010-4413-426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619호
* 종무직 봉사자 모집 (혜택 : 수강하고자하는 과목 모두 무료)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4,5번 출구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

선원장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눈뜬 삶이 보현보살의 삶"

〈전심법요〉는 임제종(臨濟宗)의 기초를 세운 황벽 희운 선사 어록이다. 배휴 거사(797~870)는 재가신자로 842년 종릉(鐘陵) 관찰사로 부임한 뒤 황벽 선사를 홍주(洪州) 용흥사로 모셔와 도를 물었고, 848년에도 완릉(宛陵) 관찰사로 일하며 황벽 선사를 개원사에 머물게 하고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 받은 가르침을 적어두었다가 857년에 간행한 책이 바로 〈전심법요〉다. 수불 스님이 8월 11일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 강연에 나섰다. 〈전심법요〉 중 '무심이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강연에서 스님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수불 스님은 …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7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했으며 사단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불교언론문화상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신문사 사장,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범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오늘은 〈전심법요〉 가운데 '무심이 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하다는 말은 흔히 마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없다고 하면 목석과 같아서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념무상 하는 입장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본래 무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무심일 뿐입니다. 따로 무심을 구할 필요 없이 완벽한 그대로의 입장을 일컬어, 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일체 마음이 없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없이 있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온 적이 본래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말로 하자니까 '가되 간 바 없이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 입장에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이 부처님의 참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공양이나 보시공양을 올리는 것을 예로 들어 봅시다. 사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공양을 제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안목을 열지 않고서는 대체 어디에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무심도인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반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 기대하는 바가 커지고 눈이 멀게 되어 늘 기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무심도인이라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안목이 열려야 무심도인이라는 말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안 되면 허망함을 좇아가는 어리석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보는 눈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연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눈 뜨면, 진리에 대해 쉽게 알아집니다.

〈전심법요〉 첫 머리에 나오듯이, '모든 부처님과 중생은 한마음일 뿐 거기에 어떤 다른 법도 없다.' 이게 중도입니다. 이런 말을 소화하려면, 직접 수행을 통해 안목을 열어야 합니다.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공양입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법당에 있는 유형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그 수준의 중생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참다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불법입니다. 우리는 꿈 깨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수행의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진여 그대로(如如)인 몸이 안으로는 목석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고, 주관 객관의 나뉨은 물론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또한 어떤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얻고 잃음도 없다. 후학들이 감히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空)에 떨어져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런 태도는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거기다가 널리 지견(知見)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쇠털처럼 많아도 정작 도를 깨친 이는 뿔과 같이 드문 것이다.'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세요
불전에 목적갖고 공양 올리면
눈이 멀게 되어 늘 기대게 됩니다"

안목 열어야 진정한 믿음 성취
밝은 눈 뜨려면 선지식 지남 받아야

순간 밝아졌으면, 해를 가리는 구름이 있다고 깨달은 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휴 거사는 좀 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당황스러운 입장에서 완벽하게 눈뜬 입장의 황벽스님께 그 까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밝은 눈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문수 · 보현보살은 따로 있지 않다

아예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것도 없지만, 배휴거사처럼 눈을 열었는데 아직 애매모호한 것이 남아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다가올 때는 아찔해져서 여유를 잃고 해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치만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벗어던진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이 의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이치(理)에, 보현보살은 행실(行)에 해당한다. 이치란 진공(眞空)으로서 걸림 없는 도리이고, 행실이란 형식을 벗어난 끝없는 실천을 말한다.'

문수 · 보현보살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어떤 분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문수보살이든 보현보살이든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타난다고 한들, 그것은 상에 불과합니다.

안목을 갖춘 입장의 실천이란 부처님 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보살의 눈을 떠야 비로소 보현보살의 행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입 벌려서 말하는 순간, 그것은 배워서 이해한 것을 이치를 빌려 말하는 소리에 불과할 뿐, 진정한 보현보살의 행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안목을 열어서 원만 구족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삶과 같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이는, 하루 종일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보현행원을 한다 하더라도, 상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라밀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관음보살은 자비를, 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유마는 깨끗한 이름(淨名)이란 뜻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성품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름은 모습(相)의 측면에서 한 말이다.'

사실은 모습도 없는데, 모습 없는 모습을 세상에 말하려다보니 이름을 빌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불법의 올바른 눈을 떠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분도 더러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마구니에 속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종류의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초심자를 믿어 들어오게 해서,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치를 시설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안목을 열어야 진정한 믿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실상을 모르고 혼자서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보다는,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거해 올바른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 깨치면, 문수 · 보현보살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말이나 형상에 속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벽스님이 배휴거사에게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참다운 실상에 눈뜨라고 간곡하게 일러주신 것이 〈전심법요〉입니다.

불교는 다양한 방편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간에 머물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향상일로의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 대승불교와 선(禪)이 세상에 출현하여 정법을 제시하고 시비분별을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하는 말들은 그때그때 설명하기 위해 모양을 그려낸 것일 뿐입니다. 그 까닭을 알면 밝은 눈이 열리고 매사에 걸림이 없게 됩니다. 배휴거사는 의문이 일어나 자꾸 묻고 있지만, 결국 선지식의 지남을 받아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이 스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둘째 · 넷째 주 토요일 오후에 간화선 법회를 열고 있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2. 8. 25(토) 오후 1시부터 ~ 8. 26(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2년 9월 4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삼국유사’ 주제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문화재청,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어령


김상현


이도흠


조현설


박노자


윤후명


이윤택


박찬경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다양한 설화는 역사인가 신화인가?

문화재청이 8월 31일과 9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개최하는 삼국유사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삼국유사〉 임신본 발간 500주년을 맞아 이에 대한 역사성과 신화성의 다각적인 해석이 시도된다.

1부 행사인 학술행사에서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첫 발제로 ‘삼국유사의 의미 체계와 해석의 역동성’ 발표를 통해 삼국유사의 역사적인 부분과 신화적인 부분을 나눠 사회문화 현상 등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제시한다.

이도흠 교수는 “삼국유사는 당시 사회를 비춘 반영상과 신화로 표현된 굴절상이 모두 나타난 문화유산”이라며 “문화, 사회, 역사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삼국유사, 신화와 역사의 어우러짐과 해석의 열림’을 주제로 첫날인 8월 31일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삼국유사의 세계 문화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역사적, 기호적 해석을 제안하는 학술행사가 열린다.

학술행사에서는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삼국유사의 의미 체계와 해석의 역동성’, 기무라 마코토 동경수도대 교수의 ‘삼국유사의 판본 연구에 대하여’,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의 ‘고대 및 중세 한반도인 이들이 본 인도: 가락국기를 중심으로’,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삼국유사 인용 자료의 검토: 고기(古記)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고운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경진 연세대학교 교수, 최재목 영남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삼국유사 인용 자료의 검토: 고기(古記)를 중심으로’를 발표할 예정인 김상현 교수는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역사서인 고기에 대한 조명을 통해 단군신화 등을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31일에는 ‘작품으로 만나는 삼국유사’를 주제로 김남수 평론가의 진행 하에 윤후명 소설가, 이윤택 연출가, 김명화 극작가 등 삼국유사를 통해 예술세계를 일군 작가들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둘째 날 9월 1일은 ‘신화적 상상력의 열림과 변형’을 주제로 동아시아 신화의 학문적 검토와 예술성에 대한 진단이 진행된다.

조현설 서울대 교수 등 4명이 발표를 하며, 이영준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최원오 광주교육대 교수, 이연승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국립극단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삼국유사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창작한 다섯 편의 연극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립극단 문대에 올릴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과 연극 공연은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고, 인문학과 예술적 상상력이 상호 교류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참여해 그 의미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마조의 스승은 무상” 주장 이어져

조계종 교수아사리 정운 스님, 선리연구 12집서 주장

입당구법승들이 문하에 유난히 많이 입문했던 마조 선사는 신라 구산선문의 원류로 칭송받는다. 마조 선사의 그 법맥이 신라 출신의 정중종(淨衆宗) 종주였던 무상(無相, 684~762) 선사에게서 이어졌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정운 스님은 최근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12집〉에 실린 ‘무상대사와 마조의 사법에 대한 재고 - 현실적 시공간 측면에서 접근’ 논문을 통해 무상 대사와 마조 선사가 사제지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운 스님은 “마조 스님이 사천성에서 출가 · 삭발한 시기와 무상 대사가 사천성에서 수행한 시기가 맞물린다”며 “함께 사천성에 머물렀던 점으로 보아 무상과 마조가 만났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개연성을 부여했다.

정운 스님은 무상 대사의 스승이자 마조의 삭발 스승인 처적 선사를 통해 끈이 이어져 있음에 주목했다.

정운 스님은 “무상 대사가 당나라에 갔을 때가 세속 나이로 44세”라며 “무상 대사와 마조 스님의 나이 차이가 25세 차이 나는 만큼 특별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 스님은 이어 “무상 대사와 마조 스님이 만났을 가능성은 장송산(長松山)에 전해지는 마 씨(馬)라는 인물의 설화가 마조 스님을 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이 예로 든 장송산 마 씨는 〈경덕전등록〉에 그 이름이 전해지며 현재도 장송산에는 마조동(馬祖洞)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 스님은 이어 “마조와 무상이 처적의 도량인 덕순사나 장송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며 “마조 스님이 사천성 여러 지역에서 수행하던 중 처적 스님이 입적하자, 무상을 만나 스승으로 섬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 스님은 “중국 8~9세기에는 선사들이 많았는데 신라 승려들이 굳이 마조계 제자들을 찾았던 것은 무상과 마조의 사법이 신라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결과로도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님은 “무상 대사에 관련된 기록이 최치원의 〈智證大師寂照塔碑〉에도 전하며 사굴산문 행적(行寂)은 무상 대사의 영당에 예를 올린 기록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운 스님 논문 중 무상과 마조의 시공간 비교표

년도	무상대사	마조선사	선종사
684년	신라 성덕왕의 셋째아들로 출생		
709년		사천성 시방현 출생	706년 대통 신수 열반
713년	신라 군남사 출가		713년 육조 혜능 열반
728년	44세 당나라로 들어감 현종을 만남 서안 선정사에 머뭄		
729년		20세, 사천성 시방현 나한사로 출가	
730년 무렵	46세까지 2년간 처적 문하에서 수행	22세 무렵 자주 처적에게서 낙발 유주(현 중경) 원율사에게서 구족계 수지	
732년 무렵	47~48세 천곡산에서 두타행 처적에게 법을 받음 다시 천곡산에서 수행	22~24세 사천성 익주 장송산과 호북성 형남 명월산에서 수행	732년 신회가 활대 대운사에서 북종을 비판, 공격함
734년		25세 호남성 남악형산 전법원에서 때달음 20대 후반을 호남성, 강서성 일대에서 수행	734년 당화상인 처적 열반
740년대 초반	740년/ 56세 사천성 성도 정중사에서 개법	742년 34세 복건성 건양현 성적사에서 개법	
740년대 후반~750년대	정중사, 보리사, 영국사 등 사천성 일대에서 행화를 펼침	홍주(현 남창) 개원사, 의황 석공사, 공주 공공산 보화사, 임천 서리산 등 강서성 일대에서 행화를 펼침	744년 남악 회양 열반 755~763년 안사의 난 774년 보당 무주 열반 780년 규봉 종밀 탄생
756년 무렵	72세 무렵, 현종의 권청으로 대자라로 옮겨감		
762년	세수 79세로 성도 정중사에서 열반		
788년		세수 80세로 강서성 정안 보봉사에서 열반	790년 석두 희천 열반

전통사찰 7곳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국가브랜드위, 통도사서 9월 22일 국제학술대회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등 전통사찰 7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8월 10일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열고 2015년까지 전통사찰 7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 ·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 문화재청 관계자 외 법주사 등 7곳 사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첫 행사로는 9월 22일 통도사에서 ‘사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사찰과 세계유산’ 기조강연을 비롯해 국내 학자들의 한국불교전통 및 사찰문화, 사찰건축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등과 같은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중국 · 일본 · 동남아 불교유산 소개와 함께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묘소,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 독립운동 유공자 묘소 7개소 등록예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열반 68주년을 맞은 올해 스님의 묘소가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3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중에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서훈을 받은 분으로 개별묘소에 안장되어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묘소 등 7개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이 등록예고 한 항일독립운동 유공자 묘소는 만해 한용운 스님(중랑구 망우동)을 비롯해 이준 묘소(강북구 수유동), 손병희 묘소(강북구 우이동), 이시영 묘소(강북구 수유동), 안창호 묘소(강남구 신사동), 김창숙 묘소(강북구 수유동), 신익회 묘소(강북구 수유동) 등 7개소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묘소 7개소 모두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 · 교육적 가치가 큰 곳”이라며 문화재 등록 이유를 밝혔다.

항일독립운동 유공자 묘소 문화재 등록은 앞으로 30일 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상반기 ‘불교박사’ 7명 배출

불교 주제 석사는 14명

올 상반기 동국대에서 7명의 새로운 ‘불교박사’가 탄생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은 2011년도 가을 학위수여 목록을 발표했다. 이중 불교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김경래, 스리랑카 테라와다의 정통성 확립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Vamsa(연대기)와 Atthasalini(수승의주)를 중심으로(불교학과) △윤미경, 구마라집 법신관 연구(불교학과) △권선향, 송대 이학의 체용론에 나타난 불교의 영향(불교학과) △여현 스님, 마조도일에 관한 연구-선교론 중심으로(선학과) △정영희, 초의와 리큐(利休)의 선다문화 비교연구(선학과) △정성권,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미술사학과) 등 7편이다.

또 불교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은 △김명연(학수), 유마경에 나타난 보살사상연구(불교학과) △안은영(제홍), 유식에서의 식전변설 연구-‘유식삼십송’ 제18송을 중심으로(불교학과) △강상화(보하), 대승기신론 미오의 세계 연구(불교학과) △임윤경(석도), 보현행원품소에 나타난 보현행원 연구(불교학과) △장성우, 원측 유식의 불성론 연구(불교학과) △계미향, 고구려 원표의 ‘화엄경’ 나래(拿來) 고찰-생애와 구법을 중심으로(불교학과) △김주후, 원효의 훈습론 분석-상호작용의 과정과 의미를 중심으로(불교학과) △박만순, 정혜결사의 현대적 고찰(불교학과) △함형은(우문), 용성선사의 ‘수심론’ 연구(선학과) △현승해(무연), ‘위두라 현자 본생담(Vidhurapandita-jataka)’을 통해 본 ‘토끼전’의 불교적 이미지 연구(인도철학과) △이재연, 가야산 지역 신라석탑 연구(미술사학과) △신희경, 기림사 대적광전 삼신삼세불회도 연구(미술학과) △이주영, 조선후반기 감로왕도 연희장면 연구(미술학과) △홍보라, 한국 단청문양의 회화적 변용 연구(미술학과) 등 14편이다.

노덕현 기자



스님들 장터 세계인 품 속으로

제3회 '팔공산 승시' 축제
10월 12일부터 4일간


2011년 열린 제2회 팔공산 승시대회에서 떡을 메치며 스님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신라 이후부터 스님들이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던 산중장터로 시작된 승시. 조선 초기 마지막 승시로 열린 부인사 승시의 맥을 잇는 '팔공산 승시'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내 씨네80 자동차극장에서 제3회 대회를 연다.

전통문화유산 발굴 및 지역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와 동화사(주지 성문)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팔공산 승시는 '팔공산의 역사문화 세계인의 품속으로' 슬로건 하에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첫날인 12일에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만남', 13일에는 '젊음과 함께하는 불교', 14일과 15일에는 '불교문화는 우리의 자산이다'를 주제로 각 테마별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지난 1,2회 대회와 달리 대구지역에서 특화된 불교음악과 전통음악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동화사 법고 공연을 비롯해 찬불가경연대회, 사찰의 소리체험, 풍물 공연 등이 진행되며 전통사찰음식시연, 해외불교 문화체험, 천연염색, 판각 및 탁본체험, 단청 및 탱화그리기, 선수행 프로그램, 불교기획전시 등이 이어진다.

특히 사찰에서 필요한 물품을 스님들이 직접 판매하는 산중전통장터 승시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고승들의 기증품 경매, 자비평화의 등 밝히기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인 품 속으로' 슬로건
현대문화, 젊음, 문화유산 테마
해외불교 문화체험 코너 눈길
불우이웃 위한 기증품 경매 진행

동화사 기획국장 효신 스님은 "승시는 맥이 끊겼던 불교전통이자 한국전통으로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며 "제93회 전국체전을 기해 대구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동화사는 팔공산 승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7월 15일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능도 스님 등 200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승시 사무실을 개소했다.

팔공산 승시봉행위원회는 8월 30일까지 승시 참가자 및 단체를 모집한다. 사전참가신청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문 스님은 개소식에서 "3회를 맞이한 승시축제가 대구경북지역의 축제를 넘어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053)986-9575

손문철 대구지사장

茶 문화, 승·속이 한데 어울려 즐긴다

부산차문화진흥원, 제7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 열어

부산지역에서 생활 속 차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차축제가 열린다. 부산차문화진흥원(원장 이경순)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부산문화회관 일대에서 제7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를 개최한다.

'생활 속의 차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차어울림문화제에서는 차 생활이 특수계층의 문화를 넘어 생활 속 문화임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8월 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선고다인을 위한 추모다례재를 시작으로 '동양유물전'과 '대만차' '일본차' '하동차' 코너 등이 선보인다. 여기에서는 '한일 양국의 차실꾸미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월 1일에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차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세미나를 비롯해 차와 기도, 차행법 연구모임 숙우회의 인

'생활 속의 차 문화' 주제로
8월 31일~9월 2일까지 4일간
한중일 다관·다도 시연 등 다채

드라망 공연이 마련돼 개신교와 불교의 행다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차인들과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에는 박근형 전남대 교수의 '찻잎 및 차의 성분 그리고 차의 종유와 효능' 강연회가 진행되며 차시 백일장을 통해 입상한 작품들을 그림과 만날 수 있는 '차시 시화전'도 개최된다.

그 외 다양한 행사들로 '향로전' '동양차문화 최다·최초 차구 유물전시회' '초대전 황산요' '일본 만복사, 대덕사 조명' '만병도' '통과의례상차림' '차화' '천연염색' 등이 진행되며 허경혜 작품전, 심무용 작품전 등 차인들의 작품전도 열릴 예정이다.

이경순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조직위원장은 "부산은 차 마시는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라며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차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809-1551

이재진 부산지사장

경산 안흥사 군장병 위문법회

경산 안흥사(주지 대웅)는 8월 11일 '제2 야전 수송교육단' 소속 군장병 20여 명을 사찰로 초청해 〈금강경〉 독경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안흥사 주지 대웅 스님은 위문법회에 이어 군장병들과 영양식 공양을 함께 했다. 군 법사 출신인 대웅 스님은 수송교육단 내 법당 '정심사'에서 매달 법회를 봉행하며 군복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웅 스님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불자 장병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울산 안민사, 한국 최소형 사찰로 인증

울산 안민사가 한국 최소 사찰로 인증받았다. 울산 안민사를 비롯한 울산 선암호수공원의 종교시설 3곳이 8월 15일 한국 초미니 종교시설로 한국기록원 인증을 획득했다.

안민사는 높이 1.8m, 너비 1.2m, 길이 3m인 국내 최소형 사찰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울산 남구청은 2011년 9월 안민사 건립 이후 신도들의 행렬이 있자 호수교회, 성베드로기도방 등 이웃종교 시설도 이어 건립했다.

남구청은 평일 평균 1500명, 주말 평균 2만명의 주민이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소형 사찰인 울산 안민사

김두겸 남구청장은 "세계 기네스 등재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절 마당 정갈함을 지키는 것도 전통

절 마당 부처님 만나는 준비공간
마음 정돈에 쇄석 바닥 등 장애

이른 아침 비질을 하여 곱게 정리되어 있는 절 마당의 정갈함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티끌 하나 없이 쓸어낸 마당은 청아한 스님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사찰에서는 평정고산수정원을 구성하는 왕모래를 갈퀴로 긁어 일정 간격의 파도문양을 만드는 것을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갈퀴로 정리하여 단정해진 문양을 바라보면서 일본인들은 파도가 찰랑거리는 내해의 경관을 떠올린다고 한다. 교토의 료안지(용안사) 방장 툇마루에 앉아서 지긋이 정원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모습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자연을 관조하는 방식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사찰의 고산수정원을 보면 왠지 인공적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성이 엿보인다. 새벽공기를 조심스럽게 열면서 마당을 비질하는 우리 스님들이 만들어내는 천연성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마당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되어왔다. 그것은 마당이 탑이 세워지는 중심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 불전 앞의 비워진 공간은 붓다를 만나기 위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준비공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성과 비질하여 만들어진 정갈함은 서로 소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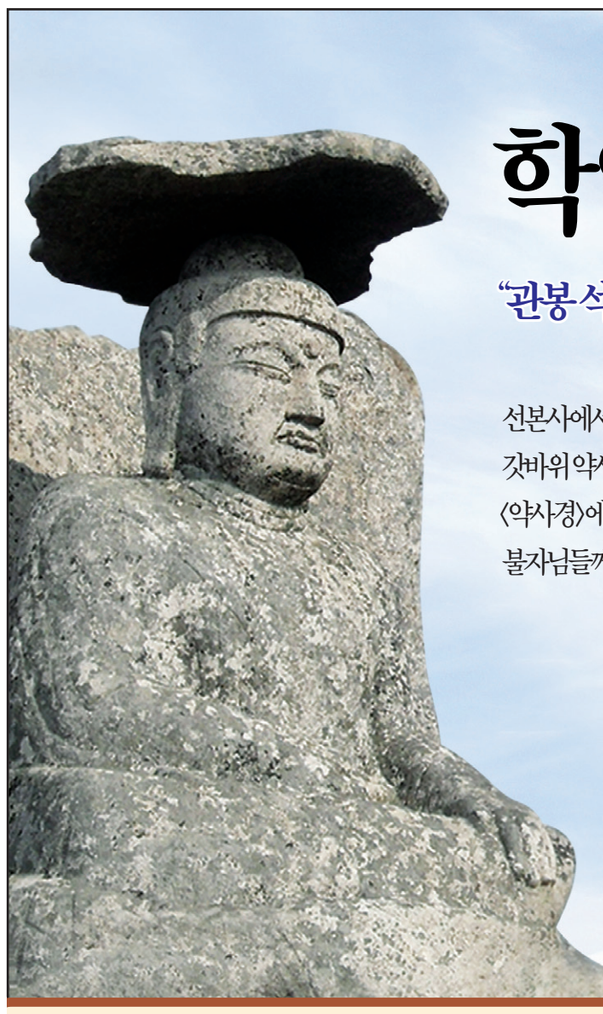
요즘 들어 절 마당에서 맨땅의 상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졌다.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또 마당이 패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쇄석(잘게 부순 돌)이나 석분을 깔기도 하고 심지어는 빨간 벽돌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쇄석을 깔아 놓은 마당은 단아하고 정갈한 이미지보다는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더구나 걸을 때 나는 좋지 않은 소리는 삼보에 귀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편한 것을 찾게 되면 우리가 지녀왔던 멋을 잃게 된다. 지난날 절 마당을 비질하면서 가졌던 아름다운 상상력을 편하고 쉽게 마당을 관리하려고 깔아놓은 쇄석 때문에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 절 마당의 정갈함을 지키는 것도 전통의 계승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쇄석을 깔은 뒤 관리를 하지 않아 군데군데 패이고 빗물이 고인 모습은 신도들의 발길마저 돌리게한다. 사진은 경상북도 ㅂ사찰



학업성취(수능)100일 기도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 질것입니다"

선본사에서는 12가지 큰자비를 항상 행하시어 만중생을 두루 구제하여 해탈케 하시는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에서 학업성취(수능)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약사경〉에 이르기를 12가지대원 중 세번째가 "중생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것"이라 하였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학업성취(수능)100일 기도에 무루 동참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입 재** 2556(2012)년 8월 1일 (음 6월 14일) 오전 10시
- **회 향** 2556(2012)년 11월 8일 (음 9월 25일) 오전 10시
- **동참금** 10만원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 》
- **일 시** 매주 토요일 밤 10시~3시
- **장 소**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우천시 유리광전)
- **집 전** 1, 3, 4주 : 선본사 대중스님, 매월 둘째주 : 성마스님

※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는 약사여래불 인장을 찍어 드립니다.

《 백중 영가천도 기도 》
- **장 소** 선본사 극락전, 갓바위 유리광전
- **시 간** 오전 10시
- **동참금** 영가 1위 1만원, 가족축원 5만원
- **설판동참금** 1백만원

《 범종 불사 》
- **1인 1구좌** 30만원
- **설판 시주**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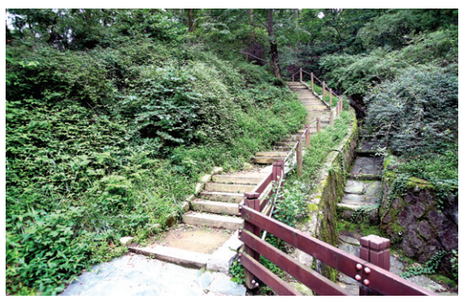
※설판 시주자는 범종 외부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기도동참 계좌번호 대구은행 179-04-060280-00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불사동참 계좌번호 농 협 351-0399-5622-1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문의 053) **851-1869 853-9877 851-1868**

길의 시작과 끝에 임금이 어버이로서 기댄 절이…

⑧ 봉산 숲길
그리고 수국사(守國寺)





수국사 대웅전과 수각 사이에 조성된 초전법륜상. 부처님이 성도 후 5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고 계시다.

봉산.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 위치한 해발 207m의 산이다. 능선을 따라 걷는 약 6.6km의 숲길은 서울시가 지정한 명품숲길 중의 하나다. 고도가 그리 높지 않지만 북한산의 지맥이 흐르는 봉산의 숲길엔 소나무와 잣나무를 비롯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득하다. 코스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시작해서 수국사를 거쳐 구산역까지 걷는 방법과 역으로 걷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길의 시작과 끝에 황금사찰이라 불리는 수국사가 있다.

'그리 높지 않은 산' 은 없었다. 바라보는 산과 올라야 하는 산은 달랐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출발했다. 5번 출구로 나와 5분 정도 걸으면 변전소가 나온다. 변전소 오른쪽 골목으로 걸으면 숲길과 만난다. 능선으로 오르는 길은 두 갈래다. 왼쪽은 조금 급하고 오른쪽은 완만하다. 봉산숲길은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이다.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산새들의 지저귐이 다가왔다. 산 정상에 오르면 길 위에서 흘린 땀의 덕택이 새삼스러워진다. 산 아래로 보이는 풍경이 장관이다. 도심 속에서 보는 도심의 풍경과 백련산, 인왕산 등 인근의 크고 작은 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능선의 끝에서 수국사 쪽으로 내려간다. 얼굴이 조막만 한 해바라기들이 해를 향해 필사적으로 서있고, 어쩌다가 그 사이에 선 밤나무 엔 푸른 밤들이 걸렸다. 꽃의 시절은 짧고 잎의 시절은 길다고 했던가. 누구의 시절이 길었든 이제 숲은 결실의 시절로 가고 있었다. 길의 경사가 편안해질 때쯤 숲 사이로 황금빛 전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숲과 절 사이에서 매미들이 울었다. 숲길을 나오자 수안사(守眼舍)라고 쓴 약수터가 나왔다. 약수로 마른 목을 적시고 나면 수국사가 제대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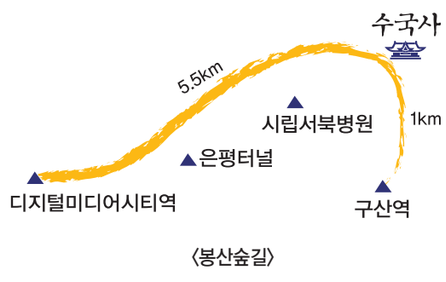
"비구들이여, 여기에 성스러운 고제(苦諦)가 있다. 태어남도 괴로움, 늙음도 괴로움, 병듦도 괴로움, 죽음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집제(集諦)가 있다. 이곳저곳에 집착하는 갈애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멸제(滅諦)가 있다. 갈애에서 벗어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도제(道諦)가 있다. 곧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을 말하는 것이니,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 부처님의 첫 설법이 들려온다. 약수터를 지나면 부처님과 5비구를 만난다. 대웅전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초전법륜상이 모셔져 있다.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아득한 그 시절을 보는 듯하다. 2500년 전 부처님 첫 설법을 듣고 있으면 황금빛의 수국사 대웅전이 보인다.

세조가 부모의 마음으로 지은 절
1992년 개금불사해 '황금사찰' 로 불려

수국사는 1459년 조선조 세조 5년에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의경이 묻힌 경릉 동쪽에 정인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세자로 책봉된 의경세자는 왕위에 오르기 전 스무 살에 죽는다. 세조가 죽고 왕위에 오른 둘째 아들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3개월 만에 죽는다.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성종이 왕위를 이었다. 아들이 왕이 되자 의경세자는 덕종으로 추존된다. 지아비가 덕종으로 추존되자 인수대비는 창건 때 급하게 지었던 정인사를 다시 짓는다. 인수대비는 원래 자신이 살던 집에 새로운 원찰을 지으려고 했으나 두 아들의 어미인 대왕대비 윤씨는 생각이 달랐다. 두 아들이 함께 묻힌 곳 가까이에 원찰을 두고 싶었다. 인수대비가 윤씨의 뜻을 받들어 의경세자를 위해 지었던 정인사를 중창하기로 한다. 정인사는 덕종(의경세자)과 예종 두 임금의 원찰이 된다. 정인사는 억불의 시절 속에서도 왕실의 원찰이라는 이유로 위상을 유지해 온다. 그 후 연산군 10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았다가 1900년(광무 4) 설준 스님이 현재의 갈현동으로 옮겨 지었다. 하지만 정인사가 언제부터 수국사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왕위에 오른 세조. 그는 인간적인 번뇌로 힘겨웠다. 그런 그에게 자식의 죽음은 천하를 가진 임금이었기에 더욱 견디기 힘든 절망이었을 것이다. 임금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된 한 나라의 임금이 마지막으로 기댄 것은 부처님이었다. 유교의 궁궐에 사는 임금이 불교에 기대 살았던 것이다. 자식의 죽음을 끝내 땅에 묻지 못한 아비는 먼저 간 아들을 위해 절을 짓는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던 어미 역시 아들의 죽음을 절에 묻는다. 수국사는 그렇게 지어진 절이다. 날이 저문다. 태양과 마주선 수국사의 대웅전이 찬란하게 빛난다. 수국사는 1992년 대웅전에 개금불사를 했다. 법당 전체가 황금색이다. 황금은 나쁜 기운을 막고 불변을 상징한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은 넓은 의미에서 부처님의 법신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황금법당의 찬란한 빛은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빛이다. 수국사는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식을 둔 어버이로서, 슬픔을 간직한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기댄 곳이다. 수국사의 하루는 늘 금빛으로 찬란하다. 찬란한 수국사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봉산숲길〉



황금빛으로 늘 찬란한 수국사의 하루가 저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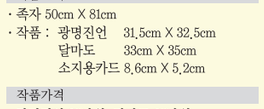
목판본 달마도와 광명진언

[족자]



광명진언(1) 광명진언(2) 달마도(3) 달마도(4)

[소지용카드]



작품크기
· 족자 50cm X 81cm
· 작품 : 광명진언 31.5cm X 32.5cm
달마도 33cm X 35cm
소지용카드 8.6cm X 5.2cm

작품가격
· 광명진언 25만원, 달마도 35만원
· 재료 : 한지위에 경명주사, 먹물, 금니
· 책자 : 광명진언 설명서 20페이지, 소지용 달마도 광명진언 구매자에 한하여 무료

작가약력
·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이수자
· 한국미술협회회원
· 현)청구목판문화연구소 주재
· 각 유관단체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 참조 : 모두 수작업이라 위 이미지 작품과 색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목판본 경명주사 광명진언(光明眞言)

「광명진언」은 '비로자나부처님' 의 덕상과 공덕을 나타내고 있는 신비하고 성스러운 여의주진언(眞言)이며, 「불공견색비로자나불대관정광명진언경」에 말하되,

⦿ 광명진언을 외우면

⦿ 일체 악귀와 악령이 소멸하여 맹수와 독사가 범치 못하고
⦿ 벼락불이 달아나고 살괴가 침노치 못하며
⦿ 삼세업장이 소멸되고 칠대선망과 누대 족친이 리고 득락하며
⦿ 악마가 해를 끼치지 못하고 백천재앙이 이르지 못하며
⦿ 일만 원한이 다 풀리고 천만소원이 다 이루어 여의 광명의 본색을 낱낱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혜를 얻고져 하는 자, 무병장수를 원하는 자, 복락을 구하는 자, 망자의 천도를 위하는 자, 혼인을 하게 될시, 자손 얻기를 원할시, 가옥을 지을 때, 이사를 할 시에도 원행을 할시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상업이 번창하기를 바랄 때, 박복하여 수심걱정이 많은 사람이 광명진언을 늘 외우면 모든 고난을 다 해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론에 가로되 만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고져 하는 자는 이 광명진언을 날마다 조석으로 비로자나여래불을 지극히 생각하며 이 진언을 백팔편식 독송하면 지옥 가운데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임종시에도 마음이 산란치 아니하고 그 광명진언의 위신력으로 시방의 제불보살이 그 영혼을 영접하여 천상에 왕생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기회에 각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인 「광명진언」을 한점씩 모시어 무수한 공덕을 성취하고 업장 소멸하여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세요.

팔정도 목판화 경명주사 달마도

팔정도(八正道)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이 팔정도는 중생을 미혹 세계인 이곳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으로 건네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선종의 초조이신 보리달마 조사의 그림을 직접 그리고 오래된 밤나무에 새겨서 경명주사로 찍은 목판화 달마도를 집안에 聖人(성인) 한분을 모시는 마음으로 가정에 모시고 9년 면벽하는 자세로 기도하시어 바라는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구입문의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2동 740-3번지 감로사 묘각합장 / 전화 : 053) 425-9463 / 휴대폰 : 011-806-3013
입금계좌 : 예금주 [감로사] 농협 301-0111-7547-71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동의보향 무료 향기 체험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 !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전화주시면 바로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택배비용 본사부담)

동의보향 덤 증정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시 수량별 추가 덤 증정
(전제품 선물용 쇼핑백 포함)



동의보향 복주머니
(12x19cm, 100g)



동의보향은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동의보향은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공간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천연향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적 국제개발협력과 지원 ODA

조건없는 '비구속성 원조' 늘리자



한국국제협력기구(KOICA)가 진행한 라오스 원조 모습. 생태적 국가협력을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비구속성 원조'가 확대돼야 한다.

국제협력을 위한 행동규범 (Code of Conduct)

1994년 르완다내전 당시 전세계 많은 NGO들의 다양한 형태로 현지에 파견돼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이때 NGO의 잘못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적십자, 적신월사 및 수백개 국제개발NGO들이 중심이 되어 NGO의 10가지 행동규범(Code of Conduct)를 만들어 서명했다. 이것은 행동지침이기도 하면서 활동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후 모든 활동이전에 국제기구들간의 행동방침이 만들어지는 전례가 되었다. 그리고 한편 지원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지원의 원칙을 명기하는 행동규범을 작성되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도주의적 의무(도덕적 명령)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
2. 지원을 함에 있어, 수혜자의 인종, 신념, 종교, 국적을 불문하며 어떤 종류의 불리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지원의 우선순위는 오직 필요만을 근거로 정한다.

국제 NGO 10가지 행동규범 제정
한국 NGO 90%는 기독교 단체
'선교활동' 감춰진 주 목적

3. 지원은 특정한 정치, 종교적 입장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4. 우리는 정부의 대외정책의 도구로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우리는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6. 우리는 지역적 지원능력에 기반을 둔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7. 프로그램 수혜자를 구호지원을 관리하는 일에 관여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8. 구호지원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미래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우리는 지원수혜자와 자원기부자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0. 우리는 정보, 공고, 홍보활동에 있어, 재난의 피해자들을 희망이 없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엄성을 갖는 인간존재로서 인정해야 한다.

피해를 끼치지 말라 (Do No Harm)

가난한 나라의 개발구호를 하기 위해서는 위 10가지 지침에 의거해야 한다. 물론 이 10가지는 최소한의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인도주의적 의무가 첫 번째라는 말은 과거 적십자 정신으로 알려진 것으로 전쟁이 날 때, 적이라고 할지라도 굶거나 다치면 식량을 줘야하고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란 오로지 사람만 보는 것이다. 그를 둘러싼 국가, 정치, 종교, 이념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관건이었다. 우리나라 국제 NGO단체들의 90%는 기독교단체고 특히 이중에 반이상의 공식목표(Offical Aims)는 '인도적 지원'이지만 감춰진 목표 (Hiden Aims)는 '선교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2007년 7월 19일 분당 샘물교회 교인이 중심이 돼 20여명이 피랍된 사건처럼, 한국 선교사는 세계적으로 2만명을 넘기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 대부분 NGO를 외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보면 매년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이로 인해 중동지역에서는 한국인을 미국정부와 동일시해 테러 대상이 되게 하는 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를 확대시키기 위해 개발협력활동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세 번째 행동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하나 주면서 종교적 신념을 바꾸라는 비열한 행위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다. 그 경우처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사실 안가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도움은 되지 못할 지언정 '피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고 강조한다.

도와준다고 다 도움 되진 않아

실제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의 많은 협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과연 정당한 지원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당장의 경제적인 도움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산업사회의 서구문화를 이식하게 만들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급 소비시장을 형성하게 만들고, 현지 물가수준과 집세를 높여 결국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정부기구든 비정부기구든 수원국가에서는 오지에 나와 있는 직원이나 활동가들의 높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위화감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부기구든, 비정부기구든 여기에 오지 말고 그냥 돈으로 지원하라고 한다.

비행기 티켓값이나 그들 집세와 월급만 절약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쟁이나 재난을 당한 가난한 나라의 경우 영어를 할 줄 알거나 교육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국제기구나 외국단체나 국제NGO에서 일을 하게 되어, 정작 혼란스러운 국가 정책을 제대로 만들 엘리트들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원하고 돕는 활동을 하는 NGO활동가라도 그 국가에 발을 딛는 순간 본의 아니게 영향을 주게 된다. 가난한이들로 하여금 잘사는 자신을 선망하게 만들고, 자신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며 구걸 하게 만든다. 종교적이며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지인들에겐 외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오만불손한 생활에 대해 적의를 품기도 한다. 한국의 개발 NGO들은 대부분 포교나 선교가 주된 목적이 되지 않는다.

종교와 연관된다면 포교를 염두해 둔다기 보다는 이미 불교화된 국가에 대한 우호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종교적 포교를 고려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

국가 해외원조와 ODA(공적개발원조)

현재 2010년 ODA규모는 8억1천 600만달러로 ODA/GNI규모로 볼 때 0.10%로 늘어났지만 국제적 권고치인 0.7%에는 1/7정도에 이를 뿐이다. 그동안 한국은 GNI 세계 13위(2012년 현재는 23위) 경제력에 걸찾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12년에는 0.15%, 2015년까지는 약 3배에 해당되는 0.25%를 증액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2009년 11월 25일 개발원조위원회(Da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에 가입이 결정되어 2010년 1월1일부로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를 위해 DAC의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을 위해 대책에 부심해왔다. DAC규범은 강제수단은 없지만 다양한 정책대화와 동료평가(Peer Review)등 절차상 의무를 통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원조방식은 만은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원조는 유상원조(양허성 차관 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무상원조(증여)로 나뉜다. 우리나라 유상원조는 현재 수출입은행이, 무상원조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이 맡아서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집행 기구가 나뉘어져 있어 서로 통합적

해외 원조 계층 위화감 조성 논란
한국은 경제력 대비 국제적 역할 못해
지원국 개발방식 이식 '비생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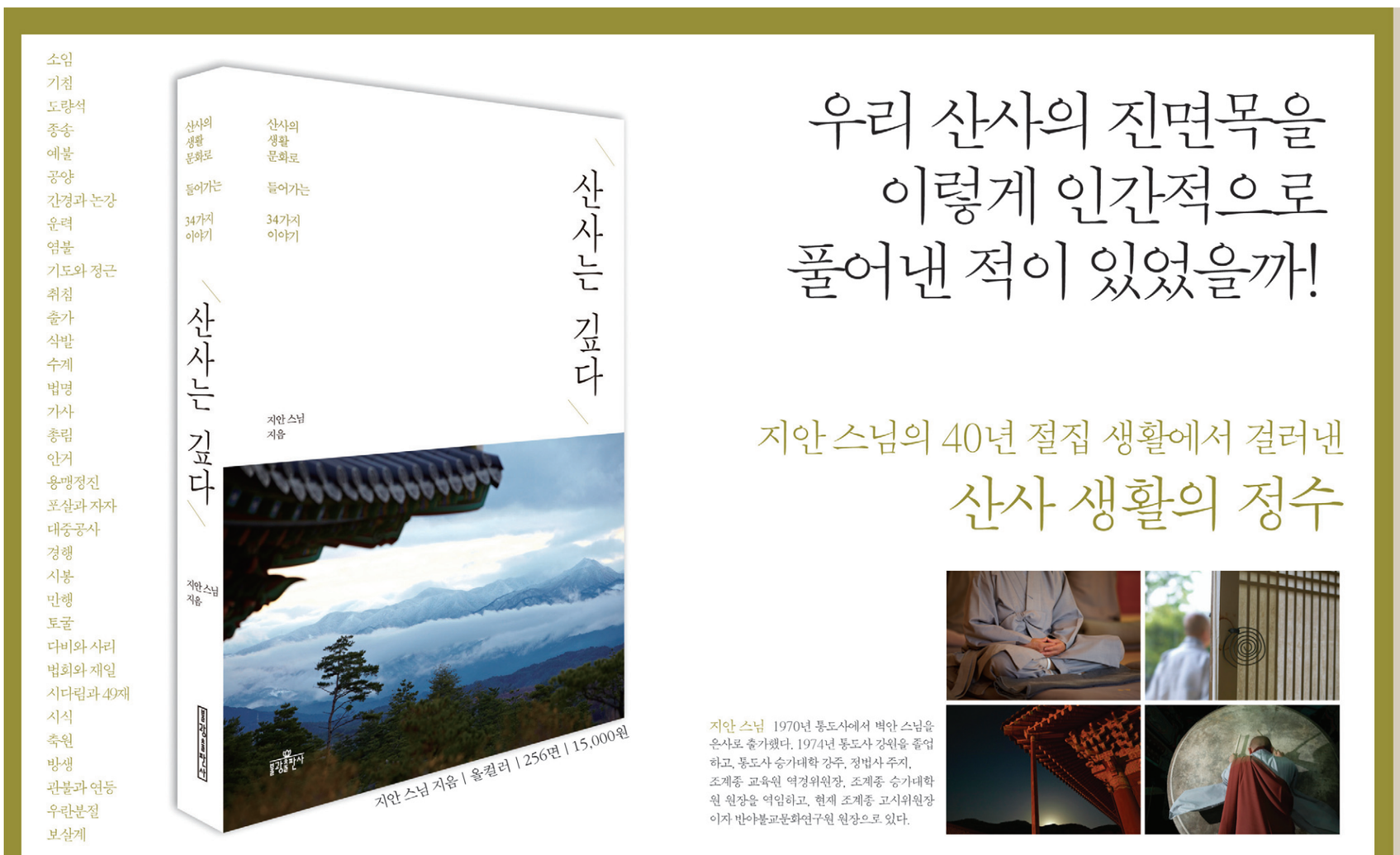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유상원조의 비율 28. 8%로 다른 OECD국가중 아주 높다는 점이다. 또 구속성원조 (Tied Aid)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구속성원조란 '조건이 붙는 원조'이다. 즉 자국의 물건, 자국의 인력과 기술을 사용하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설계를 하여 기술자가 파견되고, 자재고 한국에서 운반하여 건물을 지어주는데 현지 국가는 일용잡부나 약간의 기술자들만 고용할 뿐이다. 이렇게해서 지원했다는 원조액 상당수가 다시 한국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게 만들고 이후 지속적 경제이득을 도모하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비구속성원조 (Untied Aid)를 늘려야 하는데, 2008년 OECD의 임원국인 DAC평균 양자간 원조중에 비구속성원조의 평균비율은 91.9%인데 반해 우리는 24.7%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입찰을 삼성, LG, 현대, 대우가 모두 선점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원하는 국가의 철학과 방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원하는 자기국가의 개발방식을 가난한 나라에 이식하려고 한다. 지속불가능한 개발방식 선진국을 추종하는 개발방식을 이전하려한다. 결코 생태적이지 않으며 자원소비적 경제성장을 이식하는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우리 산사의 진면목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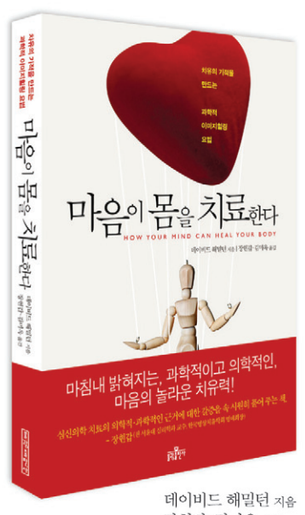
지안 스님의 40년 절집 생활에서 걸러낸
산사 생활의 정수

지안 스님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정법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HOW YOUR MIND CAN HEAL YOUR BODY

치유의 기적을 만드는
과학적 이미지힐링 요법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지음
장현갑·김미옥 옮김
372면 | 17,000원

놀라운 치유의 기적,
이제 당신도 느껴 보라!

심신의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책은 이미지힐링과 믿음, 긍정적 사고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다. 저자는 혁명적인 '양자장 치유법'을 언급하면서 상상력과 사고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방어 기제와 치유 시스템을 강화시켜 각종 질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제시한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부처님, 가섭의 염화미소 보고 미묘법문 부촉

③ 두타제일 마하가섭

〈중〉두타행



거조암 가섭존자 나한상



그림 · 김홍인

부처님 당시 교단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 이면에 불법을 빙자한 외도를 비롯해 나태한 수행자들로 인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섭 존자는 수행자로서 교단의 모범이 됐다. 부처님은 가섭 존자의 두타행을 비롯한 수행을 크게 찬탄하며 정법을 그에게 전했다.

두타행에는 차별이 없다

다자탑에서 부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은 가섭 존자는 죽림정사에서 우바리 존자를 만나 계율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두타행을 수행할 장소를 물색했다.

두타행은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무소유정신으로 심신을 수련하는 불교 수행이다.

〈잡아함경〉 권41에서는 두타행을 헐뜯는 자는 나를 헐뜯는 것과 다름없으며, 두타행을 칭찬하는 자는 나를 칭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전해진다. 당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두타행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가섭 존자는 칠엽굴에 은둔한 채 수행정진했다. 가섭 존자가 탁발하기 위해 왕사성으로 나갈 때의 일이었다.

가섭은 가난한 집을 골라다녔다. 육바라밀 중 보시의 공덕은 무량한 것이다. 가섭은 걸식함에 있어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을 가리지 않는다는 계율을 알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 구제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가섭은 재가불자로 유명한 유마힐과 마주쳤다.

"가섭님, 부자를 버리고 굳이 가난한 사람에게 탁발하는 것은 그 자비심을 널리 펴는 일이 못되는 것이라 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탁발은 평등한 부처님 법에 머물러 차례대로 행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마을에 들어갈 때는 빈 마을이라 생각하며 들어가고, 형상을 보더라도 장님같이 보며, 냄새는 바람같이 느끼고, 맛은 분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찌 가난한자와 부유한자를 구분할 것입니까?"

가섭 존자는 유마힐 거사와의 대화를 통해 보시와 자비의 공덕은 계층의 구별이 없음을 깨달았다. 가섭 존자는 분별심을 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분소의를 받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수행자로서 새로운 결심을 했다.

연꽃 한 송이와 가섭의 미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을 펼치실 때였다. 영산에서 범왕(梵王)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쳤다. 그때였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연꽃을 들어보였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부처님의 행동에 모든 대중은 영문을 모를 뿐이었다.

그 것을 본 가섭 존자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때의 일을 염화미소(拈花微笑)라 한다. 부처님께서 설하고자 한 뜻을 가섭 만이 짐작한 까닭이었다.

그 미소를 본 부처님은 가섭 존자를 비롯한 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서 전해지는 내용이다.

"나는 대자비로 중생제도 하는데 가섭도 역시 그와같다"

가난한 집 탁발… 유마힐 만나 반성
타락한 사원의 사문 승적 박탈
교단에 수행의 새바람 일으켜

"나는 때가 되면 보이려고 깊이 간직한 법이 있다. 실상은 상이 없음이 진실이다. 이 미묘한 법문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여 전하기 어려운 경지이기에 따로 전하며 이를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에게 마음을 전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아함경〉 '중본경' '대가섭품'에서의 일화다.

가섭 존자가 어느 날 사위국의 고요한 숲 속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길게 자란 수염과 머리, 헌옷을 입은 채 기원정사에서 열린 부처님 법석을 찾았다. 사람들이 말은 안했지만 가섭 존자가 오랫동안 수행해 남루한 모습을 보고 비웃고 깔보는 마음이 들었다.

이때 다자탑 앞에 좌정하고 있던 부처님은 무리 맨 뒤쪽에 있던 가섭 존자를 불러 자신의 자리 절반을 내어주며 앉게 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께 말했다.

"저는 부처님 무리 중 끝의 제자인데 저에게 자리를 나눠 주시니, 감히 뜻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중들은 모두 생각했다.

'가섭 제자는 무슨 덕이 있길래 부처님께서 자리를 나눠 주셨을까?'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의 생각을 알고 말했다.

"가섭의 행이야말로 성인과 같다. 나는 사선(四禪)의 선정을 닦아 마음을 쉬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실된 것이 없는데, 가섭도 사선이 있고 선정의 뜻을 얻었다. 나는 크게 인자한 마음으로 일체를 사랑하는데, 가섭의 인자함도 이와 같다. 나는 대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가섭도 역시 그와 같다."

정법의 길을 떠나다

당시 부처님의 교단은 죽림정사와 기원정사를 거점으로 교세를 넓혀 인도 전역에 수많은 사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수행자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그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가섭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전에는 계율로 정한 것이 적었지만 수행자들이 즐겁게 배웠는데, 지금은 많은 계율을 정해도 즐겁게 배우는 이들이 적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가섭 존자에게 말했다.

"지금은 명탁, 번뇌탁, 겁탁, 중생탁, 견탁의 시대라 중생들의 선법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계율을 정해도 즐겁게 배우는 이들이 적게 되었다. 나의 정법이 소멸하려 할 때는 정법과 유사한 법들이 나오고 그러한 법들이 넘쳐나면 정법은 곧 사라지고 만다"

부처님은 이어 정법이 사라지는 과정에서는 수행자들이 훌륭한 스승을 공경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을 낮추어 공양하지 않고, 법을 받들어 실천하지 않고,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수행에 힘쓰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는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 등의 다섯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가섭 존자는 정법을 지키기 위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부처님은 가섭 존자에게 두타행을 수행덕목으로 정해주며 그릇된 사문의 유형을 조목조목 일러준 바 있었다.

"사문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다. 겉모양만의 사문과 남을 속이는 사문이 있고, 명예와 명성을 구하는 사문과 진실로 수행하는 사문이 있다"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길로 나서 사원의 실태를 살피던 어느날 이었다. 가섭 존자는 한 젊은이에게 길을 물었다.

"젊은이, 혹시 이 부근 절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가?"

"절이라면 다른데 가서 알아보슈"

젊은이의 쏘아붙이듯 하는 말에 가섭 존자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 때였다. 멀리서 걸어오던 한 여인이 가섭 존자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길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이 슬금슬금 가섭 존자를 피하고 있었다. 부처님 법이 인심을 잃었다는 방증이었다.

가섭 존자는 그 마을의 사원에 당도했다. 마당에 깔린 대리석부터 조경을 위한 나무까지 사원은 사치스럽기만 했다. 가섭 존자는 그 사원의 수행자들을 불러 모았다.

"부처님께서 사원을 허락하신 것은 수행을 위함이 아니었던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문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집단이 아니다. 그대들의 승적을 박탈할 수 밖에 없으니 그리 알라"

가섭 존자는 단호하게 각 지역의 타락한 사원과 수행본분에서 어긋난 승려들을 일깨웠다. 그로 인해 교단에 다시금 수행의 바람이 일도록 이끌었다.

〈증일아함경〉 불체품에는 부처님께서 가섭 존자의 이런 수행정신을 크게 찬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부처님께서 라열성(羅閱城)의 가란다죽원에서 법을 설할 때 나이가 많은 가섭 존자를 부르며 말했다.

"가섭아, 그대는 나이도 많고 노쇠하여 기력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부터 걸식과 온갖 두타행을 중단하고 또 여러 장자의 공양과 그들이 주는 옷을 받도록 하라."

부처님의 말씀에 가섭 존자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부처님의 분부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가 돼 걸식할 적에는 가난한 집과 부자를 가리지 않고 한곳에 한 번 앉으면 끝끝내 옮기지 않았으며, 두타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본래 익힌 것을 버리고 다시 다른 행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훌륭하다, 가섭 존자. 그대는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어 한량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질 것이다. 두타행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 내 법도 또한 이 세상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비구들은 수행을 하되 가섭이 익혔던 것처럼 해야 하느니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두타행은

마하 가섭 존자의 '두타(頭陀)제일' 칭호에서 '두타'는 산스크리트어의 '투타울'의 음사로 의 · 식 · 주에 대한 집착을 떨치는 수행을 말한다. 두타의 실천 항목으로서는 열두가지가 있어 '십이두타행'이라고 한다.

십이두타행

△재아란야처(在阿蘭若處) 마을과 떨어진 산림 속에서 산다.
△상행걸식(常行乞食) 언제나 탁발 걸식에 의해서 생활한다.
△차제걸식(次第乞食) 걸식을 하는데 있어서 집의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수일식법(受一食法)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절량식(節量食) 많이 먹지 않도록 양을 절약한다.
△중후부득음장(中後不得飮漿) 중식 이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착폐납의(着弊納衣) 폐물인 누더기로 만든 옷을 입는다.
△단삼의(但三衣) 세 개 옷밖에는 갖지 않는다.
△총간주(塚間住) 무덤들 사이에서 산다.
△수하지(樹下止) 나무 아래에 산다.
△노지좌(露地坐) 한 곳에 앉아 지낸다.
△단좌불와(但坐不臥) 언제나 앉아 있고 드러눕지 않는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운송 (경남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서구 약사사)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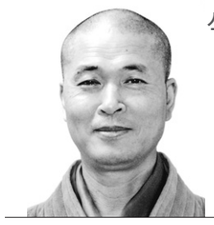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혜공.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법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감 찰 부 장 서암 (부산 북구 만덕 약수사)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경남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지금이 최적이다

학승이 물었다.
"즉금(即今)을 없애버렸을 때는 무엇이 적합할 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즉금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물어보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적합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에게 말했어. 물어보지 말라고."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커서 바깥이 없고, 작아서 안이 없다."

問 盡卻今時 如何是的的處 師云 盡卻今時莫問那箇 云如何是的 師云 向你道莫 云如何得見 師云 大無外 小無內

가장 적합할 때는 지금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최적의 시간이다. 매순간이 모이면 평생이 된다. 매순간 행복하면 평생 행복하다. 지금을 벗어나서 최적의 시점이 언제이겠는가?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그것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크다고 말하자면 얼마나 큰지 가히 바깥을 볼 수 없고, 작다고 말하자면 너무 작아서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같이 생생하고 분명할 때 만물의 근원을 즉시 깨달아야 한다. 24시중에 움직이고 말할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밥 때를 아는 것과 같다.

학승이 물었다.
"4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
학승이 물었다.
"그것은 화상의 경계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물론 그렇지."
학승이 말했다.
"제발 지시하여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4구 백비를 여의고 무엇을 가지고 지시하라는 것인가."

問 離四句絶百非時如何 師云 老僧不認得死 云者箇是和尚分上事 師云恰是 云請和尚指示 師云 離四句絶百非把什麼指示

4구 백비를 '유무 세계' 일체를 끊어내는 것이다. 일체를 끊어야 가히 조금 도를 이해하는 정도가 된다. 조주 선사는 4구 백비를 끊어낸 세계는 마치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명할 때는 사구 백비를 여의고 도대체 무엇으로 말하라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도나 진실의 세계는 헤아림으로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알 수 없다. 그곳은 모든 것을 여읜 자리이다. 그렇지만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체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화상의 가풍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안으로는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는 아무 것도 구할 것이 없다."

問 如何是和尚家風 師云 內無一物外無所求

마음 안에 단 한 경계도 두지 않고 마음 밖에도 단 한 경계도 두지 않는 것이 선사들의 경계이다. 내외가 맑고 분명하다. 이것은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성품은 원래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러한 줄 깨달으면 즉시 체득된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27〉

변화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苦'

사법인-② 일체개고

일체개고(一切皆苦)는 일체행고(一切行苦), 제행개고(諸行皆苦)라고도 하는 데, 이는 오온 · 십이처 · 십팔계 등의 모든 현상법이 '고(苦)'라는 의미이다. 이 내용은 원시경전을 비롯한 그 밖의 많은 불교경전에서 '현상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다'라는 가르침에 기인한다.

하지만 일체개고가 객관적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물론 불자사이에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고 납득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고라고 하는 일체개고의 명제는 무조건 받아들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 속에 살아가다보면 고만이 아니라 낙(樂)도 있고, 고도 낙도 아닌 상태, 즉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의 상태에 머무를 때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락의 감정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사물을 대해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상의 모든 것을 고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일체개고는 객관적 진리일까? 앞서 연재한 사성제의 고제(苦諦)에서 사고팔고(四苦八苦)에 관해 이미 언급했지만, 이밖에도 고에는 고고(苦苦) · 괴고(壞苦) · 행고(行苦)의 삼고(三苦)가 있다. 그렇다고 사고팔고와 삼고가 다른 종류의 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 개념에 있어서 중심은 역시 사고팔고에 있다. 삼고는 부처님이 사고팔고의 의미를 세 종류로 다시 나누어 설한 것이다.

삼고에서 고고란 몸에 타격이 가해져 느껴지는 고통이나 추위와 더위 등의 환경에 의한 고를 말한다. 즉 육체의 신경에 가해지는 고통으로 생물이라면 인간도 동물도 다름없이 느끼는 객관적인 고이다. 하지만 고고를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체개고라고는 말할 수 없다.

苦를 관하면 樂도 苦를 달고 다닌다
깨달음 얻은 사람에게 현상은 苦 아니다

다음으로 괴고는 파괴손실 등에 의해 느껴지는 고이다. 가난하거나 노쇠하거나 실망낙담할 때 받는 정신적인 고이다. 이는 사물이 쇠퇴해 사라지는 것을 고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쇠퇴하여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번영하여 발전하는 것도 있다. 역경의 고도 있다면 순경(順境)의 낙도 있다. 따라서 세상에는 괴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일체개고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고는 이 세상이 변화해 가는 현상을 보고 느끼는 고를 말한다. 이는 단지 현상세계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사고에 입각한 삼계육도(三界六道)로의 윤회전생하는 삶도 포함된다. 즉 윤회를 포함한 모든 삶의 변화를 보고 느끼는 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미망 속에 살아가는 범부중생의 삶을 말하기도 한다. 미망의 삶은 고이며, 불교에서는 미망을 떠나 윤회를 벗어난 열반의 상태만이 진정한 낙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모든 현상이 고라고 하는 것은 미망에 빠진 범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 현상은 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째서 모든 것은 '고'라는 가르침의 일체개고를 설했을까?

고고 · 괴고 · 행고의 삼고이든, 사고팔고의 고이든 이 모든 것은 무상 속에 속해있는 고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육체적 고통이 없으니 고고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간과한 것에 지나지 않다. 언제 나에게 병이 찾아와 고고의 상태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삼고와 사고팔고를 관(觀)하게 되면, 결국 낙(樂)이라는 것도 그림자처럼 항상 고를 달고 다니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일체개고를 설하신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㉜



존자여, 그대는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였습니까 〈미린다팡하〉

역시 그는 서양인다웠던 것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도, 이렇게 솔직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처음 만나는 스님에게, "스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말일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당돌하고 조금은 결례가 되는 일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그 스님의 출가 목적에 대해서 짐작을 하거나 추측을 할 뿐이다.

그러나 밀린다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비수(匕首)같은 질문을 해댄다. 진검승부다. 나가세나 존자가 대론의 주제로서, "진리에 관해서 대론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꺼내자 마자. 바로 공격해 들어간다. 존자는 지금 출가자의 신분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다.

나가세나 존자는 1차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나선다.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고, 다시는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속에 대한 집착이 없고, 완전히 해탈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정답이다. 하지만,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닌가.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고 만다. 그러한 일반론은 차치하고, 당신 자신의 출가 동기나 출가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 모범답안으로 말해도 좋을 만큼, 당신의 출가는 떳떳하고도 당당했던 것인가? 지금 밀린다왕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다.

밀린다왕이 2차 공격을 시도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존자여, 비구들 모두가 그와 같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습니까?" 말은 '비구들 모두'라고 하지만, 당신 역시 그와 같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출가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 스님들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여전히 교과서적인 대답만 반복하실까? 아니면 좀더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실까?

나가세나 존자의 대답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에 말이다. "대왕이여,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출가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폭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둑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의 수단으로 출가했습니다." 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출가했다, 는 고백까지 나왔다. 그런 스님들도 없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 이 정도 대답이라면, 이제 물러설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듣고서도 다시금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너무 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밀린다왕은 물러서지 않는다. 2차 답변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여전히 나가세나 존자는 그 자신의 목적은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리라.

마지막 3차 공격이다. 보다 중심을 향해서 비수를 찔러댄다. "존자여, 그대는 무슨 목적으로 출가하였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제기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진심직설(眞心直說)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거듭거듭 질문을 제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번 더 쪼아들어간다.



그림 · 박구원

그렇게, 그 정도로 그대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나 역시도 좀더 내려가서 그대 곁에 서리라, 라는 심정이었을까. 존자는 드디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한다. 고백한다. "실은 나는 어려서 출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몰랐습니다."

보라! 이 스님을 ---. 여기 자기를 말하는 분이 있다. 자기를 드러내놓는 분이 있다. 출가자의 옷으로 그 스스로를 덮지 않으시고, 적나라하게, 그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그래, 나 여기 다 벗었다. 이제 나를 보라. 그렇게 그는 가장 힘없이 대답하셨으나, 가장 힘있는 대답을 하시고 있다. 우린 이렇게 무장을 완전히 해제한 채, 우리 스스로를 낮게 낮게 낮출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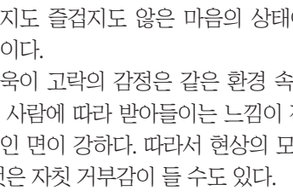
(서경수 옮김, 〈미린다팡하〉, 동국역경원, 53-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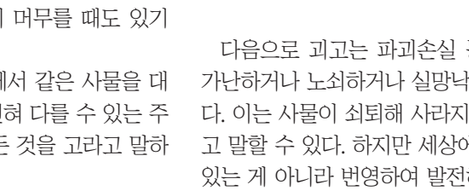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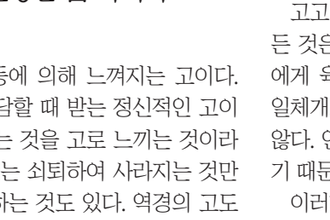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잘 씹은 암죽같은 글로 대중과 이야기

판화가 이철수 화백

사랑하는 이를 뒤로 하고 울고 넘었다는 천둥산 박달재 아랫마을 사는 판화가 이철수 화백(59)집 앞, 잠자리가 한가로이 노니는 가지런한 논을 넋 놓고 바라보는데 마중 나온 이 화백이 말을 건넨다.

"우렁 각시 도움으로 벼농사 지은 지 한 십 오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집사람하고 둘이 꼬박 논에 매달려도 일이 그치지 않았지요. 김매다가 집 사람이 쓰러진 적도 있을 만큼. 그런데 요즘에는 논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먹을거리를 모두 길러서 먹으려니까 밭농사도 이것저것 골고루 지어요."

확실하게 앞가림을 하고 산다는 말씀이다. 담쟁이가 소복이 덮인 벽 사이로 능소화 넝쿨이 운치 있게 늘어진 대문에 들어서니 잘 다듬어진 잔디 위로 활짝 핀 백련이 손들을 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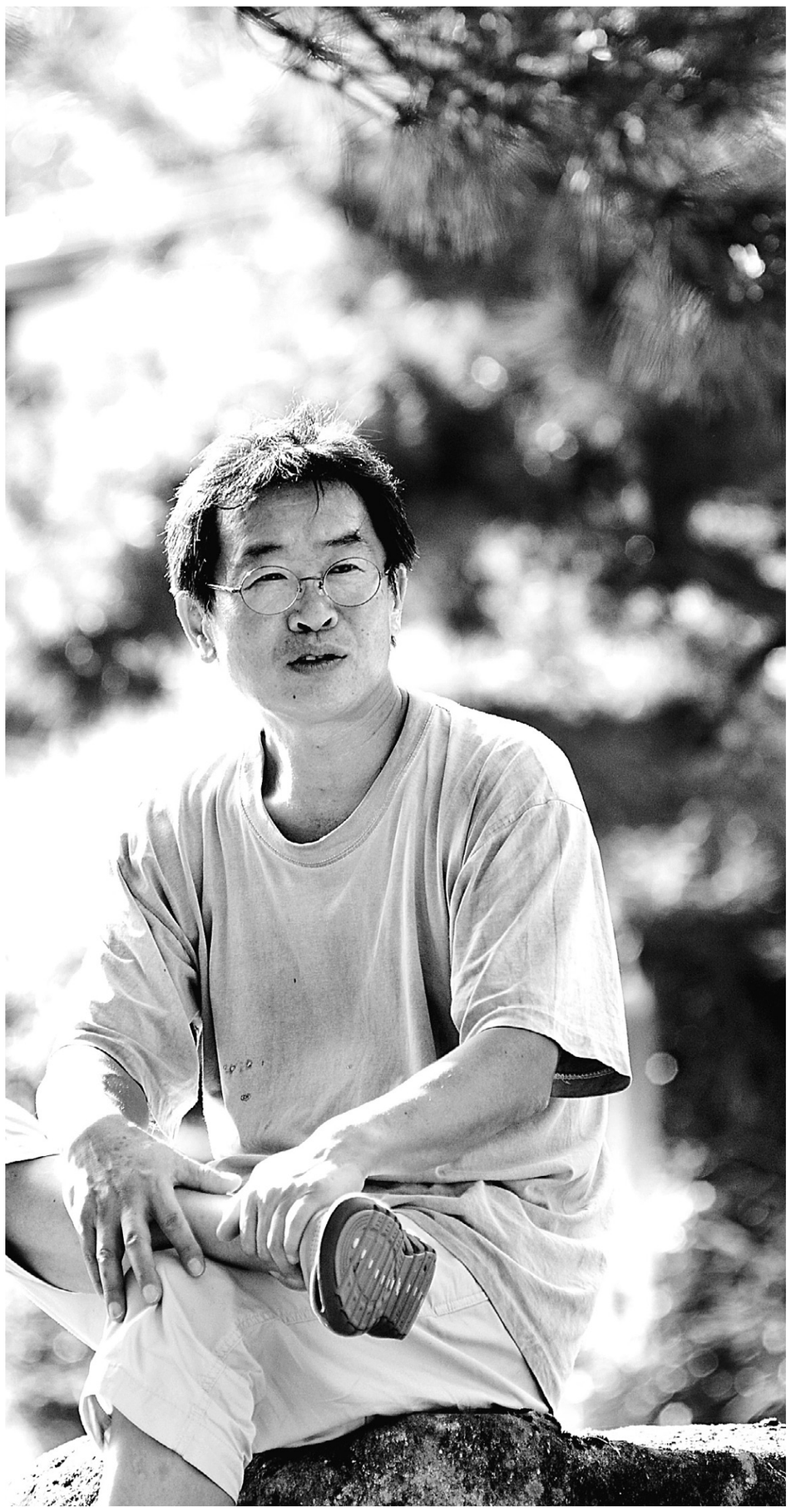
"제가 아주 젊어서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부처님 일대기'를 봤어요. 반듯한 우리말로 번역한 부처님 일생을 만나면서 '이렇게 친절한 분이 계신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소유〉란 수필집도 내셨더군요. 이런 인연이 쌓일 거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뒷날 제가 스님 대표작 〈무소유〉 표지 그림도 그리게 되고. 이렇게 만나고 또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

스님이 번역한 부처님 일대기 보며
'이렇게 친절한 분이 계신가?' 느껴
법정 스님은 씨앗을 많이 뿌리신 분

어요. 씨앗을 많이 뿌리신 분이세요. 저는 어려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따르고 존경했어요. 스님도 그런 분이셔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인터뷰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이 화백은 법정 스님을 언제 어디서 뵈었는지를 떠올리려고 지난날을 곰곰이 되짚어봤지만, 아스라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스님과 첫 만남을 떠올리지 못했단다. "처음에 청학 스님과 같이 뵈었을 거예요. 〈불일회보〉 연재를 할 즈음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냅사진처럼 화면을 떠올려요. 대사들을 떠올려야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다가다 장삼이사(張三李四)로 뵌 게 아니어서 긴장하면서 뵈었을 텐데도 어디서 어떻게 뵈었는지 도무지 기억 나지 않아요. 이오덕 선생님은 우리부부 주례를 서주셨는데도 처음에 어디서 뵈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하고 뵌 걸 떠올리지 못하니 참 딱한 일이지요."

사람마다 기억소자가 다른데 어쩌랴. 판화는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젊어서는 그냥 책만 열심히 봤어요. 70년 대 말 군대 제대를 하면서 세상이야기를 하는 그림이 별로 없기에 '나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보고들은 것이 적은 탓도 있었지만 문학은 세상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미술엔 별로 없었어요. 책에서 이따금 외국 사례와 만날 수 있을 뿐. 그림을 시작하면서 세상이야기하기에는 판화가 가장 좋겠다 싶었습니다. 진보 쪽에 서서 청년기를 넘기면서 보니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더군요.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진보에 반드시 필요한 힘인데 저나 제 둘레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이 너무 모자랐어요. 게다가 안팎이 다르지 않다는데 바깥에다 대고 손가락질하는 그림을 십년 가까이 그리며 살다보니까 '너는 어떤데?' 하는 의심도 스스로 품게 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대중적이진 않지만 항상 깨닫고 생각하게 만드는 '선화'를 계속하라고 법정 스님은 이철수 화백을 볼때마다 조언했다.

미술사가들이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앤디 워홀이 캠벨 통조림 캔이나 바나나 따위를 실크스크린으로 그려내 독특한 세계를 이뤘듯이, 이철수 화백도 그 못지 않게 이철수다운 세계를 펼친다. "출발은 오윤하고 닮았지요. 그런데 십년 가까이 지나니까 제가 보기에도 오윤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가까이서 손을 늘 잡아주는 이현주 목사님이 기독교하고 할 때는 재미없었는데 불교하고 만나더니 날개를 달았다고 하고, 권정생 선생님도 '철수 안에 저렇게 예쁜 게 들어있었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제 세계라고 할 만한 게 생긴 것 같아요. 날개를 다는 순간이 와야 하는데." 이 화백은

바깥에 손가락질 하는 그림 그리다
그림 변화하면서 불교다움과 만나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판화 연재

그림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불교다움과 만났다고 돌아본다. 불교와 만났다고 하지 않고 불교다움과 만났단다. 겸손하다. "〈불일회보〉하고도 그래서 연이 닿기 시작했어요. 청학 스님이 아무것도 없는 하얀 한지로 도배를 한 방에 앉아 있던 컷은 떠올라요. 아무것도 없어서 인상 깊이 남았어요." 그런 인연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 법정 스님이 밥값이나 하고 가야겠다면서 만든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가 1995년 3월 창간되고 넉 달 뒤인 7월부터 소식지 얼굴은 이철수 화백 판화로 꾸몄다. 그 뒤로 이 화백 판화는 4년 6개월이나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오롯이 담아 맑고 향기롭게 운동가들에게 띄웠다. 법정 스님하면 떠오르는 수필집 〈무소유〉 3판을 낼 때도 강원도 산막 이미지를 오롯이 드러내는 이철수 화백 작품을 표지 그림으로 썼다.

"법정 스님이 괴팍하신 데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팍하심이 우리 집에서는 존중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웃는 일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밖에 없다고. 하하." 이 화백은 웃으면서 부인 이여경 여사를 가리킨다. "가끔 오셨어요. 가을걷이를 하고 벼 타작할 때 당신도 팔 걷어붙이고 타작을 하곤 하셨어요. 저는 그런 스님 모습이 뵙기 좋았는데 모시고 온 분들은 어쩔 줄 모르던데요." 이 화백은 법정 스님하고 당신이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스님을 잘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돌아본다. 스님 성정으로 보아 깍듯하지 않고 스스럼없기에 외려 편안해 하지 않으셨을까 싶다. 이 화백 화실에 들면 은은하게 청록빛깔을 띤 널따랗고 근사한 찻상이 반긴다. "어느 해인가 저 상을 가져다 놨는데, 스님이 상을 보시고는 멈칫하시더라고요. 아주 잠깐, 그러시더니 얼른 수습 하시고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상이 크고 좋아 보여서 앤틱이라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데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칠이 되지 않은 말간 상을 사다가 다리 밑동 자르고는 끝을 뾰족하게 바꿔 직접 칠을 해서 다듬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잘 만들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래 전 어느 해인가 이 화백은 선화(禪畵)라고 할 만한 그림을 따로 모아서 달력을 만들었다. 그런데 일반달력보다 훨씬 덜 나갔다. 그 이듬해 말 스님이 선화달력이 올해도 나오느냐고 물었다. 팔리지 않아서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님은 그 뒤로도 이따금 선화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는 이 화백을 볼 때마다 선화를 계속하라고 한 마디씩 꼭 건넸다. 그래도 이 화백은 꿋꿋하게 장사도 안 되는데 만들어 뭐하겠느냐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거나 팔리지 않더라도 좀 남겨놓고 죽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가에서 스님이 대중과 호흡하는 글을 쓰셨다고, 특히 선승들은 '선승으로써는 재미없다'고 깎아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님 글을 보면 공안이나 선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살아오신 내력을 쭉 살펴보면 '공부는 당신이 하고, 대중들하고는 잘 씹은 암죽 같은 글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이 괜찮아보였어요. 제게 선화를 계속하라고 하신 까닭도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인기인처럼 되셔서 그동안 힘든 일이 많이 겪으시는 모습도 뵙고, 둘레 사람들 하소연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안타까웠어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내외가 앉아서 스님이 사람 복은 없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철수 화백 말을 부인 이여경 여사가 받는다. "우리 모두 그냥 어떤 인물을 받아들일 때 보이는 대로, 겪은 대로만 받아들이잖아요. 큰 사람하고 사이에서 생긴 작은 사람 허물이 꼭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큰 사람은 괜찮은데 작은 사람 잘못이라고 해요. 돌이켜보면 어른이 잘잘못을 제대로 짚어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잘못하는 사람은 내치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다 잘못을 하고 어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들 해요. 그러면 제가 나서서 그래요. 어떻게 다 그 사람 잘못만이겠느냐고. 문제를 보면서 옆에서 어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나, 실체를 바로보지 못하는 어른도 문제이지 않느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스님이 저보고 편하다고 그러셨던 거죠. 저희 집에 스님을 따라오는 보살들 가운데 공양거리며 반찬을


부엉이걸이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 핸드폰걸이

옴자 차걸이는 불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옴자 모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옴자를 지니고 있으면 나쁜일을 물리쳐주고 늘 수행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엉이 걸이는 항상 밤에 눈을 뜨고 있어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고 안녕을 기원해주는 새 입니다. 집안이나, 핸드폰 걸이로 사용하시면, 당신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목어 걸이는 불교의 4가지 보물 중 한가지로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물속의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눈을 뜨고 있다하여 수행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어를 옆에 두시면, 수행하는 마음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옴자차걸이 4종류

종 류	가 격	제 조	용 도	기 타
옴자차걸이	33,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노리개	빨강,노랑,파랑,녹색
부엉이걸이(大) 부엉이걸이(中) 부엉이걸이(小)	20,000원 15,000원 10,000원	국내제작 국내제작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방향제	페퍼민트 자연향


목어걸이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이철수 화백의 작품 '무'



판화전시회 도록 글을 직접 써 주실 정도로 법정 스님과 교분이 두터운 이 화백이 집문 앞에서 환히 웃고 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스님께 퇴박을 놨어요. '그 분들 마음을 받으시려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밥을 드셔야지요.' 스님을 모시고 온 보살들은 공양 할 때 스님과 마주 앉지도 못해요. 바보들이야. 제가 스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스님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보살은 장한이 엄마밖에 없어.' 그러시며 웃으셨어요. 제가 농담처럼 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이 은근히 즐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싫으면 싫으니까 그만두라고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모시는 어른 좋은 점을 내세우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실수나 허물이 다 그 사람들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저런 자잘한 허물도 가지고 계시는 스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희도 허물이 큰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드러내놓기 쉽지 않은 일인데, 당차다. 바로 이 당참이 스님 발걸음을 박달재 아래로 이끌었을까?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다 온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묘용(妙用)은 얼굴이 워낙 다양해서 그런가보다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만년에 스님 주변에 갈등이 많았어요. 출판 관련 얘기도 있고 어지러이 믿기지 않는 얘기들도 있었고. 어떤 얘기는 스님이 가지를 칠 수 있는 일일 텐데 싶었어요. 글로라도 길거리에 나앉아있는 일은 참 힘든 일이더군요. 제게 스님은 늘 고마운 어른이셨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좋은 대로만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에 제가 아주 분노했어요. 안타까웠어요. 평소 스님 모습을 봐서는 거침없이 잘라내고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참 서투셨어요. 간단한 스님 선기(禪氣)도 붙잡아 헤아리지 못하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서계시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성이 났어요. 그래서 스님 책에다 그려드리기로 한 그림 준비를 다해놓고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스님이 '무슨 일이요?' 하고 전화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님이 이 화백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이 화백이 싫다면 그만두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 뒤에 스님이 제 전시회에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스님한테 제가 스님하고 둘이서만 뵙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집사람 얘기대로 주변 탓만 돌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스님이 모르고 계시는 일이라면 제가 받은 느낌을 스님께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돌아가실 때까지 스님을 뵙지 못했어요." 이야기 줄거리로 보아 이 화백이 그 말씀을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님 병환이 깊어지는 바람에 만날 겨를이 없었을 터였다.

무문관 48칙 '그림 평창' 밑그림 완성
무문관 선화는 스님 말씀에 대한 화답
"팔리지 않더라도 선화를 계속하라"

이 화백은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절판 소식을 들으면서 스님이 당신에게 주신 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제가 망설이다가 인터뷰 하겠다고 했던 까닭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예민한 어른이라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나, 따로 한번 뵙자고 할 때 '저 녀석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모르셨을 리 없어요. 못되게 굴지 말고 찾아가서라도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좀 편안하셨을 텐데. 저작물을 싹 거두라고 하신 말씀이 아주 통렬한 대답이 되었지만 부담스러웠어요. 당신 생각은 또 다른 큰 줄기를 이루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면서 선화를 계속하라고 하셨던 말씀도 새삼스럽게 되새김질 하게 되었어요. 길상사를 처음 보시 받았다고 하셨을 때 한번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 봤어요. 많이 달라져서 조금 놀라서 서둘러 돌아왔는데 남은 건 스님과 추억들뿐이네요. 그런 일로 말년에 뵙지 못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아쉬워요. 불운이든 행운이든 한 얼굴로 다가오는 게 아니니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불일암을 TV뉴스에서 비춰주는데 제 그림이 걸려있더라고요. 스님 한 분이 바람을 거슬러서 나뭇잎이 휘날리는 곳을 걸어가는 그림인데 스님은 그런 그림을 좋아하셨어요."

법정 스님은 이 화백 판화전시회 도록 글도 쓰셨다. "내 (山居) 한 쪽 벽에는 이철수 판화 〈소리 - 바람 부는 날 나뭇잎들〉이 걸려 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들이 온통 떨며 흩날리는 그 속으로 한 수행자가 가사자락을 날리면서 바람을 거슬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림이다. 이 '소리' 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아늑한 평온이 내 안에 깃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슴아슴 보이는 것 같다. …… 이철수 글에서는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산촌에서 쇠여물 삶는 질박하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 단순하고 질박한 판화가 곁들인 간결한 화제는 그림과 어울려 선미(禪味)를 풍겨주고 있다 ……".

이철수 화백은 무문관(無門關) 연작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무문관 48칙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만드는 일인데, 밑그림이 거의 다 된 이 무문관 연작이 선화를 해보라고 했던 스님 말씀에 대한 화답이라는 이 화백은 이 일은 그림으로 평창을 다는 일이라고 했다. "원래는 작업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문관〉을 비롯해 앞으로 〈조주록〉이나 〈벽암록〉처럼 평소 가까이 두고 보던 책 몇 권을 가려내어 풀어보려고 해요. 이 일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스님 말씀이 큰 동인(動因)이 되었어요. 그때 그렇게 드나드실 때마다 말씀하셨어도 '내 몫이 아니다' 여기고 살았는데 이젠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라도 스님 뜻을… 재밌는 책이 될 거예요." 기대된다. 어떤 모습일까?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생활의 즐거움



동국대 명예교수

참 즐거운 일이다.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말이다. 누군가는 새삼스레 무슨 말이냐고 반문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조금 생각의 여유가 있다면 세상 모든 일이 고맙고 즐겁지 않을까.

백엽상의 온도계에 의지하지 않고, 다만 체감온도로 오늘 날씨가 어떨지 감지 할 수 있으며 습도 또한 얼마나 높아 찌는 날이 될지도 피부에 휘감기는 옷의 상태만으로도 알 수 있다. 기계가 어찌 천기를 읽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천기를 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민감한 생체리듬의 변화 때문이다.

또한 매미와 여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어 좋다. 매미의 경우 보통 6년 간 땅속에서 성충으로 생활한다고 하며 영양 공급원은 수액이라고 한다. 번데기 과정 없이 화창한 날 어른벌레인 매미가 되는 것이다. 매미의 수명은 단 한 달. 그동안 살면서 종족 번식을 위한 절규가 사람들에겐 노래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농사일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부는 매미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기실 속내를 알고 보면 부러워 만 할 일도 아니다. 암컷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유인할 때 우는 사랑의 세레나데이니까 말이다. 이를 유인울음이라고 한다. 다른 수컷이 방해해서 질투심으로 우는 방해울음도 있다. 그리고 적에게 잡혔을 때 비명을 내어 적을 위협할 때 우는 경고울음이 있기도 하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비단 분간하지는 못한다 해도 수컷 복부에 훌륭한 발성기관이 있어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매미가 신선놀음에 취한 것이 아님은 알고 있으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다.

가을 전령이여, 밤의 파수꾼인 여치여. 초저녁부터 밤이 이슥하도록 가을밤의 정취에 취하게 하는 마술사가 여치이다. 그믐달이 서산마루에 걸려 있는 새벽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깨어나게 하기도 한다. 두 날개를 비벼 울음소리를 내면 암컷이 듣고 와 짝짓기를 하여 종족번식을 하기 위한 성스러운 시간이 된다.

잔디밭을 걷다 보면 잡초가 눈에 들어온다. 밝은 시력 덕분이라 또한 즐겁다. 나뭇가지에 걸어 놓은 호미로 이내 잡초를 뽑아낸다. 물론 잔디가 상하지 않게 하려면 신경을 써야 한다. 뽑아 놓은 잡초는 염천에 하루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진다. 잔디밭에 잡초는 점령군이 되었지만 잡초는 항변할 것이다. 본래 이곳은 우리 땅이었다고. 언제부터인가 잔디라는 점령군이 진군하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객의 전도란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한다. 식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도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곧 동화되고 말았다. 물질에 동화되고 불의와 타협하여 숭고한 이성마저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폭포에서 비춤이란 딴 세상 일 인 듯하다. 이과수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라. 아니, 어느 계곡에 있는 몇 길 폭포를 보아도 그렇다. 정지되어 가라앉은 물만이 비춤이 가능하다. 거울은 정지 되어 있으므로 만물을 비출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삼라만상을 받아들이고도 버겁다거나 피로할 줄 모르는 거울의 모습에서 큰 품을 배우고 관용과 인내를 배운다. 사량분별심이 소멸된 거울이다. 인간도 선악미추를 탈탈 털고 살 수 없을까.

평상심을 얻으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지각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평상심은 오직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 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인 것이다.

법음을 전할 수 있는 즐거움은 생활의 백미가 아닐까 한다. 이따금 법회에 초대받는 날이면 가슴이 뛴다. 희열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감성에 의탁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되는가 비유해 놓은 경구를 〈금강경〉에서 배울 수 있다.

잔디밭 잡초 점령하면 주객전도
불의·물질에 타협하는 세상 닮아
중생도 선악미추 털고 살아가길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며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깊은 성찰이 따르게 된다.

법회를 마치고 공양을 하고 있었다. 옆에 누군가가 다가서기에 바라보았다. 낯선 보살님이었다. 미소를 머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음료수를 식탁에 놓으며 마시라는 몸짓이 있었다. 딴에는 무슨 언어적 표현이 있었으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 고마운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녀의 거동을 살피니 공양간으로 발길을 옮겼다. 옆의 스님에게 외국인이냐고 물었더니 말이 서툴렀기 때문이란다. 아, 그러면 언어장애인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렇다는 간단한 대답에 가슴이 찡해졌다. 생각건대 그녀는 소리는 정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법회 내용을 열심히 들었나 보다. 후원 일손을 거드는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대각국사 의천스님은 고려 문종 임금의 넷 째 아들로 태어나기 전생 말년에 가서 앉은뱅이로 시각장애인으로 말더듬이 장애로 불운이 겹쳐 삼생에 겪을 고통을 한 생에 모두 받고 몸을 바꾸어 왕자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였다. 상처가 아물 때 쯤 되면 아팠던 부위가 더 가려운 이치와 같이 고통이나 재앙이 소멸될 때에도 더욱 치성하게 되는데 못 견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였다.

생활의 즐거움이란 이래저래 더욱 즐겁다.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네팔 인도 불교8대성지 완전정복 13일. 대한항공 직항. 월요일 출발가능 / 요금문의
* 인도상품 다양합니다. 문의주세요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 189만원. 금-일요일 출발
▣라오스 성지순례 6일 / 토요일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혜거 합장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전세계 불자선수들 찾아와 기도

英 올림픽 빌리지에 마련된 불교법당 전세계 불자들 찾아

영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내면의 원동력을 얻는다.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유지시켜나가고 목적한 바를 달성해나갈 수 있다. 때문에 영적인 활동은 운동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2012 런던올림픽 주최측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개최기간동안 올림픽 빌리지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 주요 5대종교단체의 종교의식장소를 마련했다.

스리랑카 신문 더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는 8월 11일(현지시간) 영국 올림픽 빌리지 안에 마련된 불교법당과 지도법사 스님을 소개하고 예불을 올리는 각국 선수들과 법당의 모습을 전했다.

신문에서는 "올림픽 빌리지에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다. 우리는 정신없는 이곳에서 취재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한 스님이 유유자적하게 이곳을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다"며 "이 인물이 런던올림픽의 불교를 통한 영적지원활동의 가장 큰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이 언급한 인물은 바로 스리랑카 출신의 보고다 시라위말라(Bogoda Seelawimala) 스님.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 스님으로 영국 불교계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시라위말라 스님은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부부의 결혼식에 불교계 대표로 초대되기도 했다.

보고다 스님이 이번 올림픽 지도 법사로 임명되기 까지는 엄격한 과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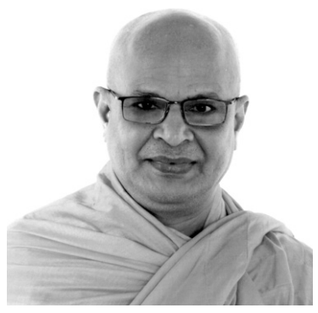
스님은 "4년 전 런던올림픽 지도 법사(Buddhist spiritualist)에 지원을 했고 필기와 구술 테스트를 받았다"며 "구술테스트는 전화를 통해 진행됐는데 면접관은 '만약 누군가가 당신으로부터 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망명을 요구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등의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하는 등 매우 진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도법사는 스리랑카 보고다 스님

법당에는 각국 언어로된 경전 비치

선수들 명상지도하고 수행상담해



① 런던올림픽 주최측에서 마련한 법당 ②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직능전법단 체육분과 지도법사 부명, 혜만, 남전 스님과 선수들이 올림픽 빌리지 법당에 들려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③ 스리랑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보고다 스님(앞줄 오른쪽 세 번째) ④ 올림픽 빌리지 불교법당 지도법사 보고다 시라위말라(Bogoda Seelawimala) 스님

어 스님은 "테스트를 거친 후 우리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아야 했다. 올림픽 빌리지에서 가까운 해크니시에서 세미나를 통해 사람들을 반기고 상황을 컨트롤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고 말했다.

런던올림픽 참가인원 1만5000명 가운데 500여 명이 불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홍콩, 한국, 태국, 대만, 일본, 스리랑카 등지에서 온 이들은 올림픽 빌리지에 마련된 법당에 찾아 예불을 올렸다.

15평 남짓한 올림픽 빌리지 법당에는 불상과 과일, 꽃을 올릴 수 있는 불단이 마련돼 있으며, 각국 언어로 번역된 불교자료들과 경전들이 비치돼 있다. 선수들은 이곳에 와서 예불을 올리고 스님과 상담을 했다.

올림픽기간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무를 수행한 보고다 스님은 "법당에는 하루 평균 15명 이상의 선수가 와서 예불을 올렸다. 나는 그들과 명상을 하고 수행·신행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경험은 내게는 특권과도 같다. 스리랑카와 영국 스리랑카인 공동체를 대표해 불교를 알리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태국 승려 절반이 성인병 환자

신도들 올린 공양물 원인 달고 기름진 음식이 문제

태국 스님 절반 이상이 비만과 고혈압·당뇨 등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조간신문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8월 1일(현지시간) "태국 스님 중 절반이 임상적으로 비만이며, 그들 중 40%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갖고 있다"며 "태국 정부는 스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보도된 태국 스님들의 건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태국의 11개 주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246명의 스님들이 비만·고혈압·당뇨 등 생활 질병을 앓고 있었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신도와 공무원들이 기름지고 단 음식을 탁발하는 태국 스님들에게 공양물로 올



데일리메일은 "성인병 질환을 앓는 스님이 늘고 있다"며 비만의 스님 사진을 게재했다.

린 것이 (스님들이 성인병 질환을 앓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며 "스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이어트 플랜"이라고 주장했다.

태국의 스님들은 아침 일찍 사원에서 나와 발우를 들고 탁발을 하며 돌아다닌다. 연구조사에서는 "스님들이 탁발을 할 때, 그리고 사원 내에서 빗자루 질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성인병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며 "기름지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스님들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국 보건 당국은 스님들의 살을 빼기 위한 식품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스님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가 무엇인지, 또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활에 적합한 식이요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한 운동법을 조언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신도들에게는 탁발승들의 건강을 위해 공양물로 줘야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러한 교육을 따르는 일부 스님들도 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끼만을 식사하거나 또는 마지막 두끼를 정오인 대낮에 먹는다. 이들의 식단은 간단한 디저트와 건조된 보존식품과 생선 또는 고기들로 구성돼 있다.

당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원과 신도들간의 영적인 유대관계가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신발에 부처님? NO!"



美 캘리포니아의 한 신발회사가 부처님 모습을 신발에 장식한 상품을 판매해 현지 티베트인들과 불교커뮤니티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상품은 'Icon'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발등을 감싸는 부분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림을 넣었다.

티베트와 부탄의 불자들은 불교를 모독하는 행위라 보고 항의 문서를 신발회사에 보냈다.

美 티베트인 국회의원 타시 남걀은 "이 신발을 우연히 봤을 때 충격에 휩싸였다. 카달로그에서 그 신발을 없애달라고 서한을 보냈다"며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이나은 기자

아시아 비구니 발자취 연구

세계의 불교학자(29)

미리암 레버링

美 테네시대 종교학 명예교수



최초의 비구니 승단은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허락 하에 500명이라는, 당시로서는 거대한 집단으로 출발했다. 이는 자이나교 이외에는 여성의 종교 수행을 허가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여인오장설(女人五障設)과 비구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비구니 팔경법(八敬法), 남성 중심의 문화적 환경 등, 비구니 스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비구 스님들보다 훨씬 열악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비구니 승단이 존속되고 있는 곳은 한국, 베트남, 대만, 일본뿐이다. 그 가운데 1600여 년간 법맥을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유지해온 곳은 한국 비구니 승단이 유일하다.

일본 불교는 재가중심이어서 여성 수도자를 전통적인 비구니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은 대륙의 불교전통이 이미 끊어진 것과 다름없고 대만의 비구니 승단이라는 것은 대륙의 전통에 맥을 갖다 대는 것인데 그 대륙의 전통은 희미하다.

미리암 레버링(Miriam Levering) 美 테네시대 종교학 명예교수는 그 동안 역사적, 사회적 제약에 의해 간과돼 왔던 아시아 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발자취를 연구해왔다. 특히 그는 선불교를 비롯해 중국·일본·여성종교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한국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2004년 한마음선원이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1300년간 법맥을 유지해온 중국 비구니 삶에 대해 조명했다.

'중국 불교사의 비구니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레버링 교수는 "비구니는 물론,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불교에 참여했다. 비구와 비구니들의 숫자를 처음으로 구별했던 인구 기록은 8세기 초엽인데 전체 123,000명의 스님들 가운데 비구니가 5만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버링 교수는 516년경 바오창(寶唱)이라는 학승이 쓴 〈비구니전〉을 소개하며 "중국의 비구니 승가가 초기 엘리트 계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불교사원의 여인들을 기념하는 최초의 책인 〈비구니전〉에는 357~519년 사이 살았던 비구니 스님을 조명하고 있다. 당시 스님들은 학식, 세련된 문학적 기량은 물론, 신심이나 고행, 명상 학습과 교수 등 탁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레버링 교수는 "4세기부터 130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비구니들은 공동생활 계율에 따라 수행하면서 중국 사회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을 발전시켰다"며 "모든 시기의 상당수의 비구니들이 불교의 목적이나 시대의 이상, 나아가서는 불교 전통 전체의 이상을 구현했다"고 덧붙였다.

중국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진 레버링 교수는 2011년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혜종고와 죽음의 화두'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혜는 공(空)의 궁극적 진리, 그리고 공과 업보라는 진리의 두 측면을 깨닫도록 독려하기 위해 업보에 대한 믿음에 의해 촉발되는 강력한 감정을 이용했다"며 "그는 재가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혜를 키워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조명했다.

"선대 비구니, 불교 이상 구현"

〈대혜의 서장〉 영어로 번역

韓·中 수행관련한 개론서 집필

레버링 교수는 간화선 체험을 한 후 교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체험을 통해 화두, 의심에 대해 배우게 됐다. 비록 수행을 통해 수불 스님이 말씀하신 체험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새롭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선불교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간화선 수행 체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곳에서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체험을 추천해 주고 싶다"고 전했다.

레버링 교수는 美 웰슬리대에서 중국역사·유럽역사를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뒤 1968년 美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종교학으로 석사를, 이후 1978년 역사, 비교종교학 분야중에서 중국불교전통 인도불교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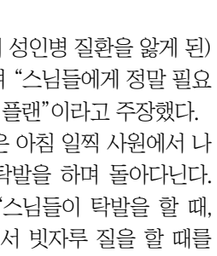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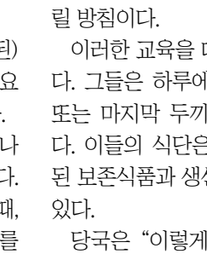
주요저서로 〈선: 이미지, 텍스트, 가르침〉(런던, 독일, 뉴욕, 프랑스에서 출간)외 다수의 연구서적이 있다. 최근 〈대혜의 서장〉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중국불교 및 한국불교의 수행과 관련한 〈대혜 서장〉의 중요성을 개괄하는 종합적 개론서를 집필 중에 있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신문·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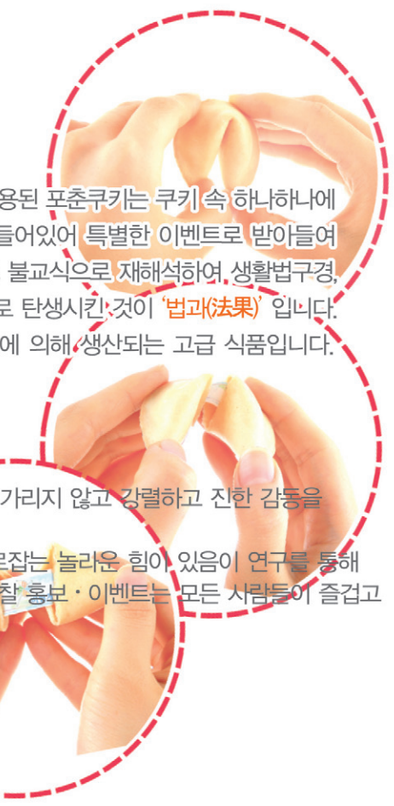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중생 염원 또 다른 세계 만들다"

진향(眞鄕) 극락의 또 다른 이름



운제 진향 나무 아미타불

사바세계 고해(苦海)속에서 기약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중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극락이 아닐까 한다.

극락세계는 먼 곳이 아니라고 한다.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기에 마음이 평화로우면 극락이고 마음에 탐욕과 분노가 있으면 지옥이라 한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중은 아미타불께서 힘들여 지으신 실제극락이 있다고 믿기에 밤낮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산다.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즐거움만 있는 곳이고 고통과 즐거움이 겹쳐 인간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고 수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극락세계에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지내면 사바세계의 고통을 겪을 필요 없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한다.

극락세계는 또 정토라는 이름이 있다.

정토 안양 수마제 등 다양한 이름
극락 지칭하며 행복한 삶 기원해
기생 진향도 아미타불에 마음 담아

예토라는 더러운 땅이라는 사바세계의 반대되는 명칭이다.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워서 오직 청결함만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더러움이 없기에 불쾌함이 없을 터이고 불쾌함이 없기에 상쾌하고 싱그러운 바람이 부는 곳이다.

극락에는 또 안양(安養)이라는 이름이 있다. 편안히 지내면서 수양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수마제(須摩提)라는 명칭도 있다. 극락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정토이며 산스크리트어로 수카와띠(sukhavati)라고 하는데, 이 발음을 음사한 것이다. 그 의미는 안락(安樂), 극락(極樂), 묘락(妙樂) 등으로 번역된다고 한다.

어찌했든 극락세계에는 사고(四苦), 팔고(八苦)와 같은 현실적인 고통이 없고, 무위열반(無爲涅槃)을 즐길 수 있는 불고불락(不苦不樂)의 세계이다.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중에 불설(佛說)아미타경(阿彌陀經)이 있는데 경전에는 극락세계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극락의 땅은 금 은 유리 산호 마노 자거 등의 칠보(七寶)로 이루어졌고 나무도 칠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또 무한한 광명이 영원히 시방세계를 비추는 아름답고 깨끗하며 기쁨과 즐거움만 충만한 세계라고 한다. 이러니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을 항상 이마에 모시고 세세생생 은사로 모시기를 서원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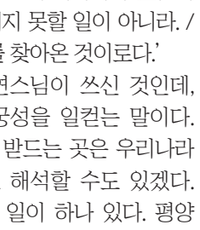
그런데 정토학의 대가분들도 잘 모르는 용어가 하나 있다. 진향(眞鄕)이라는 용어이다. 참된 고향 또는 진짜 고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인데, 오직 일연큰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글이다.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야할 진짜 고향이라는 의미로 쓰신 용어이다.

'이 세상 어느 곳이 진향 아니랴마는 / 향화(香火)의 인연은 우리나라가 으뜸이라. 아육왕이 손대지 못할 일이 아니라. / 월성(月城) 옛터를 찾아온 것이로다.'

위의 시는 일연스님이 쓰신 것인데, 월성은 신라의 궁성을 일컫는 말이다. 부처님의 향화를 받드는 곳은 우리나라가 으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다. 평양기생으로 그림과 시문에 뛰어나고 비교적 근세까지 그림을 그리다 간 보살이 있다.

항상 이름을 운제(雲濟) 진향(眞鄕)이라 이름하는데 나도 그림을 한 두 장 소장하고 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진향이라 항상 궁금했는데, 얼마전에 골동품상을 들렀다가 족자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고졸미 넘치는 글을 쓴 것을 보았다. 바로 이 보살이 쓴 글이었다.

어렵고 고된 기생의 삶 속에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고향 극락으로 돌아가고픈 그녀의 마음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과연 알고 자기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불심(佛心)이 넘치는 마음으로 신심(信心)어린 이름을 짓고 살아간 그 보살님의 명복을 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원효·의상 스님의 사랑의 메시지

뮤지컬 쌍화별곡 9월 11일 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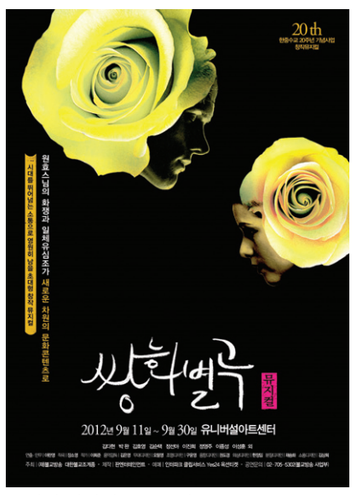
원효스님의 화쟁과 일체유심조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태어난다. 천년 전 신라시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쌍화별곡'이 무대 위에 오른다. 불교방송과 조계종이 만든 이 공연은 9월 1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중국 등을 순회하며 대중들을 찾아나설 예정이다.

물론 이번 공연은 작년 주목을 받았던 뮤지컬 원효와는 차별화를 이룬다. 뮤지컬 '원효'가 원효 대사를 원톱으로 했다면 '쌍화별곡'은 원효와 의상 두 명의 주인공이 주축이 되어 함께 극을 이끌어간다. 공연은 젊고 매력적인 '원효'와 '의상' 등 시대를 풍미했던 두 주인공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공연은 우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내전의 시기, 시대의 지성이었던 두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그린다. 당시 신라는 종교와 생활 그리고 학문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다.

그리고 여기 고난의 시대를 견디는 민중을 끌어안으려 했던 시대의 두 지성, 원효와 의상이 있다. 작품은 이들이 걸어간 길을 통해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다.

불교방송 박원식 보도위원 겸 뮤지컬 팀장은 "뮤지컬 '원효'보다는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강화하고 선묘 낭자의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극적 흐름과 더불어 음악성을 강조해 대중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뮤지컬 쌍화별곡 포스터

원효 의상 두 주인공 통해
인류 구원의 메시지 전해
뮤지컬 원효와 차별화 꾀해
한중수교 중국 기념공연 진행

국내 최고 제작진이 모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뮤지컬 '모차르트' '햄릿' '몬테크리스토' 등을 통해 해외 크리에이브팀으로부터 최정상 안무가임을 인정받은 이란영이 생애 첫 연출과 안무를 함께 맡는다.

더불어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늑대의 유혹' '피맛골 연가' 등의 작품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음악을 선사한다. 뮤지컬 배우가 뽑은 최고의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는 장소영 작곡가가 음악을 맡았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송쓰루 뮤지컬!'이라는 슬로건답게 이번 공연은 음악에 큰 비중을 뒀다. 11인조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총 24 곡의 창작곡들을 연주해 음악을 따라가는 뮤지컬을 지향한다.

서울 초연에 이어 대구와 부산 등 국내 공연을 마치고, 10월에는 중국에서 공연된다. 이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선정한 한-중 수교 20주년 공식 기념사업으로, 그간 수교 기념사업 가운데서 중국에서 선보이는 유일한 대극장 창작 뮤지컬이다.


불교방송과 조계종이 만든 '쌍화별곡'이 9월 11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중국 등을 순회하며 대중들을 찾아나선다. 사진은 주요배역 출연진들.

이밖에도 김다현, 정선아, 김호영, 박완, 김순택, 정영주 출연 등의 국내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천년전 신라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펼쳐줄 것이다. 특히, 원효 역을 맡은 김다현은 따뜻한 감성과 부드러운 열정의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지금까지 뮤지컬 '라카지' '서편제' '돈주앙' '라디오스타' 드라마 SBS '무사 백동수' 등에 출연했고 1999 야다 1집 'Wear To Healing YADA' 음반을 출시한 바 있으며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신인상을 수상했다. (02)705-5302

정혜숙 기자

피에타… 예수 안은 부처를 만나다

조각가 박상희 개인전

로마 산피에트로대성당 입구에 위치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본 이라면 그 경건하면서도 애처로운 모습에 알 수 없는 감동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다. 불자라면 자비라는 말에 한번쯤 다시 이 작품에 눈길을 줄 것이다. 은혜가 아니라 자비라니. 그렇다. 종교란 형식과 외형적 의식을 떠나 지향하는 바는 하나일 것이다. 바로 인간의 행복과 안녕. 이 단어를 간과해서도 안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종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지 모른다.

하지만 종교가 세상과 결탁하고 세속화되면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자비 혹은 은혜라는 말은 어느새 그 본래의 의미는 왜곡되어버리고 민중을 괴롭히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는지 모른다. 박상희 작가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을 작품에 반영고자 했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인류 종교에 대한 염원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22일부터 갤러리 도스서
평화 공존 메시지 전해

조각가 박상희의 개인전이 8월 22~ 9월 4일까지 갤러리 도스에서 열린다. 성모 마리아가 아닌 반가사유상의 모습을 한 우윳빛깔 부처님이 예수를 안고 있는 그의 작품 '피에타'는 가장 파격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종교의 벽을 허문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박 작가는 종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손을 모으면 마음이 경건해진다. 그래서인지 사찰 법당이나 교회에서는 내가 착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 기도하던 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쥐면 어느새 나는 초식성에서 육식성으로 바뀌는 듯한 정서적 변이를 느낀다"

이런 작가는 인류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해석하고 이 시대 어떻게 종교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며 작업에 임했다고 말한다. "종교는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종교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폭력과 권위를 앞세운 종교는 서로 대립과 마찰 투쟁을 해왔다. 공존 평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나무와 브론즈 철과 사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그는 '피에타'를 비롯해 '화중생련' '아몬드꽃' 등 10 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박상희 작가는 서울대 조소과 졸업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중앙대 대학원에서 강사를 역임하고 있다.


종교의 평화와 공존을 담은 박상희의 '피에타'

국내는 물론 프랑스와 러시아 등 국내외에서 12번의 개인전과 140여 차례의 그룹전 및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동아미술상,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02)737-4678

정혜숙 기자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여름 산사 추억

보이지 않는 것들은 향기를 풍긴다



강은교
시인

보이지 않는 것들은 향기를 풍긴다. 벌레소리, 어디선가 달려드는 나뭇잎 소리, 낯모르는 새들의 날개 부비는 소리, 어느 집에선가 불현듯 들려오는 도마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하나….

지난 여름 나는 어느 절에 갔었다. 마침 그 절에는 종루가 있었는데 대개의 종루들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거기의 것은 그렇지 않았다. 종루 한 쪽,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 쪽은 울타리가 없었다. 나는 그 계단으로 가만히 올라가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종을 좀 더 자세히 구경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계단을 다 올라서서 종을 자세히 보게 되자 나에게는 종을 한 번 만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슬쩍 만져 보았다.

슬쩍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종의 표면을 한 번 긁어 보았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렸다. 슬쩍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 그러자 나에게는 종을 한 번 쳐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옆에 달려있는 종채를 슬쩍 움직여 보았다. 아주 은은한 종의 목소리가 울렸다. 살짝 한 번 더 울려보았다. 세상이 다 그리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종소리. 누군가 잡아끄는 바람에 곧 그 종루를 내려오고 말았지만, 그 종소리 위로 밟고 가고 싶은 그런 은은한 욕망이 내 등뒤에서는 계속 흐르고 있었다.

"겸손이 '겸손한 체' 하는 것을 알아버렸나 봅니다 마음을 낮추어야지요."

"차 향기가 입속을 돌게 하는 요령 없을까요? 그저 마시면 됩니다 마음을 없애세요"

종루를 다 내려와 절의 조용한 방들을 발걸음을 죽이고 지나오는데 한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쳐야 할 때 쳐야지"

나는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렇다. "쳐야 할 때 쳐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종소리에서는 얼마나 향기가 일어서 올 것인가"

향기, 하고 중얼거리니 어느 날의 그림 한 장이 떠오른다. 그림 속은 한없이 조용하다. 한 스님과 내가 서 있다.

"회감이 영 안 됩니다. 차를 마셔도 차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는 마시는 게 아니다, 머금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게 영 안 됩니다. 머금으려 해도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목구멍을 꼴각 하고 넘어가버려서 그런지, 회감하지 못한 차에선 전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가 입 속에 가득 돌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향기가 돌게 할까요?"

"글쎄요?"

스님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심히 부끄럽지만, 다시 한 번 말한다.

"노력은 하는데요, 영 머금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머금어지겠습니까?"



그림 · 강병호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은데요?"

"생각과 말이 소란스럽게 앞서서 그렇습니다."

"저는 늘 뒤에 말없이 서있는 편이고 성품이 조용하다고 하는데요"

"욕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욕망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는 오히려 욕망은 생산하는 힘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요? 하하 너무 똑똑하셔서 그렇군요. 지식은 곧 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 똑똑하지도 않고, 지식이 높지도 않고, 아니 저는 오히려 바보같습니다. 남들은 항상 저보다 먼저 가지요. 저는 남들 하는 것을 영 못 따라 갑니다. '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생각해 늘 채찔질하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게 아닌가요?"

"너무 겸손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겸손하다니요? 겸손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까?"

"겸손이 '겸손한 체' 하는 것을 알아버렸나 봅니다. 마음을 낮추어야지요. 말이 아니라"

"스님,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튼 차 향기가 입 속을 돌게 하는 무슨 요령 같은 게 없을까요?"

"허 글쎄요, 아직도 요령을 찾으시다니, '그저 마시면' 됩니다. 향기를 맡아야 한다고 마음을 강요하면 향기가 올 수 없지요. 마음을 없애세요"

"마음을 어떻게 없애지요?"

그러고 보니 이 거리엔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이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향기를 피해 피냄새를 풍기고 있다.

흑백 사진으로 만나는 20세기 예술가들

육명심 사진전 광주 롯데 갤러리서

20세기를 살아온 대표적 문인, 미술인, 음악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 사진계의 원로 육명심 작가의 사진전이 광주롯데갤러리에서 8월 21일~9월 3일까지 열린다.

육 작가는 1960년대 말부터 문인의 초상 작업을 시작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인간적인 면모, 갈등과 고뇌,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담아내왔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긴듯한 소설가 박경리, 담배꽁초 수북이 담긴 재떨이 앞에 팔베개 하고 누운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외수 작가, 자유로운 몸짓의 중광스님, 촌로 같이 쭈그리고 앉아 앞을 응시하는 서정주 시인의 모습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한다. 사진도 그런 것 같다. 특히 기록성을 바탕으로 한 사진이 더욱 그렇다. 이 사진들은 찍은 지 거의 대부분 30년에서 40년이 넘었고 십분의 일 가량이 그 후에 보충 촬영한 것들이다"

그가 만난 지인들 중 중광 스님과의 사연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일화 중 하나다. 1970년대 후반 스님을 만나 찍은 사진을 잡지에 발표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조계종 총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다. 작가는 스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스님을 처음 만나보니 기인(奇人) 이전에 아주 걸물이고 대자유인이었다. 둘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1980년대 이후 스님은 매스컴을 타면서 갑자기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그 까닭을 물었다. 이제 만인에게 크게 알려져서 가까이 가면 나는 꼼짝없이 엑스트라 밖에는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한 문학잡지에 실린 서정주 시인의 사진도 인상 깊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거장 사진을 시골 촌부 같이 찍었냐고 한마디씩 했는데 서정주 시인은 정작 그 사진을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중광 스님 서정주 이외수 등 대표 예술인들 앵글에 담아

"서정주 시인은 그 동안 신문이나 잡지기자들이 숱하게 자기 사진을 찍었지만 내가 찍은 사진이 단연코 최고라 했다. 심지어는 붓글씨로 본인이 직접 시 한 편씨 줄 테니 내 사진하고 맞바꾸자는 제의를 했고 나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다"

시대를 풍미한 작가의 삶을 기록한 육 작가는 광주 첫 전시를 기념해 8월 30일 오후 2시에 '작가와의 만남'도 가진다. 이를 통해 원로 사진작가가 걸어온 길과 사진세계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62)221-180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색에 잠긴 '박경리' 작가의 모습

생명의 세계에서 피워낸 연꽃

연꽃 화가 강명순 展 27일까지 제주 법화사서

연꽃 화가 강명순 씨가 8월 27일까지 '태양을 머금은 연꽃' 展을 제주 법화사에서 연다. 법화사 구품연지 갤러리에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하늘과 바람과 흙과 물 등 생명 세계의 축소판인 연못의 모습을 담았다.

'눈부신 열정' '구하루 연못에 머물렀구나' '태양을 머금은 연꽃' '바람이 스치는 황색 연꽃' 등 연꽃을 주제로 한 30여 작품이 선뵌다.

고고한 자태의 연꽃은 작가의 마음 깊은 곳을 거친 심안의 꽃이다.

강 씨는 한지 캔버스 위에 황갈색 붉은색 청색을 바탕에 검은색, 보라색, 은백색의 연꽃을 피워냈다. 연꽃은 온 세상을 다 지닌듯한 꽃망울로도 존재하고, 춤을 추듯 활짝 피어있기도 하다.

강 씨는 "제주의 바람과 비움의 마음이 더해져 연꽃에 비쳐진다면 황갈색톤이 아닐까한다.

이번 전시에는 황색의 붉디붉은 열정을 담아 눈부신 고요와 정적에 마음을 담았다. 보석처럼 빛나는 자연의 미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말한다.

작가는 연꽃을 그리는 과정을 온갖 번뇌와 망상을 떨쳐 버리는 수행자의 삶과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일종의 고행이며 그 결과물은 환희다.



바람이 스치는 황색 연꽃. 강명순 作

"나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도 초지일관하여 늘 행복하고 당당하고 지혜롭고 또 자비로워야 한다는 교훈을 연꽃이 피고 지는 그 장엄함 속에서 배운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연꽃에서 피워냈기에 생을 다할 때까지 연꽃을 그릴 생각이다"

햇살머금은 연꽃의 자태는 화폭에서 화려하면서도 성스러운 자태를 뽐어낸다. 이런 작가의 노고는 중생들에게 근심 걱정을 녹이며 마음의 평화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02)738-522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사라진 '터'에서 사라진 것들을 생각해 내다



돌들이 끄덕였는가, 꽃들이 흔들렸다네
이지누 지음
알마 펴냄
2만2천원


호성암터의 마애불은 큰바위 가운데에 새겨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묘하게도 전라북도의 폐사지를 돌아볼 때는 다른 여느 지방의 순례와는 또 다른 기분에 휩싸인다. 더욱 쓸쓸하기도 하고 깊은 고독에 휩싸여 말을 잃기도 한다. 그것은 전라북도의 폐사지가 뿜어내는 치명적인 매력이다. 그렇기에 더욱이 자신을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라북도 폐사지의 분위기가 그러한 것은 폐사지에 떠돌고 있는 사연들 때문일 것이다." 전라북도의 절터 여덟 곳을 답사한 책이다. 1권 '전남' 편 〈마음과 짝하지 마라, 자칫 그에게 속으리라〉에 이은 2권이다.

답사는 남원 만복사터에서 시작해 남원 개령암터와 호성암터, 완주 경복사터와 보광사터, 고창 동불암터 그리고 부안 불사의방터와 원효굴터로 이어진다. 저자는 시적인 감상으로 때로는 설화와 전설, 민담으로, 역사적 사료를 통해 절이 사라진 절터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단순한 관찰자나 보고자가 아닌 순례자의 시선으로 옛 절터의 진면목을 찾아보여준다. 절터는 버려진 장소다. 그 옛날에는 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터'일 뿐이다. '있었던' 곳이다. '있었던' 곳에 지나지 않는, 차라리 없었던 것보다 못한 아쉬움의 장소인 그 곳에서 저자는 '터'만이 가지고 있는 '고요'를 찾아낸다. 인간 위주의 생각에서 벗어나 자연이 들려주는 현장의 소리에 주목한다. 저자는 이것이 부처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듯 폐사가 되어 절의 흔적이 가뭇해지고 나면, 절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처님 머문 자리에서 풀과 나무가 지라고 물이 고이는가 하면 목탁과 염불 그리고 풍경과 범종 소리쯤은 앨범에 끼워 책장에 끼워두거나 서랍 속에 넣고 다닐 필요가 있다. 절터를 에워 싼 채 머무는 자연의 소리는 부처님의 법어와 동격이기 때문이다. 이 순정한 새벽의 맑은 새소리 한 줌이 어찌 청량한 부처님의 말씀보다 못하겠는가." 저자는 터가 내놓는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절터에서 찾아낸 고요 속에서는 전라북도만의 독특한 미륵사상을 본다. 전라북도의 미륵신앙은 지장보살 신앙과 결합되어 있다. 미륵은 현세에서 구원받지 못한 중생들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의 구원을 바라며 복을 비는 부처를 말하고, 지장신앙의 근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참회한다는 것이다. 즉 전라북도의 미륵사상은 '참회를 통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라북도 절터의 고요는 순례자인 저자에게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회의 시간을 마련해 준 것 같다. 유독 이번 책에서 저자 스스로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를 많이 밝히고 있다.

사라진 절터에서 부처님 법문 들어
원효굴터편 '우금암도' 오류 찾아내

"강세황은 어디에서 우금암을 본 것인가." 책의 8장 부안 원효굴터 편에서는 답사정신의 백미를 볼 수 있다. 저자는 원효굴이 있는 우금암 근방을 샅샅이 돌아보며, 조선 후기의 유학자이자 화가인 표암 강세황(1713~1791)의 그림 '우금암도'에 대해 철저히 비교한다. 강세황의 그림을 보면 개암사 뒤편의 우금암 봉우리가 셋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봉우리들의 높이는 왼쪽이 가장 높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낮아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 최고의 화가가 그린 우금암의 모습은 저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과는 달랐다. 봉우리는 두 개였으며 높이도 오른쪽의 동봉이 높았다. 저자는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우금암을 보았다고 한다. 강세황의 '우금암도'와 일치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의 답사정신은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 바로 '遇金嵓(우금암)'이라고 하는 각자(刻字)의 발견이다. 우금암 근방을 골골샅샅 조사하던 저자는 원효방을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 근처에서 이 각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는 국내 관련 학계 어느 자료에도 보고되지 않아 그 존재를 알 수 없던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유적을 발견하는 한편, 우금암의 주봉이 서봉이 아니라 동봉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마련 된 것이다. 물론 이런 인문학적인 성과만이 절터의 전부는 아니다. 절터는 깊고 넓다. 위에서 소개한 작업이 절터의 깊이라면, 저자가 소개하는 시와 소설은 절터의 넓이다. 불자와 유자들의 시는 물론,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에서 〈혼불〉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절터를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터'에서 사라진 것들을 바라보는 저자의 안타까운 시선과 소생의 염원을 느끼게 한다. 미륵을 기다렸던 전라북도의 절터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좌선의 모든 것

좌선

종달 이희익 지음 | 본북 펴냄 | 8천8백원



처음으로 좌선을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다. 선(禪)의 의미에서부터 바른 자세와 호흡법, 숫자 세며 호흡하는 수식관(數息觀), 공안을 참구하는 방법, 입실점검 과정 등이 사진, 삽화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인류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좌선은 최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음 관리와 치유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과학과 의학, 교육계의 관심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그 영역을 확산하는 분위기다.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세상을 열었던 미국의 기업 애플사의 前 CEO인 스티브잡스는 젊은 시절부터 동양사상, 특히 선불교와 깨달음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은 좌선의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매일 타는 자동차, 버스, 전철에서의 수행은 물론 좌선이라는 기초적인 훈련에 의한 정신집중의 힘을 일상생활에서도 응용 활용할 수 있는 생활선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 선(禪)이 들어온 것은 신라 진덕여왕 때 법랑 선사가 서기 650년 중국 선종의 제4조 도신 선사의 법을 받아온 때부터이다. 한 때 선도울흥(禪道蔚興)의 시대라 하여 약 200

좌선의 의미부터 응용까지 망라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여 년간 그야말로 선이 활짝 꽃피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때 제작된 빼어난 문화재를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듯이 선을 바탕으로 고도의 정신문화가 창조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선이 사물과 하나가 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며 "선은 바로 잃어버린 참자기를 되찾는 수행이다. 그런데 올바르게 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흉내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좌선은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초심자를 위하여 요점만 골라 뽑아 참고가 되도록 했으니 몇 번이고 정독하여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석가세존의 호흡법', '수세며 호흡하기', '좌선하는 법', '공안 참구', '견성-공안 타파', '생활선'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초심자를 위한 책인 동시에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초심자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요점과 정수만을 골라 길잡이가 되도록 했다. 몇 번이고 정독하고, 본인이 직접 실참실수(實參實修)하여 실천한다면 누구라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8~8/1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현	불광출판사
7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8	산사는 깊다	지안	불광출판사
9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마음의숲
10	해탈장엄론	감뽀빠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그림으로 쓰고 시로 그린 임효의 그림 에세이

그림 속에 놀다

글 그림 임효 | 나무생각 펴냄 | 1만2천원



붉은 꽃 한 송이가 벽 속에 갇혀있다. "우리네 가슴엔 벽이 있습니다. 꽃내음조차 흐르지 못할 벽이 있습니다." 한국의 혼을 그려온 화가 임효의 그림 에세이다. 이번 책은 작가가 그림을 시작한 이후 그림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갈등, 욕망, 사랑, 등을 시와 산문과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먹 한 번 지나간 길에 꽃 한 송이 피어난다. "즐겁던 한 시절 자취 없이 가버리고 / 시름에 묻힌 몸이 덧없이 늙었어라 / 한 끼 밥 짓는 동안 더 기다려 무엇하리 / 인간사 꿈결인 줄 내 이제 알았네" 그림은 글을 바라보고 있고, 글은 그림을 읽고 있다. 책 속엔 우물이 있고 떨어질 수 없는 벼랑이 있고 그 벼랑엔 소나무가 서있다. 하늘이 만든 달. 달이 만든 하늘. 따끈한 차 한 잔엔 짝사랑이 담겨 있고, 먹 한 점은 먹구름, 책 속에 비가 내린다. 작가는 하늘을 보며 얻은 영감으로 자연 속의 생명을 그려낸다. 이번 책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굴레 사이에서 생활인의 짐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보여준다. 그림의 묵직함과 진지함 뒤에 숨어 있는 감성적인 시와 해학적인 산문에서 작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긴 작품생활의 여정 속에서 자신과 교감하고, 대상과 교감하고, 사람들과 교감하며 소통하는 삶, 작가는 그 에너지를 글과 그림을 통해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싶어 한다. "그림이 되었든 글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채워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을 때는 메모지나 수첩에 낙서하듯 다 표현하지 못한 감성의 부스러기를 써내려가고는 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모인 글들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림을 그릴 때는 현상과 상황을 중시하며 화면 속에 녹아든다. 그림의 이야기는 내가 되고 나는 그림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그림 속에 놀다 돌아온 시간에 쓰기 시작한 글들이다."고 작가는 말한다.

채우고 비우고, 다시 채워 가는 과정, 그것이 임효의 그림이고 삶이다.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철마다 다르게 피어나는 꽃,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 가없이 우뚝 서 있는 소나무들은 언제나 작가에게 영감이 되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작가는 자연의 선물 하나 하나를 그림으로 그리다가 돌아와 시를 쓰고 산문을 썼다. 그림의 여백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시어들과 시어들의 의미를 더욱 진하게 채색하는 그림들. 임효의 그림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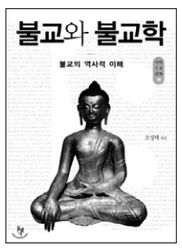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20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20권 출간!
설봉선사, 암두선사, 고정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선사의 법어와 선문답 최초 해설
백장록 강설
원오스님 역해
신국판 | 흑백 | 528쪽
20,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선교회통(禪敎會通) 이룬 유일한 선어록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으로 언하대오를!
그동안 혜능, 마조, 임제, 조주선사 등의 선어록은 해설본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백장선사의 어록이 강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 원오스님은 당신의 공부와 깨침을 바탕으로 번뜩이는 지혜와 유머가 가득한 선문답을 원문의 깊은 뜻과 멋을 살려 흥미롭게 도움말(보설)을 주고 있다. 특히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의 마음공부(無爲法)를 독자적으로 드러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유럽적 해석 등장으로 근대불교학 탄생



불교와 불교학
조성택 지음
돌베개 펴냄
1만5천원

"근대 이전 우리에게 불교는 있었지만 불교학은 없었다. 불교학은 근대의 산물이다."

근대 이전에는 다양한 지역 전통의 '여러 불교'(buddhisms)를 조감해서 '하나의 역사'로 이해하지 않았다.

이 작업은 19세기 중반 이후 전통적 불교 문화권을 식민지로 경영하던 유럽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붓다를 역사적 '인간'으로 되돌려 놓고 사라진 '불교'를 고대 사회로 소급해 역사적 실체로서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종교학, 고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화와 역사가 혼재한 불교가 비로소 '역사'로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교 사상과 교리에 대한 '유럽적 해석'이 등장한 이른바 근대 불교학의 탄생이다.

불교에 대한 '유럽적 해석'은 '불교학'(Buddhist Studies)의 이름으로, 그리고 '근대 학문'의 한 상징으로 20세기 초 일본을 기점으로 동양에 역수입됐다. 오늘날 불교와 불교사에 대한 우리의 인문 교양적 지식 대부분은 유럽서 수입된 근대 불교학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불교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지만, 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유럽에 의한 근대 산물인 셈이다.

이런 근대 불교학을 통해 고대 불교사를 재구성하고 다양한 불교 전통 형성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상당한 수준까지 조감하는 시야가 확보됐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대 불교학은 태생적으로 식민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유럽인들에게 불교는 동양의 타자(他者)며, 현재가 아닌 과거다.

또한 근대 유럽이 재구성한 초기 불교사는 철저한 문헌 비평과 문헌 실증주의에 기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유럽적 상상력과 암묵적 전제들에 바탕을 둔

20세기초 일본 기점 역수입
조선, 1924년 백성욱 박사가 소개
근대불교 친일 편향 시각 지적

것이었다.

저자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균열을 드러내 보임으로서 새 '상상'의 가능을 열어놓는다. 근대 불교학이 초기 불교사 출발점이자 결론으로 상정하는 것은 불교가 단일 교단서 출발해 여러 교단으로 분열됐으며, 경전 역시 단일 텍스트로부터 다양한 텍스트로 분화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 기독교와 그 후 전개과정에 대한 당시 유럽인들의 역사적 이해를 그대로 불교사에 투사한 것이다. 또한 베다 문헌을 구전 전승한 브라만교 전통이 초기 불교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을 거란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붓다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다양한 지방어를 통해 전달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특정한 경전 언어의 배타적 사용을 거부했다.

근대 불교학은 유럽서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전 불교권에 미쳤다. 일본은 1876년 난죠 분유(南條文雄)와 가사하라 겐주(笠原研壽)가 옥스퍼드대학에 유학해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은 산스크리트어 불전 연구를 위해 서구에 지속적으로 유학생을 파견했다. 조선의 경우에도 192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백성욱이 유럽의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경전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프랑스에 유학했던 김법린은 1932년 산스크리트어 원전 연구를 바탕으로 원전 번역을 연재했으며 프랑스의 불교학 동향을 소개했다.



저자인 고려대 조성택 교수 강연 모습.

이들 동양의 불교 지식인들은 근대 불교학의 성과에 일방적으로 압도되었으며, 근대 불교학을 통해 비로소 불교를 '근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불교는 당시 기독교와 대척점으로 여겨지던 과학, 이성, 철학 등과 아무런 모순 없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교는 '전통'이지만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한, 중, 일 삼국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근대 불교'를 기획하였으며, 이는 동아시아 근대 불교를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1895년 비로소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얻은 조선 불교인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유용성을 증명하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했다. 승려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과 과정에 철학, 종교학, 역사학 등 근대 학문을 포함시켰다. 당시 활발한 선교활동을 시작한 기독교와 일본 불교의 포교 활동에 자극 받아 병원 설립, 교도소 포교 같은 근대 복지 사업을 시행 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스스로의 전통을 부정하는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해 스님의 염불당 폐지나 대처식육(帶妻食肉) 같은 주장은 그 대표적 예다. 만해 스님의 이런 주장을 지나치게 조선 불교의 왜색 불교화라는 관점서 바라보는 것은 그가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저자는 근대 불교를 항일-친일의 도식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편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근대 불교사 전체를 '항일 민족의식'과 '전통 수호를 통한 한국 불교의 정체성 확립' 과정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현재 한국 불교 최대의 종단인 조계종의 성립을 한국 근대 불교의 완성으로 보고자 하는 일종의 '목적론'적 역사 기술이다. 저자는 한국 근대 불교사의 전체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딜레마'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상천하로 부처행하며 살자"

백장록 강설

원오스님 역해 | 비움과 소통 펴냄 | 2만원



백장(百丈)스님의 휘(諱)는 회해(悔海: 749~814)이며 중국 복주 장락 출신이다.

선종 수행가풍을 실질적으로 확립한 백장 스님 어록은 일찍부터 독립된 본이 있었다. 〈조당집(祖堂集)〉에 의하면, "문도 신행과 범운이 법어를 결집해 어본(語本)을 편집했는데, 오늘날 어본이 후학들에게 유행되고 있다"고 한 탑명(塔銘) 내용에서 문도들이 모은 어록이 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백장 스님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한마디는 지금도 유명한 어록이 됐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에는 어록(語錄)과 광록(廣錄)을 구분하여 싣고 있는데, 광록은 다른 어록과는 달리 긴 자설(自說)의 법문형식으로서 교학적인 배경이 두텁다. 법문은 양변(兩邊)을 떠난 중도(中道)에 입각해 있고, 그 중에서도 대승입도 돈오법은 스님의 대승법문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스님의 제자로서 〈전등록(傳燈錄)〉에서 말하듯이 위산과 황벽 두 스님이 중요하다.

위산스님은 그 제자인 앙산 스님과 함께 위앙종의 종조가 되고, 황벽 스님은 임제(臨濟)스님을 배출하여 임제종의 원류가 된다. 즉 5가 종파에서 최초의 두 파가 백장스님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백장스님 이후, 선원(禪院)은 생활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율원(律院)등에 속해 있던 선원이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고, 상당(上堂)하여 공개 설법하는 설법당(說法堂)이 마련됐다.

또한 대중 운력이나 10가지 소임 등 선원 생활을 규율하는 청규가 백장 스님에서부터 발달하게 됐다. 이렇게 엄격한 규율과 대중 운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폐불 속에서도 선문(禪門)이 살아남을 수 있던 점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백장 선사의 대중 법문과 선문답을 최초로 해설한 책이다. 그동안 혜능선사, 마조선사, 임제선사, 조주선사 등의 선어록은 국내외서 해설본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백장선사 어록 강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해자인 원오 스님은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번뜩이는 지혜와 유머가 가득한 선문답을 원문의 깊은 뜻과 멋을 살려 흥미롭게 도움말(보설)을 주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간화선 뿌리인 조사선의 마음공부를 드러낸 점도 특징이다. 조사스님이나 선사가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설법이나 문답, 행위, 고함치기(할) 등으로 수행자에게 제시했을 때 이를 단박에 깨닫는 것을 '언하대오(言下大悟)'라 한다. 사람의 본심을 곧바로 일러주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가르침을 받고 곧바로 깨달으면 조사선으로 깨달은 것이요, 그 법문서 알아차리지 못해 화두로 삼아 참구하는 것은 간화선 공부라고 한다.

알다시피, 조사선의 시작은 육조 혜능(639-713) 선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선을 확립해 구체화시킨 사람은 혜능의 손제자인 마조도일(709-788) 선사이다. 조사선은 마조도일에 의하여 대성되었는데 그후 그의 제자 백장, 황벽, 임제 선사 등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백장선사 법어와 선문답 해설
'一日不作 一日不食' 청규 확립
'선교회통(禪敎會通)'의 선어록

마조 스님 제자 백장 스님이 백장산에 백장사를 지어 율원에 속하던, 선원(禪院)을 독립해 총림(叢林)이 되었으며, 〈백장청규(百丈淸規)〉를 지어 독립된 총림을 세워, 조사선을 확립, 자립자족 수행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만들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수행하는 평상선과 여래선을 주축으로 수행체제를 확립해 주경야독을 이뤄 이때부터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란 말이 알려졌다. 세속이나 출세간이 하나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수행이요, 수도이며, 평상행이 바로 불타행이며 부처행이며, 사람이 바로 부처라고 가르쳤다.

이를 바탕으로 백장 스님은 선의 지침인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의 근본대의(根本大義)를 허물지 않으며, 교법(敎法)을 통해 선(禪)을 구현한 선어록(禪語錄)을 남겼다. 그 오묘한 진리가 바로 이 책에 상세히 해설돼 있다.

김주일 기자

마음이 지닌 치유의 가이드라인 제시

자기치유

조순희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우리들은 흔히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을 혼용해 사용한다. 사전에서조차도 그렇다. 하지만 한자의 뜻에서만 그나마 '치료'란 병 고칠 '료(療)'로 설명하고 '치유'란 병 스스로 나을 '유(癒)'라는 설명으로 되어 있다.

병의 완치는 사실 환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95%이고, 나머지 5%만이 의사나 주변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다. 식생활, 운동, 마음가짐 등이 바로 그 것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자신의 마음과 의지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질병의 80% 이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사망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과 심혈관계질환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스트레스에 따른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트레스 경고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예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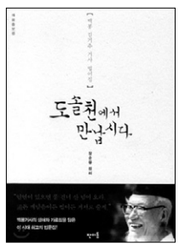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바깥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몸 안의 지혜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 준다. 이 책은 바로 그 지혜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 소개된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을 보면 불교의 명상이 얼마나 자기 치유에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마음 한 번 바꾸자' '자주 웃자' '용서하자' 등이 자기 치유 할 수 있는 비결들이다.

김주일 기자

백봉거사 법문집 개정증보판 펴내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정리 | 판미동 펴냄 | 1만5천원



출가하지 않은 재야 불교인으로서 선지식 반열에 올라 한국 불교계에 거사풍(居士風) 불교 지도자로 명성을 떨친 백봉 김기추 거사. 그의 대표적인 법어집 〈도솔천에서 만납시다〉가 판미동에서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96년 출간된 초판에 일부 원고를 추가해 개정증보판으로 펴낸 것이다.

백봉 거사는 〈금강경강송〉 〈유마경대강론〉 〈절대성과 상대성〉 〈선문염송요론〉 등 여러 저서를 남겼다. 약 300여 개의 그의 설법 녹음 테이프는 여전히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생생한 설법을 전해 주고 있다. 〈도솔천에서 만납시다〉는 그 테이프에서 추출한 백봉 거사의 거침없는 화법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특히 실린 글은 20여 년간 이루어진 백봉 거사 법문 중 일부를 가려 뽑은 것이다. 법문의 특징은 백봉 거사가 종지(宗旨)를 세운 소위 거사풍(居士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먼저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이 본래 우뚝스리 홀로 존귀한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무상(無相)의 법신(法身)이 유상(有相)의 색신(色身)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나서 화두를 지니게 하는 것'이 거사풍의 요체다. 따라서 백봉 거사가 쓰는 방편도 대체로 학인들이 올바른 견처(見處)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을 유의해 열린 가슴으로 간절히 귀 기울인다면 백봉 거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 도 모 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탁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각자님 환영합니다.

일월조계종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종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종비 없습니다.
- 출가 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 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경흥이 미륵신앙을 유식으로 푼 까닭은?

원효설 취사…독자적 사유 지평 열어

1. 문무왕의 '국사' 추천

경흥(憬興, 璟興)은 신라 문무왕(661~681)과 신문왕(681~192)대에 활동했던 고승이다. 그는 법상종계의 학승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저술목록을 일별하면 불교 전 방면에 걸쳐 깊은 천착을 보였다. 현존 저술을 중심으로 보면 경흥은 정토교학에도 깊은 관심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속성은 수씨(水氏)였으며 웅천주(熊川州) 사람이다. 경흥은 18세에 출가한 뒤 삼장(三藏)에 통달하여 명망이 매우 높았다. 벼슬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사를 따르는 자가 많아서 일시에 국가의 중추(中樞)가 되었다. 문무왕이 삼국통일 이후 개요(開耀) 원년(681)에 승하하려고 할 때 태자 신문(政明)을 향하여 "경흥법사는 국사로 모시는 것이 좋으니 짐의 명을 잊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고명(顧命)을 하였다. 신문왕이 즉위하자 곧 경흥을 국로(國老)로 봉하여 삼랑사(三郎寺)에 머물게 하였다.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왕 이래 신라는 불교의 신앙이 돈독하였다. 때문에 늘 고승을 왕실로 초대하여 법문 듣는 것을 주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하였다. 아울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國泰民安) 하는 법요를 듣고 닦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특히 왕은 지의(知義)법사가 측근에 머물며 담소 나누는 것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어느 날 왕은 왜구 침입을 염려하는 법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짐은 후세에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높이 받들고 국가를 수호하려고 하오." 지의는 "용의 축생보(畜生報)란 말씀은 웬일입니까?"라고 물었다. 왕은 다시 "만일 거친 업보를 얻는다면 용이 되는 것이 짐의 본래 마음(本懷)이오"라고 하였다. 문무왕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었던 만큼 경흥을 국사로 추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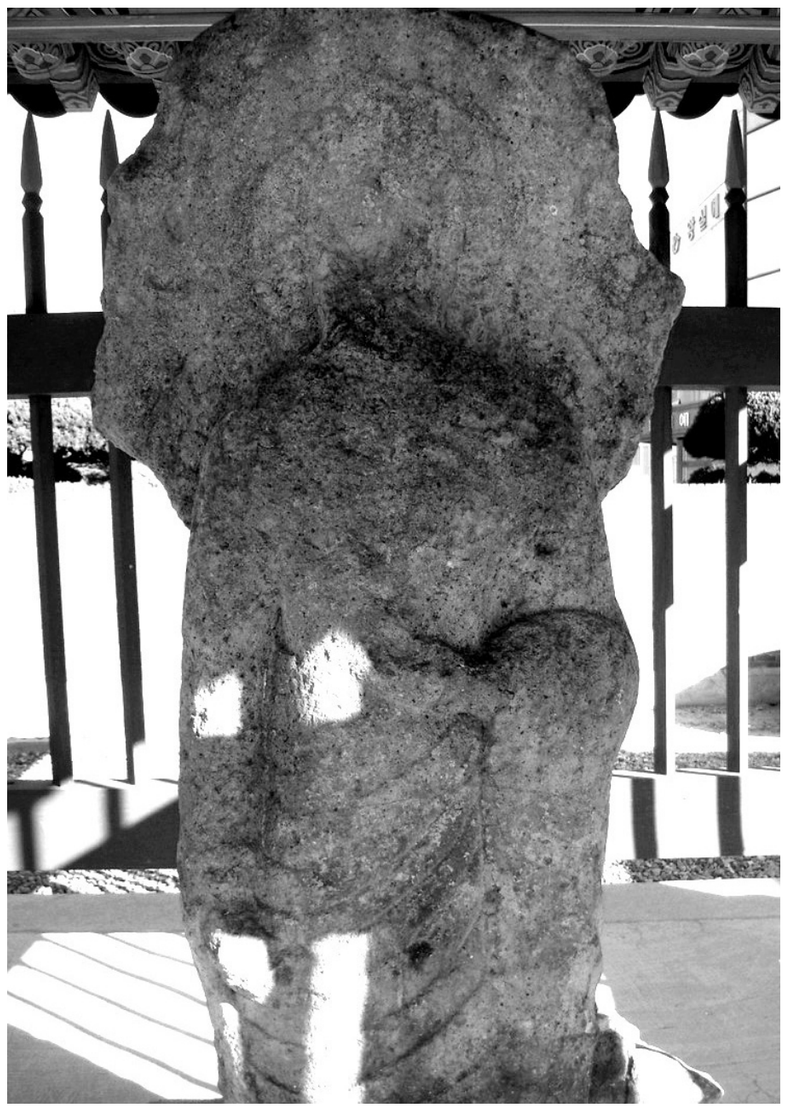
삼랑사에 머물던 경흥은 홀연히 병을 얻어 한 달 남짓동안 앓았다. 이때 한 여승이 찾아와 문병 하고 간호하는 제자와 법사를 향하여 말하였다. "법사는 불법(大法)을 깨쳐 얻었다고 하지만 사대(四大)가 임시로 화합하여 신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없을 수 없소. 병에는 사대로부터 생기는 네 종류가 있소. 첫째는 풍황담열(風黃痰熱)을 주로 하는 몸의 병(身病)이고, 둘째는 전광혼란(顚狂昏亂)을 주로 하는 마음의 병(心病)이며, 셋째는 칼과 몽둥이의 상처와 동작의 과로를 주로 하는 객병(客病)이고, 넷째는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 괴로움과 즐거움을 주로 하는 구유병(俱有病)이오. 그 밖에는 서로의 원인이 잇달아 일어나므로 하나의 요소(一大)가 조화롭지 않으면 백 가지 병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오. 이제 법사의 병은 근심과 수고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약재(藥石)로 치료할 수 없으므로 기쁘게 즐기며 크게 웃으면 치유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어 그 여승은 『화엄경』 중 선우(善友) 원병(原病)의 이치를 설하고 그 자리에서 열 한 가지 모양의 가면을 만들어 각 면으로 익살스런(俳諧) 춤을 펼쳐내었다. 기이하고 괴상한 낯선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모두 턱이 빠질 정도로 크게 웃었다. 법사는 그의 괴상한 몸체와 기이한 자태를 보고 크게 기뻐하는 동안 병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게 치유되었다. 여승은 고요히 문을 나와 삼랑사 남쪽에 있는 남항사(南巷寺)의 불전에 들어가서 숨어 버렸다. 사람을 보내서 그 이를 추적하여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만 11면 관음보살상 앞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백의대사(白衣大士)인 관세음보살에게 친근하여 마음의 병을 치유한 것이었다.

2. 원효 학설의 취사 선택

삼국통일 이후 통일신라는 국력이 강해지고 문화가 확장되었다. 통일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의 에너지를 통합하면서 신진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웃의 당나라와 대발해 및 일본을 비롯하여 서역까지 교역 하였다. 인도와 서역 및 중국 불교 문헌들은 견당선을 통해 신속히 신라 지식인들에게 전달되었다. 번역된 지론(地論)과 섭론(攝論) 및 기신(起信)학과 긴밀한 구역

신라 불교 삼대 저술가 꼽혀
당유학하지 않고 큰 영향 발휘
국사로 삼랑사 주석하며 집필
약 40종 걸쳐 270여권 저술



경주 노서동 석불입상. 〈삼국유사〉에는 삼랑사 남쪽에 남항사(南巷寺)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석불입상이 있는 곳이 남항사로 추정되고 있다. 남항사는 경흥 스님의 병을 고친 11면 관음보살 전설이 있는 곳이다.

유식(舊譯唯識)과 신역 유식(新譯唯識)학의 논서들이 속속들이 입수되었다. 원효와 의상은 이들 전적들을 직접 보기 위해 당나라에 두 차례나 유학을 시도했었다. 견당선과 유학승들을 통해 들여온 불교 전적들을 기초로 신라의 불교학은 꽃을 피웠다. 특히 경흥은 원효(100여부 240여권)와 태현(52부 100여권)과 함께 신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삼대 저술가로 꼽혔다. 그의 저술은 현재 조사된 것만해도 대략 40종 270여권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방대한 저술량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것은 『무량수경연의술문찬』과 『삼미륵경소』 두 종에 지나지 않는다. 아쉽지만 우리는 이 두 저술을 통해 경흥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엿볼 수밖에 없다. 『삼미륵경소』는 미륵 6부경 가운데 3부경에 대한 주석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거기에는 『미륵상생경요간기』(彌勒上生經料簡記)와 『미륵하생경소』(彌勒下生經疏)와 『불설미륵성불경소』(佛說彌勒成佛經疏)가 실려 있다. 원효와 태현처럼 경흥은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았지만 그의 저술은 동아시아 삼국 불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유수 학자들 저술 속에서 경흥 학설을 인용할 정도로 그의 학덕은 널리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비조 친란(親鸞)은 경흥의 저술을 『무량수경술문찬』을 여러 차례 인용하여 논거로 삼고 있다.

경흥은 많은 부분을 원효의 설에 의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륵과 석존의 발심시기에 대해 경흥은 동시(同時)발심설과 전후(前後)발심설을 각기 부정(不定)발심과 결정(決定)발심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발심시기를 회통시켰다.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과 『현우경』에 설해진 파파리가(波婆利家)를 각기 생처(生處)로서의 파파리가와 양처(養處)로서의 파파리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다시 경흥은 원효에서 나아가 『화엄경』에 설한 구타취락(拘打聚落)도 양처(養處)로 이해하였다. 또 경흥은 미륵이 염부제에 하생할 당래세수(當來歲數)에 관한 논설에서 "이 경에서는 마땅히 염부제에서는 56억 7천만세로 센다고 이른다"는 대목에 대해 '7천'을 삭제하여 56억 만세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 미륵불의 수량에 대해서도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과의 대교(對校)를 통하여 "대성불경에서 수명이 6백 억세라 한다"로 한 것은 '6만세'의 잘못이라고 했다. 경흥은 미륵불의 당래세수를 셈하는데 있어서 규기(窺基)의 이 설에 전폭적으로 추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흥은 상품(上品)의 상한위(上限位)를 칠지(七地) 보살로 다루었으며, 용화삼회인(龍華三會人)을 상중하의 삼품인(三品人)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소승제자(小乘弟子)로만 다룬 원효와 달리 대승제자(大乘弟子)로도 다룬 것은 규기의 설과 상통하였다. 또 중품인을 위해 설한 것이 『상생경』이며, 하품인을 위해 설한 것이 『하생경』과 『성불경』이라는 길장(吉藏) 및 원효의 설과 달리 경흥은 『상생경』이 중품인 뿐만 아니라 상품인을 위해서도 설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상생경』은 대승장(大乘藏)에 소섭(所攝)시키고 다른 『하생경』과 『성불경』은 소승장(小乘藏)에 소섭시키는 길장과 원효와 달리 경흥은 이 세 경 모두를 대승과 소승 양 장(兩藏)에 소섭시켰다. 『상생경』의 서분(序分)을 분단(分段)함에 있어서 경흥은 원효설을 따르고 규기설을 논척하였다. 이처럼 경흥은 다수의 주장을 원효 학설에 의거하면서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독자적인 사유의 지평을 열었다.

3. 말을 타지 않은 경흥

『삼국유사』「감통」편에는 '경허우성' 조목이 실려 있다. 어느 날 경흥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자 시종들이 먼저 동문 밖에서 준비를 하였다. 말과 안장이 매우 화려하고 신과 갓도 매우 성대하였다. 때문에 길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피하였다. 이때 한 거사(사문이라고 함)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등에는 광주리를 지고 말에서 내릴 때 밟는 돌인 하마대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리 속을 보니 마른 물고기(枯魚)가 들어 있었다. 시종들이 꾸짖었다. "당신은

'경허우성' 조목서 일화 전해
나무 껍질 물고기보고 깨달음
평생 좋은말 타지 않고 무소유
수단이 옳지 않으면 문제 강조

장삼을 입고서 어찌 계율에 어긋나는 것을 지고 다니는가?" 거사가 말하였다. "두 다리 사이에 살은 들고기(馬, 生肉)를 끼고 다니는데 비하면, 시장의 마른 물고기를 진 것이 무엇이 흠이 되겠소." 거사는 말을 마치고 일어나서 가버렸다.

경흥이 문간을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사람을 시켜 따라가 보라 하였다. 거사는 남산 문수사(文殊寺)의 문밖에 이르러서 광주리를 버리고 사라졌다. 지팡이는 보살상 앞에 걸고 있는 광주리의 말린 물고기는 소나무 껍질이었다. 심부름 갔던 자가 돌아와 경흥에게 자세히 말하니 경흥이 듣고 탄식하였다. "문수보살이 오셔서 내가 말 타는 것을 경계하심이라." 일찍이 『보현장경』을 보니 미륵보살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내세에 염부제(閻浮提)에 출생하면 석가모니불의 말법 제자를 제도할 것이다. 다만 말 탄 비구는 제외하여 그들이 부처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가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뒤로 경흥은 종신토록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 경흥의 덕과 도의 멋은 승려 현본(玄本)이 지은 「삼랑사비」(三郎寺碑)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일연은 그의 조목 뒤에 다음과 같은 찬시를 덧붙였다. "보현경(普賢經)에 모범을 드리우신 많은 뜻 있건만/ 어찌하여 자손들은 갈고 닦을 줄 모르는가./ 등에 진 마른 물고기 오히려 가하다면/ 훗날 용화수에 불법 저버리면 어이하리." 본디 '찬'(讚)은 해당 조목이 밋밋하거나 부연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시인의 안목으로 경치(前景)나 일화(後事) 등을 덧붙여 형상화한 시이다. 이 때문에 찬은 '시'이며 '찬시'라고도 일컬어진다. 이 시에서처럼 앞의 두 구절은 미륵보살이 『보현장경』에서 모범을 드리우신 미륵보살의 원행에 견주어 자손들이 보다 더 갈고 닦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일연은 설사 경흥이 두 다리 사이에 살은 들고기를 끼고 다녔다 해서 거사의 등에 진 마른 물고기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륵보살은 말법시대에 제자를 제도할 것이라고 발원하지만, 말을 탄 비구는 제외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이다. 좋은 '말'을 탄다는 것은 오늘 날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일 것이다. 일연의 어법을 빌리면 무소유(공동소유)를 강조하는 불교가 중생 제도를 위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좋은 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옳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것은 마치 '두 다리 사이에 살은 들고기를 끼고 다니는' 경흥보다 '등에 마른 물고기를 지고가는' 거사가 오히려 옳다'고 한다면 훗날 용화수에서 불법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묻고 있다. 이것은 '목적'(警戒)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枯魚를 짐)이 옳지 않으면 모두가 문제라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경흥 자신은 문수보살의 경계를 받아들여 더 이상 말을 타지 않았다. 이처럼 경흥은 '관음보살'의 화신인 '여승의 보호'와 '문수보살의 화신'인 '거사의 경계'를 함께 받았을 정도로 법력을 갖추었던 고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조명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1962; 경서원, 1980).
안계현, 「한국불교사상사연구」(동국대출판부, 1983).
김영태, 『한국불교 고전 명저의 세계』(민족사, 1994).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낼 때는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라. " 첫째, 들추려는 잘못이 사실인지 확인하라.
둘째, 시기가 적절한지 살펴라. 셋째, 이치가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부드럽고 조용하며 시끄럽게 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내지 않아야 한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초 능 력 개 발
초능력 개발 비법 전수
– 초능력 개발사업 하실 분에 한함
– 신내림에 실패하신 분에 한함
오십견 치료 (1~5회 완치)
치료비법전수
010-5822-076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당 유무선 마이크
설치될 법당에서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가능합니다.
도시형 100만원 전후
전통목조사찰 200만원대
특허등록업체 한성음향
010-4440-8687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육임은 神視입니다. 신을
잘못 받아서 헤매이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십시오.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적은 보시금으로
의식에 필요한
사물 다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법고,태징,북,목탁,요령 등
010-3657-6302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기도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승납 40년,
60대 비구입니다.
기도 부전자리
찾습니다
019-590-3558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한민족 토착 신학생 모집
고졸이상 남 녀 동등자격자
여권사진4장 주민등본1통 자세한이력서
토착신학과 한학구국운동과
입학원서20만원 월교재비5만원 숙식별도
원서접수는 우편접수 우편환등봉 개별면담 후 통지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한학선원
한학자연 종교 연합대학
041)544-44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7139-8631
010-9127-633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김천)
010-7178-070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곡성 태안사)
(보시금 상담 후 절충)
010-8617-636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 주)
017-206-0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심 와 기 도
• 삼생에서 지은 죄와 빚을 아우러서 지우는
영통기도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천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영천시)
010-2828-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972-806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성남, 65세 이상)
010-8894-3989

모 집
예비 승려를 모집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 여권용 사진 2매 (60세 이하)
공양주 보살님을 모집니다
60세이하, 숙식가능한 보살님 (부부도 가능함) 급여 상담 후 결정
(용인시 수지구)
031)262-0606 / 010-8930-157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시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공 고
사)생활불교협의회에서는 석능인(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황사)이 소지한 저희 단체의 단체등록증과 선임장, 법인등기 주소 등은 취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또한 향후 저희 단체를 도용 하여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인터넷 등에 사용한 사항은 무효이며, 이를 사용할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이 귀하께 있음을 통보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사단법인 생활불교협의회장 김도균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16-1번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합천)
010-9506-5706

불교전문 교정인을 찾습니다
불교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교정, 윤문 전문인을 모십니다. – 재택근무 –
간단한 테스트 후 교정료 결정
전문가로서 경험있는 분만 전화 요망
한국불교대학 부속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전통 범음범패 (바라 · 작법) 과정 학인모집
사물, 불교의식, 기초교리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연 락 처 : 051)442- 1818. fax 051)442-1817
010-9467-0340 (교육상담 성각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0-3618-6061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특 강 안 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탈 종 공 고
• 법 명 : 일행 (최돌자)
• 승려증번호 : 1206-296
• 주 소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 884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율종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8평
- 요사 : 190평
- 부지 : 51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전남 남원
- 법당 : 23(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19,000
- 가액 : 9억

- 위치 : 경남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11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대금 : 3억 5천만원

부산 광안대교 전망 좋은 절

- 총부지 : 550평(주거지역) (총건평260평)
- 법당 150평, 요사 150평
- 주차장 200평, 사찰 뒤편 산세 좋음
- 총 금액 : 13억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전국사찰안내 전문공인중개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양도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 람 010-8980-4789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 196평
- 주차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 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 부지: 650평, 법당 30평
- 요사 50평
- 차량진입
- 산과 호수가 있는곳
- 가액: 7억 7천만원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이야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011-809-7434주인직접

암 자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도로변 위치
- 대지 120평, 건물 20평
- 황토 벽돌, 한옥, 임법당
- 관세음보살, 신중탱화, 산신
- 즉시 입주 가능● 전세 6천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조용히 수행하실 분

010-6579-2303
010-2787-4148

강남포교원안내

- 위치: 논현역 1번출구 1분거리
- 2층 35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5만원
- 관리비 5만원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780-3580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홍천읍에서 5분거리
- 425평, 건물 45평
- 토굴 기도처로 적합
- 가액: 7500만원

010-8983-525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화성군 동봉면
- 대지: 1500평
- 요사채 20평 법당 15평
- 건물2007년 조립식건물
- 가액:평당 15만원 시설비: 7,000만원
- 가액 2억3천만원

010-2603-696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 15평, 2층
- 보증금 2백 5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5042-1003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 5층 80평, 엘리베이터 有
- 천안역 3분거리 ●관음, 칠성, 산신, 용궁 모셔져있음,후불탱화,신중탱화
- 법당, 큰방1, 에어컨2대, 냉장고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조정가능)

010-4781-86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수비면 일월산 끝자락
- 전, 임야 총 670평
- 가액: 2500만원
- 청정지역, 물 좋고 산세좋음. 1급수
- 양쪽산이 감싸고 있어 공부하신 분께토굴터로 적합

011-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 부지 500평 ●주차용이
-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5억 3천만원 (대출1억4천포함)
- 현지 답사 후 조절 가능
- 미분양납골320기, 1기분양가 250만원

010-5262-5545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 국가지정 문화재 거대 마애불(보물)
- 시내중심 최상의 불사조건
- 영험한 마애불상 주변 평지 같은 임야 8500평 중 잡종지로 전환 가능한 땅1000평
- 가액 : 20억

010-5012-223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 평수: 4층 건물에 2,3층 사용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700만원, 상담후 결정

010-8390-665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 총평수 : 382평
- 법당 7평, 공양간, 방사2칸 (현대식 1칸), 주차장 시설
- 전세금 없음. 본인 자산으로 생각하여 관리차원
- 시설비 2500만원

010-7628-3663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 내
- 별장식 암자 ●평수 200여평
- 시문화재 등재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조절가능)

011-623-4487
011-229-41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 도시권 지목: 임야 자연녹지지역
- 치악산조망 주변혐오시설 없음
- 도접 : 전기 상상외 싼 땅 11702㎡
- 약 3540평 융자 6500만원 포함
- 승계가능 양도가 2억

010-60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 대지 980여평
- 임법당, 요사채 1~2층. 50평
- 별채 10평. 연못 1개
- 가액: 3억 5천만원

010-8660-9449
011-779-9565

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유원지 부근
- 임야 : 3만 5천평
- 현재 한옥 2채 현재 임법당 운영
- 사찰 및 연수원 양로원 적합
- KT서원주역 10분거리 청량리역에서 30분거리, •통신광케이블 도로포장
- 평상 7만원 절충가능

010-2554-6727

포교원안내

큰절 소임관계로좋은인연 찾습니다

- 위치: 부산시 사하구
- 5층 = 90평
- 6층 = 90평, 옥상=80평
- 6층 : 법당.스님 친견실
- 5층 : 공양실, 방6개
- 보증금 1억. 월세 150만원
- 시설비 약간

051)973-034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
- 상가건물 3층, 독채 30평
- 법당, 방3개, 주방, 욕실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700만원

010-3107-12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학동
- 5층의 4층 40평
- 법당, 주지실, 접견실, 공양간 욕실, 냉난방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 관리비 없음
- 즉시법회가능

010-4000-29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부지 : 70평(바다전망)
- 법당 : 30평
- 요사 : 70평
- 가액 : 8억5천

- 위치 : 경남전통사지
- 부지 : 총 1100평
- 법당 : 25평(목조기와집)
- 요사 : 30평(문화재보유)
- 가액 : 13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도심암자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삼랑진읍
- 삼랑진 기차역에서 200미터거리의 도심암자
- 평수:대지 : 63평
- 법당:11평, 요사채: 25평 현대식
- 30대이상 주차장시설 완벽
- 가액: 8,500만원 (스님,법사,영철학자,보살님 참 좋음)

010-2055-3366 (스님 직접)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내 ● 총평수 : 1천평, 대지 300평
- 자연석 바위로 기초하여 법당, 신중단, 영가단을 법당 내에 설치하고 법당 내벽은 푸른대나무를 사용하여 신성함을 더했고, 옆면, 뒷면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쌓여있다.
- 절마당에 작은 연못, 앞은 계곡의 물이 사계절 흐르고 사찰로 진입하는 단독 길은 산밑의 도로와 일반국도에서 50M 걸어오면 계천을 걷는 원형다리. 밑에는 맑은 물속에 물고기가 놀고있는 천해의 경관이다.
- 법당, 주지실, 산신각, 요사채. 건물 4동. 가액 : 3억 5천

055)224-3385 주지 합장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505평 반(등기필)
- 와가법당 20평 2층 (단청필)
- 요사채 38평
- 창고 15평, 옥외화장실, 창고 6평 (6층석탑 제주석)
- 특히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영천시 화남면 죽곡1길 ● 부지: 527평
- 법당: 33평(철근콘크리트)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 요사채: 40평(방3, 거실1, 실내다용도실2)
- 기타: 10평(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CCTV)
- 가액: 2억 6천만원. 스님 건강상 저렴한 가액으로 급 양도(답사후 조절가)

010-2544-48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7평, 지하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 (인터넷참고)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 3,000만원포함)

010-3194-3738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밑
- 대지 195평, 도심 포교 최적지
- 법당 40평(장엄완벽) 방3개
- 후원채 20평, 화장실 따로
- 보증금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4천만원(1억 들었음)

010-7181-6794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여름방학 특집 - 불교적 힐링 '미디어 다이어트'

〈2〉 미디어 중독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뇌손상…주의집중·감정·인식조절 부위 변화

현대 사회는 정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 수많은 정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서 부유(浮遊)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유하는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한다. 하지만, 이런 IT기기는 반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미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미디어에 무분별로 노출된 청소년들이다. 특히 방학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이에 본지는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현황과 영향 그리고 불교적 힐링 '미디어 다이어트' 방안을 여름방학 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청소년이 게임을 하면 어떻게 뇌파가 변화하는지 실험하고 있는 모습. 많은 전문가들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청소년 두뇌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EBS 다큐멘터리 화면 캡쳐〉

나는 미디어 중독일까?

인터넷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에 과몰입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미디어 다이어트'라 한다. 딱히 중독성 강한 미디어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대책없이 끌어당기는 많은 미디어에서 자유로워지는 '미디어 다이어트 과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중독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빠져 대책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성인들이 이러할 진데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의 정도는 과몰입을 넘어 중독의 단계로 들어간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미디어에 과몰입 내지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미디어에 과몰입·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시간 자주 인터넷을 한다고 생각 않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위사람들이 지나치게 지적한다고 생각한다. 화나 짜증을 폭발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자신들이 인터넷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에 과몰입·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여러 가지 매뉴얼들로 점검해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iapc.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중독 자가점검표'를 참고해도 좋다.〈본지 901호 표 참조〉

여기서는 미국의 인터넷중독 점검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미국의 컴퓨터접속중독센터(COL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넷중독증(IA: Internet Addiction 또는 Webaholism) 징후를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분류,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IA라고 경고하고 있다.(성인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학생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1.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업무상 매일 사용하는 것은 예외. 그밖에 하루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갖는다.

2. 접속한 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무아지경에 빠져 다른 일은 까맣게 잊는다. 밤을 새우는 것이 다반사다.

3. 외출빈도가 점점 줄어든다.

-컴퓨터와 노는 시간이 즐겁다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나가려하지 않는다.

4. 식사시간이 점점 줄고 모니터 앞에서 먹기도 한다.

-인터넷에 빠지면 식사시간도 아깝다는 느낌을 갖는다.

5. 주위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핀잔한다.

-알콜중독과 일맥 상통한 것이나 자신은 못 느끼는데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6. 전자우편상자(메일박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한다.

-이메일이 와있을 것 같아 수시로 메일박스를 열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7.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홈페이지 주소(URL)을 알리고 싶어 안달이다.

-누군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상태. 인터넷에 무관심한 사람에게조차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려 한다.

8. 직장일로 바쁠 때에도 인터넷에 접속한다.

-시간에 쫓기는 직장업무를 하면서도 잠시 휴식하는 기분으로 인터넷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한다.

9. 가족이 집에 없을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인터넷을 할 때는 가족도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 집에 아무도 없어야 편해진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의 인터넷에 대한 몰입정도를 체크해서 청소년 자신이 어느 정도 미디어에 집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의 기준을 세우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미디어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미디어중독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INDEPENDENT'는 최근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의 뇌에서 코카인 등 약물중독과 비슷한 구조 변화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최근 발표된 이 내용은 중국 상하이정신건강센터가 '인터넷 중독장애' 진단을 받은 성인 17명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영상 촬영 결과 인터넷 중독자들은 감정처리, 주의집중, 의사결정, 인식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를 연결하는 '백질(white matter)' 신경섬유에 손상이 관찰됐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자들의 이러한 뇌 구조 변화는 알콜이나 코카인 등의 약물에 중독된 이들의 뇌 구조 변화와도 유사하다고 한다.

두 번째, 미디어중독은 청소년들의 지능발달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본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대진·박민현 교수(정신건강의학과)팀은 2009년 9~10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 389명과 여자중학교 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9.5%(61명)가 인터넷 중독이며 이들의 이해력과 어휘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독 기간이 길수록 '수리력'이 떨어지고, 중독이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을수록 '숫자암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력은 지속주의력, 작업기억력 등과 관계되며, 숫자암기는 청각주의력과 단기기억력에 연관된 항목이다. 이는 어린나이에 인터넷 중독이 시작된 경우 주의력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인터넷중독을 포함한 미디어중독은 초기 청소년기 추상적 사고와 사회적 판단능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두뇌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할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인터넷 등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면 각종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뇌를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지나치게 미디어에 과몰입하면 청소년기 성장장애를 가져온다. 게임을 오래하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야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부족과 신진대사 이상으로 골밀도가 낮아지고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뼈가 약해지고 휘어져 성장판을 자극하지 않게 되어 키도 크지 않게 된다. 아이들의 신장은 대개 부모의 키만큼 자라는데 이처럼 유전적 요소 외에 후천적으로 수면결핍이나 영양상태, 특정 질환이 있으면 성장장애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방학동안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아이들은 통제력을 잃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지속할 경우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10% 스마트폰 중독 단계
몰입도 체크해 사용 기준 세워야
전자파, 호르몬계 교란 위험
두뇌발달, 성장장애 등 부작용도

네 번째, 미디어에 과몰입된 아이들의 수면장애나 호르몬계의 교란이 일어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방학이 되면 게임이나 채팅 등으로 수면장애가 생긴 아이들이 수시로 갑자기 깼다가 다시 잠드는 매우 불안정한 수면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게임의 잔상이 남아서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는 소아불면증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된다. 또한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뚱뚱해져 성조숙증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밤늦도록 TV와 컴퓨터 앞에 앉아있게 되면 뇌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나 보통 TV나 컴퓨터게임, 스마트폰 게임 등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운동시간을 줄이고 전자파를 뿜어내어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중독은 기타 많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데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현실 생활의 특정 영역에서 유능감 상실(관계형성의 능력 부재나 왜곡)

-강박적 집착과 사용(인터넷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처럼 불안 초조)

-자기 통제력 상실(충동적, 단순성, 사태의 감정적 처리, 즉흥성, 폭박성, 기분에 좌우)

-우울(슬프고 불행한 감정, 우울증 환자의 80% 내과적 질병 동반, 우울증 환자의 10-15%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함)

-낮은 자아존중감(자신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각)

-내성(인터넷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 할애, 인터넷사용시간 조절실패)

-금단현상(인터넷을 못하면 재미가 없고, 초조, 인터넷 사용을 방해받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

-공격성(적대감,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가족이나 전문가에 대한 폭력)

-신체건강약화(영양실조, 만성피로감, 근골격계 장애, 심장마비, 혈전 증후군으로 인한 돌연사)

-일상생활장애(인터넷을 하기위해 다른 일을 미루거나 포기, 수면 줄고, 성적저하, 가출,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불복종)

-공존질환(인터넷 중독의 86%가 복잡한 공존질환인 정신질환, 우울증, 사회공포증,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행동장애, 약물남용, 성격장애 및 신체화장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과몰입이나 중독의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일반적인 인터넷중독 예방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루중 PC를 켜고 끄는 시간을 계획하여 '일정한 시간동안만 접속'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PC의 용도를 오락이나 휴식에 이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늘리고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 비중을 높혀야 한다. 네 번째는 인터넷 아닌 다른 할 만한 취미를 찾는 것이다. 참고해서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는 것이나 치유하는 것이나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이 진행하는 〈청소년 미디어 다이어트캠프〉 관련 내용입니다. 글=이태호 기획이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강화 고려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00 ~ 03: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현우경' 이야기 (34)

부처가 된 찬제파

"여인들을 꾀어 내려고 홀로 숲에서…"

어느 나라에 가리라는 왕이 살았다. 그 나라에는 찬제파라는 선인이 살았는데 항상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다. 어느 날 왕은 궁녀와 신하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왕은 숲 속에서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궁녀와 신하들은 찬제파가 수행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찬제파가 수행하는 모습에 반해 설법을 청해 듣고 싶어 했다. 찬제파는 궁녀와 신하들의 부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했다. 그들은 모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찬제파 앞에 모여 그의 얘기를 경청했다.

그때 낮잠을 자다 깬 왕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신하와 궁녀들이 모두 찬제파 곁에서 그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몹시 화가 났다.

'감히 나를 버리고 저런 놈 주변에서 얼쩡대다니! 가만있지 않겠다.'

왕은 찬제파에게 다가가 말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제가 수행을 하던 중 사람들이 몰려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던 참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진정 수행을 했다면 선정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량심은 얻었는가?"

"얻지 못했습니다."

"선정도, 무량심도 얻지 못한 놈이 감히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설법을 하였다는 건가?"

왕은 찬제파에게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여인들을 꾀어내기 위해 이런 숲 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척 한 것이 아니냐?"

"절대 그런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수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곳에서 어떤 수행을 했느냐?"

"인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네가 진정 인욕을 수행했다면 내가 너를 시험해 보아도 되겠느냐?"

"그러십시오."



삽화 · 강병호

왕은 칼을 들어 그 자리에서 찬제파의 손을 잘랐다.

"감히 네가 이렇게 까지 했는데 욕됨을 참는다고 할 수 없겠지."

하지만 찬제파는 손이 잘렸음에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왕은 찬제파의 두다리를 또 잘랐다. 찬제파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에는 그의 귀와 코마저 베어버렸다. 그럼에도 찬제파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진동했다. 하늘사람들이 찬제파를 헤치려 하는 가리왕의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한 것이다.

"네 이놈! 감히 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때 찬제파가 하늘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를 위하신다면 왕을 벌하지 마십시오."

왕이 찬제파에게 말했다.

"어째서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도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는 것이냐?"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무리 참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제가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제 몸에서 흐르는 피는 우유로 변할 것이고, 몸은 예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찬제파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피는 우유로 변하고 몸은 원래대로 회복됐다. 이 광경을 목격한 왕은 깜짝 놀라 말했다.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선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찬제파가 말했다.

"앞으로 나와 함께 수행한다면 그대는 지혜의 왕이 돼, 세 가지의 독을 끊고 후생에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리왕은 참회한 후 찬제파와 그의 제자들을 궁으로 초청해 공양을 올렸다. 하지만 가리왕이 찬제파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몇몇 신하들은 시샘을 했다.

"도대체 뭐하는 자이길래 왕의 은총을 한몸에 받는 것이오"

그들은 찬제파가 앉은 자리에 흙과 오물을 끼얹으며 그를 궁에서 내쫓으려 했다. 그때 찬제파는 마음속으로 서원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해 부처가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의 탐욕과 더러움을 없애 영원히 청정하게 해주겠다"

그 후,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흘러 찬제파는 부처가 됐다. 부처로 다시 태어난 찬제파는 수많은 중생을 만나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했다. 그때 천명의 중생이 출가해, 비구가 되어 아라한의 도를 얻게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팔만대장경 속 우화 36

– 어느 노파의 깨달음 –

구성-김흥인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설법 · 화술
무료공개강좌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격려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40년 노하우,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 한국설법연수원회장

※ 무료공개강좌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4~6시

설법연수일정

◆ 수시접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2개월 과정)
◆ 종합반을 진도식 교육이 아닌 훈련식으로 교육
◆ 개인지도 : 환영(직접 상담 결정)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H·P 010-7248-1567 ☎ 02)747-1567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902호 현대불교
2012년 8월 22일(음 7월 5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캠핑왔다 한 철 사는 건데 편안하게 웃으면서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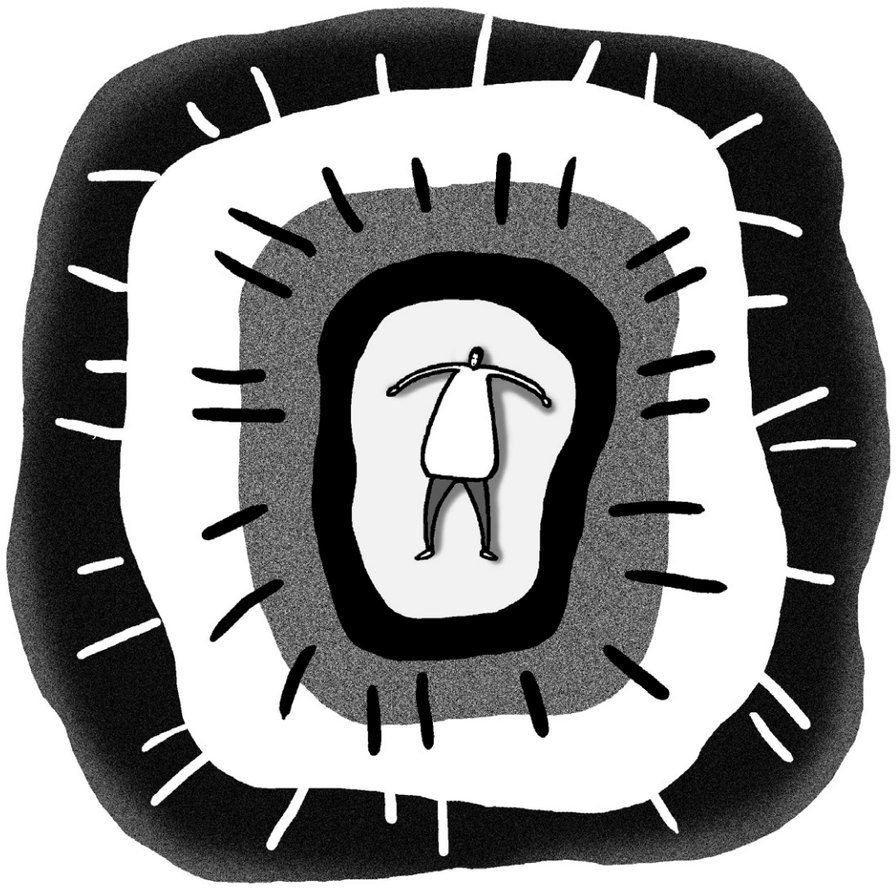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는 항상 주머니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자재 못하고 사는 거죠. 죽이고 먹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남을 죽이고 또 뺏어먹고 이러겠습니까? 남을 자꾸 주고, 이끌어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그대로 지금 얘기한 거와 같이 지옥이죠. 그 유전성이든 업보성이든 영계성이든 세균성이든 인과성, 이 모두가 이 자리 현실에 있는 거고, 현실에서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미래가 끝나면 다시 돌아서 또 현실로 오는 과정의 걸음걸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또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간에 홀랑 벗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때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이 공부를 안 하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집집마다 기웃거리고 다녀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자기는 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아주 그 괘씸스럽죠, 자기 깐에는요. 딴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렇게 괘씸스럽고 그렇죠. 또 자기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영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우니까 "이놈 자식,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냥 때리고, 그래서 분이 나서 친척집으로 가면 아, 친척집 역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여길 가도 그러고 저길 가도 부대끼고 그렇게 자기가 부대끼니까 그 식구가 다 부대끼는 겁니다. 집집마다 말입니다. 좀 살 만하면 이렇게 되고, 좀 살 만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또 터지고 저런 게 터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들은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어? 그저 한 푼 벌면 두 푼 나가려고 아주 미리 작정하고 있구먼.' 하고 한탄들을 하시죠? 허허.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만날 이 공부를 지극하게 하시라,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 하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식과 위로 부모란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중간에서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느냐. 자식한테도 그렇게 어긋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자꾸 마음의 주인공에다가 지극하게 놓아야 되겠죠. 그 자식의 주인공도 있을 테니깐 말입니다. '그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닌데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자꾸 놓으면서, 또 들어오면 부드럽게 해줘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요놈의 새끼야, 그러냐 마냐. 어떡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마냐." 하니까 이거는 더 빗나가요. 그냥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마음 거슬리지 않게 해드리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거 거슬리는 말씀 하시면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그렇게 나중에 돌아가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합죠 하고 여기다 놓고서는 잘되게끔 돌려야 되는 거죠. 또 부모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되라고, 마음으로는 잘되라고 하는 거지 못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어머님, 그렇게 하지요." 하고서 거기다 놓고 어머님이 잘되라고 하신 거니까 잘돼야겠다 하고선 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은 양쪽이 다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는 똑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걸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아, 이러고 대드니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모두가 비유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남편과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시려면, 이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한 철입니다, 한 철! 캠핑 왔다가 한 철 놀다 가는 한 철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웃고 즐기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울며 아프며 복장을 찧으며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또 이런 거를요, 백종(百種) 때. 왜 백종을 지내느냐는 얘기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서 지옥고에 떨어졌다, 물고기로 태어났다, 또 소로 태어났다, 뭐 독사로 태어났다, 가지각색으로 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틈에 끼었다 이런다면은,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백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더러더러 나오죠. 그런 사람과 같이 백종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남한테 모함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자꾸 이렇게 그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빚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자연적 좀 나아지죠. 나아지면서 그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그 부모의 조상들이 모습이 다시 변화돼서 인간으로 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또다시 그러한 문제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다음에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끌고 가야 하니깐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고만이지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죠. 하다못해 내가 콩씨 얘기를 가끔 하죠. 무우씨 얘기도 하고요. 이제 무우씨 싹이 말입니다, 싹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만 그 종자가 있어서 또 심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이 어딨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승의 사람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下)의 종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자유자재권은 바로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백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성취하십시오. 또 백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거 그대로가 백종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無心)세계, 유심(有心)세계 둘이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세계 유심세계가 둘 아니게 정신과 물질인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하얀 백종이죠. 허허허.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백종이 따로 없고 현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하게 자유자재권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말은 이렇게 허명하게 허실하게 했지만요, 듣는 분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남):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정신이 안정치가 않아서 큰스님의 지도를 받을까 싶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열이 항상 위로 상기되면서, 그러니까 지난 94년 초에 열이 상승하

☞ 30면으로 계속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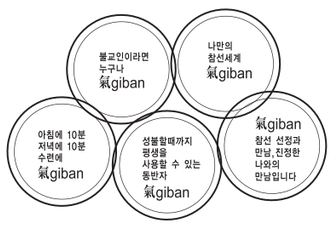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무엇이든 마음의 주인공에다 지극히 놓아야 됩니다

☞ 29면에서 계속

기에 침을 맞았더니 역기(逆氣)가 돼가지고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역기가 된 이후로부터는 시력이 차차 떨어지고, 또 집중력과 포착력이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지금 이 시점에는 저가 연초부터 한마음선원 공부를 하면서 이 계속 큰스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관(觀)하고 관하고 또 했는데도, 공념이 머리에 항상 떠오르기 시작해서 공념 자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이 관하는 법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주인공 찾기를 이름만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1(남): 네, 주인공을 많이 찾고 있지요.

큰스님: 네, 많이 찾고 있어도요, 그 맷돌에 물건을 넣지 않고 굴리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이 깊은 마음 속에 진짜로 믿는 것은요, 잘된다 낫는다 못 낫는다, 이걸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형성시켰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죽으나 사나 믿는 거죠. 낫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신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진짜 이 콩씨는 콩과 콩싹이 어느 거 하나가 없어도 안 되죠. 콩이 콩싹을 만들지 않으면 콩싹에 콩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깐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을 자꾸 둘로 보시고 그저 주인공이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은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벌써 이게 통신이 돼야 심성의학이 되죠. 통신이 돼야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념이 두텁고, 그만큼 진실하고, 그만큼 믿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몸을 가지고 움죽거리지만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은 어떻게 움죽거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송장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근본,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만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나무가 하는 소리가 '뿌리야 뿌리야, 너 뿌리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네가 네 싹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누렇게 지금 떠 있다.' 허허허.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여!' 하고 뿌리에게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그래, 나를 너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 수분과 철분 모든 거를 올려보내마.' 그러니까는 '아, 그러냐!' 고 좋아서 하더니만 그렇게 싹이 푸르러지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게 모두가 저런 꽃나무고 나무고 식물이 말 안 하는 것 같죠? 말 꼭 합니다. 오히려 진지한 말들을 하죠. 여러분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진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꽃이 돼서 꽃 한 송이 줘서 참 마음이 기쁘다면 하(下)중생들이, 즉 우리가 부처님 믿는 짝이죠. '꽃공양을 올려서 내가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대담을 하면서 서로서로 이 나무에 가서 놀다가 저 나무로 가고, 저 나무에 가서 놀다 이 나무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좋은데 나무들도 때에 따라서는 흙이 가려서,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인간으로선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그런데 나무들로 봐서는 흙이 가린 거죠. 흙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봐서 자기 뿌리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죠.

> 왜 백종을 지내느냐.
>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화해서 지옥고에 떨어졌다,
> 물고기로 태어났다,
> 또 소로 태어났다, 뭐 독사로 태어났다,
> 가지각색으로 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틈에 끼었다면
> 천도재를 지극하게 해서 그 몸을 벗게 해 주는 것이
> 바로 백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역시 자기 뿌리를 무명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이 나무들도 예전에 외국 가면서도 보고 그러면은, 눈이 내리고 바람이 세고 그렇게 해서 그 앙당한 가지들만 남은 나무들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빙긋이 웃고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참 족하도록 정말 인내가 있구나! 다시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앙당한 가지를 떨며 기다리는 그 인내, 너도 참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히죽이 웃고 돌아서지만 그 차가운 들에 바람은 쌩쌩 불고 옷깃 여밀 것도 없는 그런 앙당한 가지도 그저 '내년 봄이 오면은 여밀 옷깃이 생기겠지.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일분 일초 후도 미래니까 미래로 전진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거짓 없이 해야 하지만 이쪽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주 잘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융통성이고 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실히 믿으시고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앙당한 가지는 뿌리를 믿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선생님도 뿌리를 믿고 기다리시면서 '너만이 봄이 오게 할 수 있고, 너만이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지 딴 사람이 할 수는 없다.'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되겠죠.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지난 4월 병원 입원시 같은 병실의 옆 침대에 간질환으로 먼저 입원한 환자가 있었는데, 역시 불자이므로 한마음 공부에 대해 포교도 하고 큰스님 법문 테이프와 『무』, 『도』, 『한마음』, 『영원한 나를 찾아서』 등의 책자도 전해주어 공부를 시켰는데, 처음은 반신반의하며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밤에 관하고 앉아있으면 저는 없어지고 옆 침대의 환자의 관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이 삼사 일 되었는데, 어느 날 관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것 같았는데 꿈속에서 옆 환자가 간경화가 아니고 간암이며 중증이라는 꿈이 꾸어지고 난 후 눈을 뜨니까 다음날 새벽 4시였으며, 그날 오전 중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담당 의사가 오더니만 내일 중에 형제자매 전부 연락해서 병원 오라 하며 컴퓨터 촬영건으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저의 꿈이 틀림없구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밤새워 간암환자인 그 사람을 위해 한마음으로 관을 했는데, 그 이튿날 처와 모친 형제자매가 의사를 만나더니 "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을 친견하면 우리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고 하므로, 일심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고 맡기면 틀림없이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는 아직도 간경화인 줄만 알고 있으면서 서울대학병원에 간다면서 퇴원 수속 후 서울로 갔는데, 가기 전 간에 좋다는 얘기만 들으면 전국 어디든지 가서 한약과 양약 조제약 등을 구해다가 환자에게 먹이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눈물겨운 정황이었습니다.

서울 가서 십여 일 후, 상태가 더 악화되어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에 안양 본원에 들르려다가 비행기를 탐으로 해서 그냥 내려왔다는 둥 저와는 가족들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통화를 했으며, 부산 내려온 후 큰스님 설법 비디오 테이프도 전해주고 열심히 관하라고 했더니, 환자가 정성껏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하더니만 큰스님 친견을 했으면 한다기에 방법을 얘기해줬더니, 가족들과 승용차편으로 안양에 도착하니 부처님 오신 날 직전이라 큰스님 친견을 못하고 주지스님을 친견했는데, 관하는 법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시간 이후 환자는 오직 큰스님 법문이나 설법 내용에 심취하여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마음 주인공, 둘이 아닌데 정말 감사해. 그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며 관해지는데 70~80%는 그 환자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양 다녀온 다음 날부터 부산지원에 환자 부인이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으며 저도 그 환자 부인을 데리고 스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매일 다니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재입원을 했다는 소리를 하면서 환자 상태가 선원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부인이 오전에 선원 왔다가 병원까지는 저의 처가 차로 태워주곤 했습니다. 제가 5월 20일이 지나서 큰스님께 제가 무사히 퇴원한 것을 감사 말씀 드리려 안양 간다 하니 환자 부인이 자기도 가고 싶다 하므로 큰스님 친견하러 가서 저의 퇴원에 대한 감사 말씀 드리고, 그 환자의 자초지종을 그의 부인과 함께 말씀드리니 큰스님께서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오직 주인공만이 할 수 있으니 열심히 관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복수가 심한데 한약은 절대 금물이니 끓으라고 하시면서 생감자를 갈아서 미숫가루에 타서 환자 주고 입에 맞는 것만 먹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오니, 환자는 오직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먹고 주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저의 처와 병문안을 가니 처음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으며, 3일째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다며 자꾸 토해진다는 얘기를 하므로 모든 것은 주인공의 나툼이니 속지 말고 열심히 관하라고 얘기하며 환자와 눈이 마주치는데, 제가 속이 편치 않아 역겨워지므로 휴게실에 나와서 잠시 누웠는데 저도 갑자기 혼미해지더니만 기절을 한 모양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저의 처와 환자 동생이 찾아와서 깨우는데 한참만에 정신을 차리니 전신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환자에게 가서 "한마음 주인공과 대행 큰스님을 열심히 찾고 관하라." 한 후, "마음은 편안하지요?" 하니 토해지는 것 외는 통증도 없고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환자 부인이 2일째 선원에 안 나와서 병실로 전화하니 그 환자가 어제 새벽에 운명하여 영안실에 계신다 하므로 그 후 영혼을 위해 관해주면서 빈소에 가니, 모친 말씀이 약간 웃음 띤 모습으로 하나의 통증도 없이 잠자듯이 운명하더라기에 통증 없이 또한 큰스님의 베푸신 한마음 공부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맛을 보고 몸을 벗었으니 다음 생엔 좋은 인연 만나리라 하고 관했습니다.

저도 아직 저의 공부도 완벽치 못한데 다른 환자를 위해 관하다 보니 환자의 병 상태도 꿈에 보이고, 마지막 운명 직전 저녁에 환자와 얘기를 하던 중 제가 정신이 혼미해짐에 기절한 것이 어떤 연유인지 큰스님의 높으신 법문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너무 지극하게 하셨으니깐 그렇겠죠. 잠시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니깐요. 그런 모르시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봤던들 그렇고 차차 알아지실 겁니다, 예.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여튼 여러분께서도요 열심히 하세요. 이것은 한마음 속에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심성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를 아시고요, 모두 첨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5년 8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불자 세상보기

불교방송 공영렙에 꼭 편입 시켜라



이 채 원
불교방송 사장

방송통신위원회는 탁상행정을 넘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미디어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더구나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지정하는 편향적 정책으로 불교계와 불교방송 임직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코바코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여의 진통 끝에 미디어렙을 공영과 민영으로 분리하는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켰다.

미디어렙법 제 3장의 12조 1항은 광고 판매 대행사의 지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성격과 방송광고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교방송은 같은 종교 특수방송인 CBS, PBC와 같은 미디어렙에 지정되야 한다.

매출 규모면에서도 불교방송은 두 회사의 중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지정한 것은 불교방송을 상업방송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 없다.

불교방송이 가진 종교방송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방통위의 정책을 놓고 불교계가 "종교 편향적 정책"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통위는 20여년간의 시장관행에 따라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다. 헌재는 20여년간 이어져온 코바코 체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장 특성에 맞도록 미디어렙 체제를 새로 짜야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종전의 관행만을 내세우며 불교방송의 민영렙 지정을 합리화 하려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상업방송 아니다
CBS, PBS 등도 공영렙에 편입
종교간 형평성 반영돼야



방통위는 불교방송이 광고판매 증대에 적극 나서는 SBS의 민영렙과 결합 판매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까지 불교방송의 매출은 전년대비 -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CBS는 AM의 경우 -3%, FM은 +2%의 증가를 보였다.

불교방송의 광고매출이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다. 앞서 6월 까지 불교방송의 매출액은 -15%였던 데 반해 CBS AM은 0%, FM은 3% 였다. 그나마 불교방송을 민영렙으로 몰고 가기 위해 SBS측에서 7월 한달간 인위적으로 광고를 몰아줬기 때문에 불교방송의 매출액 감소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원음방송의 적자폭은 -14%에서 -16%로 늘어 원음방송의 광고물량을 불교방송에 몰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범 불교계가 만든 불교방송을 목줄을 일개 민영방송사인 SBS가 조였다 풀어줬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숫자 장난을 통해 군소 방송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SBS를 믿고 민영렙으로 가라는 방통위는 국민을 위해 있는 정부기관인지, 민영 방송사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불교방송을 공영렙으로 변경하면 법 원칙이 허물어진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 이 문제가 종교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방통위는 불교방송이 공영렙으로 가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종교전쟁 운운할 정도의 사안인지도 밝혀야 한다.

불교방송을 여타 종교방송과 함께 공영렙으로 편입시켜야 종교간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종교방송 4사 사장단들도 6월 12일 종교방송사들을 공영렙에 연계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종교방송사는 각 종교의 특성이 깊이 반영된 방송사로 종교간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종교방송사들을 공영과 민영으로 분리한 방통위는 광고시장만 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교방송이 우리사회의 가치와 1600년 불교문화를 지키는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결합판매 고시 제정안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

발 언 대

종교 차별 요소 다분



주경 스님
조계종중앙종회의원

민영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방송들이 민영 미디어렙에 포함되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종교방송들은 공공영역의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돼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기독교와 카톨릭 방송은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되고 불교와 원불교는 민영으로 보낸 것은 누가 봐도 종교 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또한 법 정신에 애초에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성격의 공공매체를 공영과 민영 나누는 기준 역시 궁금하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정치적 흐름이 파행을 몰고 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종교방송 광고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종교간 형평성과 공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종교편향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없어진다.

방통위 적극 재검토 필요



능도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방송은 어느 개인이나 소수단체의 소유가 아니고 사회적인 공공재다. 방송광고 판매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관리 지원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SBS만 독자적으로 광고판매를 하도록 하는 이번 방통위 고시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불교방송 원불교방송을 SBS와 묶어서 내보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종단에서도 지난 7월 중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불교방송은 상업방송이 아닌 만큼 민영 미디어렙보다는 공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직후에는 청와대에도 의견을 전했다.

정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차별 선정 의도 무엇인가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MB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교차별, 편향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직자, 교육기관 등 사회전반에서 수시로 자행되고 반복되고 있다. 올해 제정된 미디어렙 법도 기독교와 천주교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허가하고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민영방송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 황에 심히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방송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편성의 60% 이상을 선교나 포교 방송을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즉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기본적인 법제정 취지와 의무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디어렙 선정 분류 시행 기준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社說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 완간의 의미

2006년 12월 시작된 〈한국전통사상총서〉가 최근 영역(英譯)본 출간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前조계종총무원장 故 지관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한 이 대작불사는 한국불교 역경사에 큰 족적이다. 한 가지 주제의 불교 총서물이 한글·영역까지 완간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고문으로 쓰여젼 〈한국불교전서〉를 요약한 만큼 그 양도 방대하다. '권1 원효'로 시작하는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화엄, 제교학, 공안집(1,2), 선어록, 시선집, 계율, 비문집 등 총 13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글과 이번 영역본을 합치면 26권에 달한다.

'다자간 번역시스템'을 통한 교차 검토와 검증은 이번 총서가 가지는 특징이다. 그간 1~2인에 의존함으로 이뤄지는 자의적 해석의 폐해를 확연히 줄였다. 교차 번역을 위해 8개 번역팀이 구성됐고, 23명의 세계 각국 불교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연구원들도 23명이 참가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이 같은 총서 완간은 학술적으로 여러 의미를 가진다. 사실 해외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 해도 기초자료가 부족해 연구가 여의치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해외 불교학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기초 학술자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실제 총서의 한글본이 완역됐을 때 전 세계 주요대학 313개 도서관들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배송을 요청했고, 영역본은 그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학술적 연구 토대는 조계종 33대 집행부의 주요사업인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 현 집행부도 이 같은 대규모 역경 불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 스님의 방대한 원력이 꽃을 피웠다. 이 향기를 이어가는 것은 이제 후학들의 몫이다.

노동위 발족 노동계에 큰 희망주길

불교계 최초로 조계종 산하에 노동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8월 14일 부실장 간담회에서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최종 점검했다. 정리 해고와 열약한 노동 조건에 지친 노동자들을 감싸 안기 위해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이번에 설치될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발점이 됐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 용기를 주겠다는게 주 목적이다.

또한 힘없는 개인이 당한 억울함을 종단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자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타 종교에 비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노동문제에 관심 갖는 것은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등을 두드려 줄만 하다.

대내외적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종령 기구인 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종단 대사회 노동 관련 종책 자문' '노동 현안에 대한 화해와 조정' '노동 분야 종단 내 교육 자문' '노동 피해자 긴급 구호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한다.

솔직히 '노동 문제'는 그동안 불교계 사회참여 중 미흡했던 분야였다. 그래서 인지 종단 내 산하 기구로 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첫 시작이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경험 많은 불교계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노동계의 억울한 목소리에도 두 귀를 쫑긋 세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뒤늦게 출발한 만큼 내실 있는 플랜을 세워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작대기 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소림 벽면 달마도

이제까지 보아 온 달마도가 아닌 완전 새로운 모습의 소림 달마도

달마대사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대사께서 행사신 면벽도는 달마도중 으뜸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중국 소림사의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거사님께서 불교계에 입문하게된 보은으로 오랜 연구 끝에 108가지 모습의 백팔 달마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요모습들을 선정해 그린 108장의 달마도를 다시 108번 그려서 11,664장의 달마도를 불자님들께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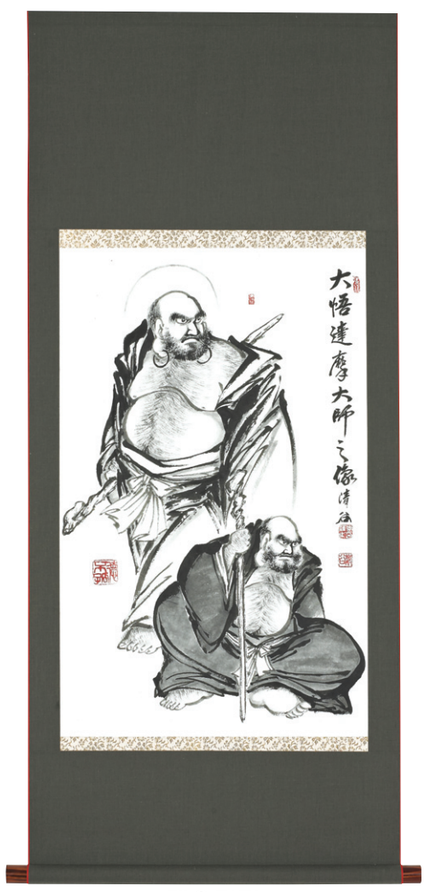
또한, 모든 불자님께서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30만원의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표구대와 제작비인 99,800원의 가격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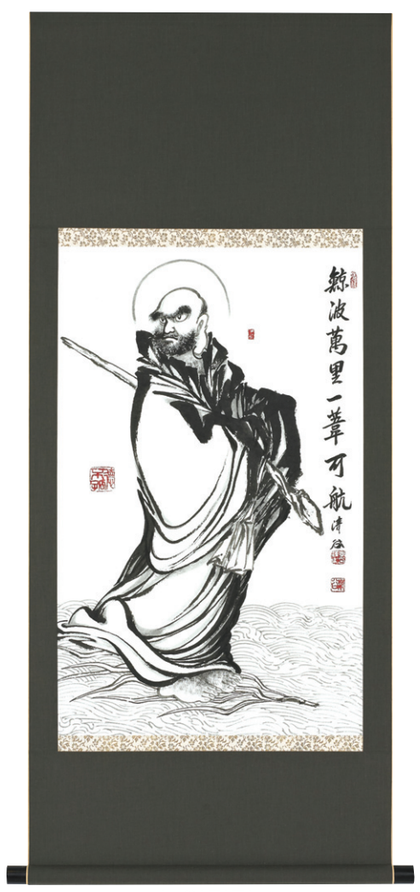
소림 면벽 달마도는 꼭 벽에 걸어 놓지 않아도 상자에 넣어 보관만 하여도 기를 발산되며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드리며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시면 세월이 지나도 그림이 변하지 않고 습기를 제거하고 좀이나 벌레가 쓸지 못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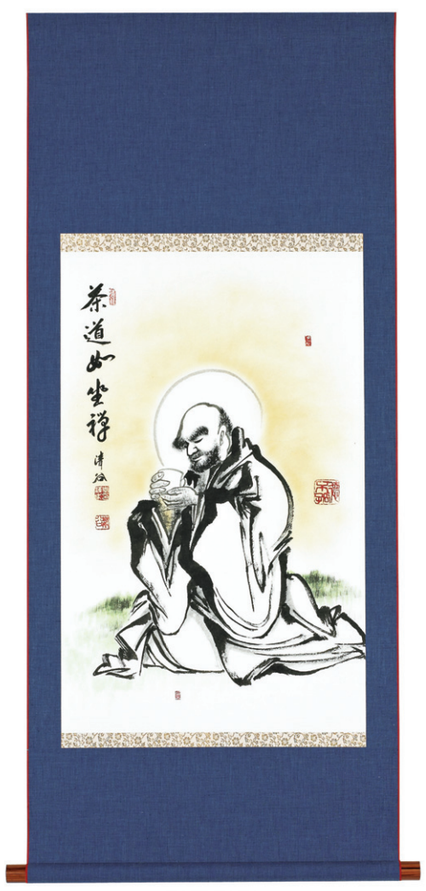
소림 달마도를 집안이나 사업장에 모셔두면 그림속에 발산하는 기로 인해 삼재 소멸 및 가정이 평안해 질 것입니다. 특히, 개업을 하시거나 집안에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모셔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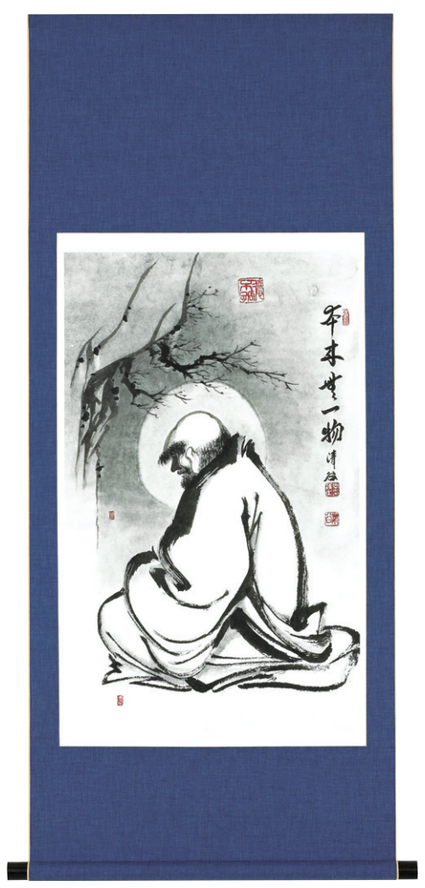


※ 전품목 사은품으로 용달마 순금카드 1점을 드리며 진품 확인서도 같이 드립니다.


대오달마


노엽달마


다도달마


면벽달마


보관함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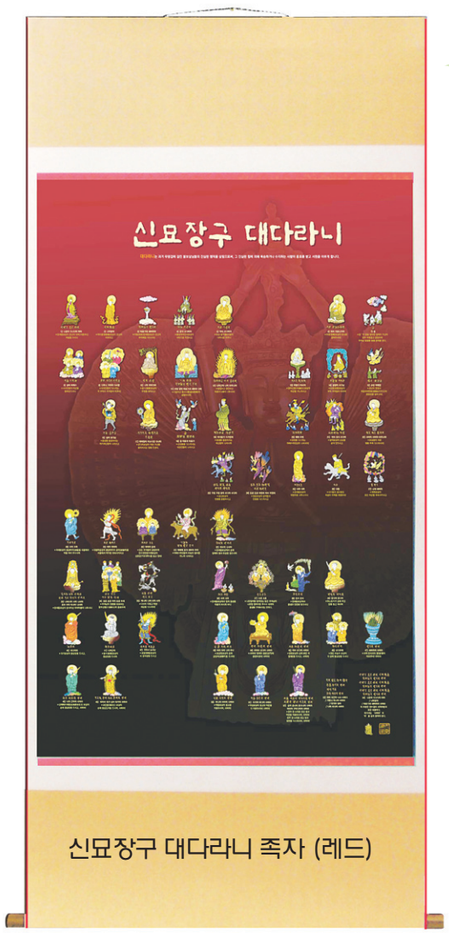
- 크기 : 125Cm×60Cm
  (오동나무상자, 핀고리박스 포함)
- 가액 : 99,800원 + 사은품


<사은품>
용 달마 순금카드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 42수진언

그림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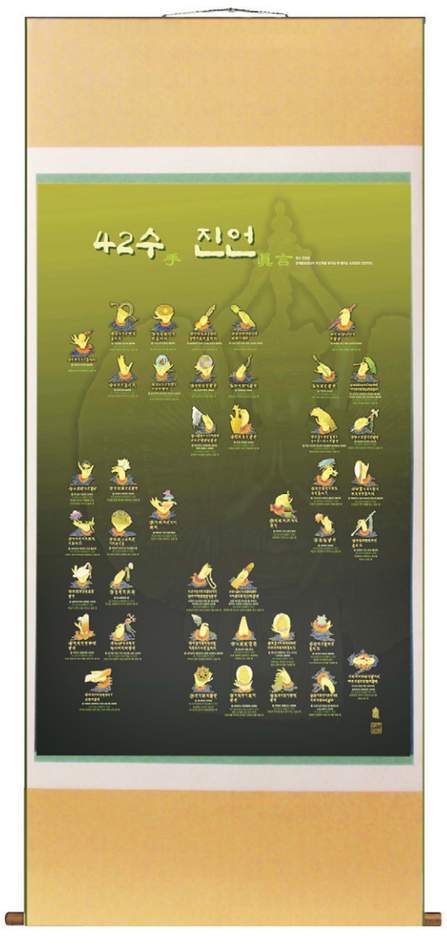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 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권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